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한국어
에세이 쓰기 교육 방안 연구
-패턴의 활용을 중심으로-

2017년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한 국 어 문 학 과

한 국 어 교 육 전 공

이 홍 미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김동환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한국어 에세이 쓰기 교육 방안 연구

－패턴의 활용을 중심으로－

A study on korean essay writing teaching method
for foreign student

2017년 월 일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한 국 어 문 학 과

한 국 어 교 육 전 공

이 홍 미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김동환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한국어 에세이 쓰기 교육 방안 연구

－패턴의 활용을 중심으로－

A study on korean essay writing teaching method
for foreign student

위 논문을 문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7년 6월 일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한 국 어 문 학 과

한 국 어 교 육 전 공

이 홍 미

이홍미의 문학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7년 6월 일

심 사 위 원 _____(인)

심 사 위 원 _____(인)

심 사 위 원 _____(인)

국 문 초 록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한국어 에세이 쓰기 교육 방안 연구

-패턴 활용을 중심으로-

한 성 대 학 교 일 반 대 학 원

한 국 어 문 학 과

한 국 어 교 육 전 공

이 홍 미

본 연구는 한국의 대학(원)에서 수학하는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논지 전개 전략으로서의 패턴을 활용한 에세이 쓰기 교수-학습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외국인 유학생들은 수학 과정에서 학술적 텍스트 생산 활동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학술적 텍스트는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전개해야 하는데 그 논지 전개 방법의 습득이 수월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쓰기 교육을 다룬 선행 연구들을 분석한 결과, 대학(원)에서 수학 중인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은 학술적 텍스트와 관련된 전문적인 작문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본 논문은 그러한 요구 분석을 바탕으로 학습자들이 생산한 텍스트의 논리성과 체계성을 더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판단에 따라 대학 수학에 필수적인 학술적 텍스트의 범주를 에세이로 통칭하고 에세이 쓰기 전략으로써 패턴을 활용하는 방

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다양한 에세이 생산 과정에 적용 가능한 패턴의 이해와 활용은 실질적인 쓰기 전략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선행 연구와 관련 이론을 검토하여 에세이와 패턴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유학생을 위한 현재의 한국어 쓰기 교육에서 에세이와 패턴이 활용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파악해 보았다. 주로 어학과정에 학문 목적 과정을 설정한 연세대학교와 서강대학교의 어학과정과 학위과정의 쓰기 교육 과정 및 교재를 각각 분석하여 한국어 쓰기 교육에서의 패턴 활용의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분석의 결과, 단순한 내용 전개 방법으로써 패턴은 제시하고 있으나, 패턴을 전략으로까지 활용하는 접근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에세이 쓰기에 활용 가능한 패턴을 ‘서술 패턴’, ‘사례 제시 및 인용 패턴’, ‘구분·유형화 패턴’, ‘비교·대조 패턴’, ‘원인과 영향 패턴’, ‘문제 분석 및 해결책 제시 패턴’, ‘논쟁과 설득 패턴’의 일곱 가지로 제시하고, 이들 패턴을 에세이 쓰기 활동에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즉, 패턴 중심적인 에세이 쓰기 교수-학습 방안을 제안하였다.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어로 자연스럽게 유창한 글을 쓸 수 있으려면 논지 전개 방법에 대한 학습과 훈련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는 ‘패턴(Pattern)’이라는 새로운 전략적 개념을 글쓰기 수업에 도입하려는 시도를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학습자로 하여금 적절한 패턴을 활용하여 논지를 전개하는 실제적 원리를 터득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의 차별적인 의의를 지닌다. 텍스트의 형식적 특징뿐만 아니라 내용 구조에 대한 학습을 통해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쓰기에 참여하여 체계적으로 본문을 구성할 수 있는 교수-학습 방안이다. 학습자들은 피드백 없이 수행해야 하는 과제물 작성이나 보고서 쓰기 등에서 패턴을 활용하여 자기 주도적으로 글쓰기를 완성하고, 자기 점검과 자기 통제를 통해 결과물을 스스로 평가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요어】 한국어교육, 학문 목적 학습자, 한국어 쓰기 교육, 학술적 글쓰기, 에세이 쓰기, 글쓰기 전략, 패턴, 논지 전개 방법

목 차

I. 서 론	1
1.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
1.2 선행 연구 검토	17
1.3 연구 내용 및 방법	32
II. 이론적 배경	34
2.1 에세이 쓰기 교육	34
2.2 전략으로서의 패턴 활용 글쓰기	41
III. 학문 목적 한국어 쓰기 교육에서의 패턴 활용의 효용성	47
3.1 학문 목적 한국어 쓰기 교재 및 교육과정 분석	47
3.2 한국어 쓰기 교육과 패턴의 활용	67
IV. 패턴을 활용한 에세이 쓰기 교수-학습 방안	72
4.1 에세이 쓰기에 유용한 패턴 학습	72
4.2 에세이 쓰기 교수-학습 방안	76
V. 결 론	92
참 고 문 헌	96
부 록	104
ABSTRACT	107

표 목 차

[표 1]	서울 주요 대학별 외국인 신입학 모집 요강 중 한국어 능력 조건	3
[표 2]	한국어능력시험(TOPIK) 등급별 평가 기준	4
[표 3]	이혜정(2013)이 제시한 주요 언어 교육 기관의 등급별 교육 목표	7
[표 4]	한국어능력시험(TOPIK)에서 제시한 급별 쓰기 교육 목표	9
[표 5]	학문목적 한국어 쓰기에서 어려운 것은 무엇입니까?(복수응답)	12
[표 6]	가장 어려운 한국어 기능 영역에 대한 응답	13
[표 7]	한국어 ‘주장하는 글쓰기’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14
[표 8]	한국어 쓰기 수업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에 대한 학습자 답변	15
[표 9]	박석준(2008)의 학문 목적 한국어의 하위 한국어 유형과 그 개념	20
[표 10]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쓰기 이론	21
[표 11]	한국어 쓰기 교육을 위한 장르 분류	23
[표 12]	이론서 및 교재에 따른 에세이의 유형 분류	39
[표 13]	학문 목적 한국어교육과정	48
[표 14]	어학과정의 학문 목적 한국어(기초한국어) 교재	49
[표 15]	분석 대상 교재 목록	50
[표 16]	연세대학교 대학 한국어 과정의 등급별 학습 내용과 학습목표	51
[표 17]	서강대학교 KAP200 과정의 등급별 학습 목표	53
[표 18]	KAP200 과정의 3급 이후의 대표적인 활동	54
[표 19]	『대학 강의 수강을 위한 한국어 쓰기』 등급별 제목	55
[표 20]	『서강한국어 학문 목적 과정 쓰기1, 2』의 주제 및 쓰기 과제	60
[표 21]	학위과정의 도구교과로서의 한국어 교재 중 글쓰기 교재 예	64
[표 22]	학자·교재별 글쓰기과정	77

그 립 목 차

[그림 1] 최정순(2006)의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하위분류	18
[그림 2] 외국어로서의 한국어에 대한 하위분류	19
[그림 3] 에세이의 구조 모형	35
[그림 4] 에세이의 구성	37
[그림 5] 『대학 강의 수강을 위한 한국어 쓰기 고급』의 본론 구성 예시 ...	58
[그림 6] 강의 내용을 시각적으로 나타내는 필기 전략	63
[그림 7] 텍스트 구조 모형	83
[그림 8] 내용 구조에 해당하는 다발짓기 모형	85
[그림 9] 에세이의 일곱 가지 패턴 모형	88

I. 서 론

외국인 유학생 수는 대학의 국제 경쟁력을 나타내는 지표 중의 하나다. 외국인 유학생의 증가와 함께 외국인 유학생의 적응과 학업에 관련한 여러 가지 방안이 모색되고 있는데, 대부분이 한국어 능력 향상에 집중되고 있다. 이들이 학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사소통 목적의 한국어 능력뿐만 아니라 학문 수학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어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학문 목적 한국어 교육(Korean for Academic Purposes: KAP)은 2000년대 초반, 교육 과정의 기초 설계를 위한 연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후 대부분의 연구가 기능 영역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는데 그 중에서도 학습자들이 가장 어려운 기능으로 꼽으면서도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꼽는 쓰기 영역의 연구가 압도적으로 이루어졌다. 시험 답안 작성하기, 교재 및 자료를 기반으로 보고서 작성하기 등의 쓰기 활동은 특정 전공의 구분 없이 학문 목적 학습자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대부분의 쓰기 과업의 수행이 점수와 성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 중요성만큼 학습자가 느끼는 쓰기의 부담이 크게 나타난다.

현재 국내 대학에서 외국인 유학생만을 대상으로 교양 교과를 통한 글쓰기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한국어 능력이 입학 직후 본격적인 전공 강의를 수강하는 데에는 어느 정도 무리가 있다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한국의 대학 입학을 위해 외국인 유학생에게 요구하는 한국어 능력은 평균적으로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으로, 이는 일상생활에서 요구되는 의사소통을 큰 무리 없이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이다. 하지만, 대학에서 강의를 듣고 결과물을 생산해내기에는 학습자들의 한국어 능력이 충분하지 못한 수준이다. 대학에 진학한 후 접하게 되는 장문의 문어 중심 학술적·전문적 텍스트는 단문 위주의 의사소통 목적의 구어 중심 텍스트를 접해온 TOPIK 3, 4급의 학습자에게는 낯설게 다가올 수 있다.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인 학생과 함께 큰 무리 없이 강의를 수강하고 부여된 과제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유학생을 위한 학술적 글쓰기 교육이 필요하다.

학문 목적 학습자를 위한 작문 교육 연구가 활발히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습자는 쓰기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 특히, 학습자들은 학술적·전문적인 주제에 맞는 적합한 문장을 만들고, 이를 논리적·체계적으로 유형화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토로한다. 즉, 내용 생성에 대한 어려움이 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방법론적인 쓰기 원리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학문적 글쓰기 교육은 학술적 텍스트 생성에 있어서 학습자 스스로 자신의 아이디어를 논리적·체계적으로 유형화할 수 있도록 방법론적인 쓰기 원리를 학습하고 이를 다양한 텍스트에 적용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러야 한다.

1.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들은 대학 진학 이전에 대학에서 요구하는 특정 수준의 한국어를 습득한다. 일반적으로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의 한국어 능력을 습득한 뒤 대학에 진학하게 된다. 교육당국은 국내 대학에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를 위하여 2005년부터 2012년까지 ‘Study Korea Project’를 실시하였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교육부와 각 대학의 외국인 입학 제도의 한국어 능력에 대한 기준을 점차 낮추고 있다. 4년제 대학을 기준으로 2009년에는 TOPIK 4급 이상이 그 기준으로 제시되었으나, 2010년에는 TOPIK 3급으로 기준이 하향 조정되었다.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시행될 ‘Study Korea 2020 Project’에서 역시 외국인 입학 제도의 한국어 능력 기준을 낮추고 있다. 2015년도부터 이공계열을 시작으로 TOPIK 2급으로 기준을 완화할 수 있게 되었고, 졸업 등급 또한 TOPIK 4급에서 3급으로 완화할 수 있게 되었다. 외국인 유학생의 대학 입학을 위한 한국어 능력 기준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것이다.

일부 학과에서 TOPIK 2급 자격을 조건으로 하기도 하지만, 2017년 신입학 요강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대학에서 신입학 외국인 유학생에게 요구하는 어학능력은 대체로 TOPIK 3급 이상의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은 각 대학의 신입학 요강에서 외국인에게 요구하는 어학능력 조건이다.

[표 1] 서울 주요 대학별 외국인 신입학 모집 요강 중 한국어 능력 조건

대학별 외국인 신입학 전형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중 한국어능력 조건	
서울대학교 글로벌인재 특별전형 I, II	한국어능력시험 (TOPIK) 3급 이상, 서울대학교 한국어교육센터 level 4 이상 수료 등	
고려대학교 외국인 신입학 모집 전형	TOPIK 3급이상 취득자	
연세대학교 학부 신입학 외국인 입학전형	5급(수료) 이상	TOPIK 또는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수료 증명 제출 후 학부 입학
	4급 수료	한국어학당 연수 선택 후 학부 입학 가능
	4급 재학 및 그 이하	연세대학교에서 한국어 교육 및 일부 정규과목을 이수하여야 함.
이화여자대학교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이화여자대학교 언어교육원 한국어집중과정 4급 이상 수료자	
성균관대학교 외국인 신입학 모집 전형	인문과학계열 사회과학계열 자연과학계열 전자전기공학부 공학계열(전체)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경영학 영상학 의상학 연기예술학 건축학(5년제) 스포츠과학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한성대학교 외국인 신입학 모집 전형	인문/사회/ 공학 계열 지원자	한국어능력시험 (TOPIK) 3급 이상 취득자 국내 정규 대학 부설 한국어과정 4급 이상 수료자
	예술계열 지원자	한국어능력시험 (TOPIK) 2급 이상 취득자

		국내 정규 대학 부설 한국어과정 3급 이상 수료자
--	--	--------------------------------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대부분의 대학에서 정한 외국인 유학생의 입학 기준은 TOPIK 3급이다. 많은 유학생들은 입학 기준에 맞추어 TOPIK 3급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혹은 3급에 해당하는 대학 기관의 일반 목적의 한국어 교육을 이수하여 진학한다. 그 후 졸업 직전까지 더 이상의 한국어 교육을 이수하지 않게 된다.

다음은 한국어능력시험(TOPIK)의 등급별 평가 기준이다. TOPIK II 시험에 응시한 결과를 아래의 평가 기준에 따라 3, 4, 5, 6급으로 결정한다. 중급 단계와 고급 단계의 평가 기준의 차이에 주목하고자 한다. 중급 단계의 경우, 일상생활과 관련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요 기준으로 삼는다. 1급과 2급에서 습득한 어휘와 문법 등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유창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공공기관 이용, 뉴스나 신문 기사 내용 이해 등에 무리가 없어야 한다. 이에 비해, 고급 단계의 평가 기준은 보다 전문적인 수행 능력을 요구한다. 연구나 업무 수행 등을 진행함에 있어서 언어적으로 큰 무리가 없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친 언어 기능의 이해 및 사용을 요구하고 있다. 중급 단계에 비해 고급 단계의 기준이 전문적인 영역의 정확하고 유창한 한국어 언어 기능을 요구하고 있다.

[표 2] 한국어능력시험(TOPIK) 등급별 평가 기준

시험수준	등급	평 가 기 준
TOPIK I	1급	<p>‘자기 소개하기, 물건 사기, 음식 주문하기’ 등 생존에 필요한 기초적인 언어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며 ‘자기 자신, 가족, 취미, 날씨’ 등 매우 사적이고 친숙한 화제에 관련된 내용을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다.</p> <p>약 800개의 기초 어휘와 기본 문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간단한 문장을 생성할 수 있다. 간단한 생활문과 실용문을 이해하고, 구성할 수 있다.</p>

TOPIK II		
	2급	<p>‘전화하기, 부탁하기’ 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능과 ‘우체국, 은행’ 등의 공공시설 이용에 필요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p> <p>약 1,500~2,000개의 어휘를 이용하여 사적이고 친숙한 화제에 관해 문단 단위로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다.</p> <p>공식적 상황과 비공식적 상황에서의 언어를 구분해 사용할 수 있다.</p>
	3급	<p>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별 어려움을 느끼지 않으며, 다양한 공공시설의 이용과 사회적 관계 유지에 필요한 기초적 언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p> <p>친숙하고 구체적인 소재는 물론, 자신에게 친숙한 사회적 소재를 문단 단위로 표현하거나 이해할 수 있다.</p> <p>문어와 구어의 기본적인 특성을 구분해서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다.</p>
	4급	<p>공공시설 이용과 사회적 관계 유지에 필요한 언어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능을 어느 정도 수행할 수 있다.</p> <p>또한 ‘뉴스, 신문 기사’ 중 평이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p> <p>일반적인 사회적 · 추상적 소재를 비교적 정확하고 유창하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다.</p> <p>자주 사용되는 관용적 표현과 대표적인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회 · 문화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다.</p>
	5급	<p>전문 분야에서의 연구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언어 기능을 어느 정도 수행할 수 있다.</p> <p>‘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친숙하지 않은 소재에 관해서도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다.</p> <p>공식적, 비공식적 맥락과 구어적, 문어적 맥락에 따라 언어를 적절히 구분해 사용할 수 있다.</p>
	6급	<p>전문 분야에서의 연구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언어 기능을 비교적 정확하고 유창하게 수행할 수 있다.</p> <p>‘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친숙하지 않은 주제에 관해서도 이용하고 사용할 수 있다. 원어민 화자의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나 기능 수행이나 의미 표현에는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p>

위의 평가 기준에 따르면 중급 단계의 학습자는 일상생활의 언어 수행에

있어서는 정확하고 유창한 한국어를 구사한다고 볼 수 있지만, 공식적이고 전문적인 영역의 언어 수행은 낮설어할 수 있다. 즉, 3, 4급 수준의 어학과정 수료 혹은 TOPIK 자격증을 소유한 대학의 학문 목적 학습자는 공식적이고 전문적이며, 학술적인 성격의 강의를 수강하고 과제를 수행하기에는 한국어 능력이 부족한 채로 대학에 입학하는 것이다.

외국인 유학생들이 학문 수학에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 중 하나는 ‘학문 목적’ 한국어에 있다. 학습자들이 진학 후 한국어 학습의 목적이 달라지면서 그 성격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각 대학의 어학당의 교육과정은 대체적으로 1급부터 6급까지이다. 6급까지의 일반 목적의 한국어 교육을 모두 이수하고 대학에 진학한다면 공식적, 전문적 텍스트¹⁾를 경험해봄으로써 본격적인

1) 대학에 진학한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어 능력은 평균적으로 TOPIK 3, 4급에 이르기 때문에, 5급, 6급에 해당하는 고려대학교의 한국어 교재 <재미있는 한국어>의 단원별 쓰기 활동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는 바이다.

● <재미있는 한국어 5>의 단원별 쓰기 활동.

단 원		쓰 기 활 동
1	봉사하는 삶	● 봉사와 기부에 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한 후 발표하고 정리해 쓰기
2	건강한 생활	● 채식의 장·단점을 설명하는 글쓰기
3	면접	● 자기소개서 읽고 쓰기
4	스포츠	● 스포츠 소개글 쓰고 말하기
5	한국의 시와 수필	● 작품 개작하기 ● 수필 쓰기
6	생활 속의 과학	● 과학 현상에 대해 조사해 글을 쓴 후 발표하기
7	도시와 사람	● 특색 있는 도시에 관한 설명문 읽고 쓰기
8	경제생활	● 경제 상황에 대한 기사 읽고 쓰기
9	세계와 나	● 세계적인 문물에 대한 글을 읽고 쓰기
10	한국의 역사	● 세종대왕에 대한 글을 읽고 위인을 소개하는 글쓰기

● <재미있는 한국어 6>의 단원별 쓰기 활동

단 원		쓰 기 활 동
1	인생	● 인터넷 게시판의 진로 상담 요청 글 읽고 조언하는 글 쓰기 ● 도전하는 인생에 대한 글 읽고 쓰기
2	한국인의 의식 구조	● 한국인의 의식에 대한 글 읽고 신문 투고문 쓰기
3	남한과 북한	● 남북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말하고 쓰기
4	교육 문제	● 자기 나라의 교육 문제에 대해 발표하고 논설문 쓰기
5	한국의 소설	● 등장인물이 되어 심경 쓰기 ● 작품에 대해 20자평 쓰기 ● 생략된 내용 상상해 쓰기
6	민주화와 산업화	● 자기 나라의 역사적 사건에 대해 쓰기

전공 강의를 수강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수준의 차이를 극복하고, 일반 목적 한국어와 학문 목적 한국어 사이의 간극으로 인한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이혜정(2013)에서 제시한 기관 등급별 교육 목표이다. 한국어능력 시험의 5급 평가기준과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이화여대의 5급, 6급, 그리고 연구반의 평가 기준을 표로 제시하였다. 각 대학 기관에서 제시하는 평가 기준이 한국어능력시험의 기준보다 학술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어능력시험의 평가 기준은 일상적인 언어 수행을 고려한다. 다양한 상황을 전제하기 때문에 평가 기준에서 언어를 수행하는 구체적인 상황 맥락이 드러나지 않는다.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의 평가 기준에는 대학 수학을 고려한 학술적인 상황 맥락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다.

[표 3] 이혜정(2013)이 제시한 주요 언어 교육 기관의 등급별 교육 목표

기관·등급		평가 기준
한국어능력시험	5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문 분야에서의 연구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언어 기능을 어느 정도 수행할 수 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친숙하지 않은 소재에 관해서도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다. 공식적, 비공식적 맥락과 구어적, 문어적 맥락에 따라 언어를 적절히 구분해 사용할 수 있다.
서울대	6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학 강의 참여, 회사 업무 수행 등에 필요한 언어 능력을 배양할 수 있습니다. 토론, 발표 등 공적인 상황에서 자신의 의사를 논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연구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학 및 대학원 수업에 필요한 보고서 쓰기 및 다양한 글쓰기를 배울 수 있습니다. 주요한 사회적 이슈를 다룬 신문, 방송 자료 등을 이해하고 해당

7	발명과 발견	● 발명품에 대한 소개 글을 읽고 발명 과정을 소개하는 글 쓰기
8	대중문화	● 광고 속에 반영되어 있는 사회상에 대해 쓰기
9	변화하는 사회	● 자발적 비혼모에 대한 논설문 쓰기
10	세계의 문화유산	● 자기 나라의 문화유산에 대해 발표하고 설명문 쓰기

		주제에 대해 유창하고 정확하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고 려 대	5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식적 상황과 비공식적 상황, 구어 상황과 문어 상황에 적절한 표현을 사용해 말하거나 글을 쓰는 것을 배운다.
	6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학(원) 수학이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내용과 언어 기능을 정확하고 유창하게 수행하는 것을 배운다. 논설문, 신문 기사, 논문, 전문 서적, 문학 작품, 방송 담화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배운다. 한국인의 담화 구성 습관에 맞춰 말을 하거나 글을 쓰는 것을 배운다.
연 세 대	5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문, 사회, 과학, 예술 등 학술적이고, 전문적인 분야의 담화를 이해하고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기른다. 실생활에서 접하는 뉴스, 신문 기사 등, 시사적인 자료를 이해하고 그것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다.
	6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어 문법을 자유롭게 활용하여 복잡하고 전문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 한국 사회와 문화를 담고 있는 전문적인 자료를 통해 어휘를 확장하고 한국인의 사고방식을 익힌다. 최종적으로는 대학 강의 수준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언어 능력을 갖춘다. 한국인의 사고방식과 문화 이해하기, 일상적 주제로 이야기하기, 사회적 문제 토론하기, 그리고 한국의 역사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언어 능력을 기른다.
이 화 여 대	5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적인 주제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신문 읽고 내용 전달하기, 화해의 조언하기, 분석 후 비교해서 말하기 등)
	6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긴급하고 복잡한 문제를 한국어로 해결하고, 격식 있는 자리에서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공적으로 부탁하기와 거절하기, 공적인 사과/사적인 사과하기 등)

일반 목적 한국어의 5급, 6급 과정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학습자는 쓰기 기능에 소홀하게 된다. 일상생활에서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목적 한국어의 특성상, ‘쓰기’보다는 나머지 말하기, 듣기, 읽기 기능에 대한 교수-학습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진다. ‘쓰기’ 영역에서는 일상적 소재의 짧은 글쓰기를 위주로 자기표현의 구어적 특성이 강한 쓰기 활동으로 교수-학습이 이루어진다. 한국어능력시험(TOPIK)에서 제시한 급별 쓰기 목표에 따르면, 3급과 4급에 비해 5급, 6급이 학문적·전문적인 성격의 텍스트를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학 입학 후 학습자들이 맞닥뜨리는 복잡하고 전문적인 긴 텍스트는 학습자에게 쓰기에 대한 부담감을 가중시킨다. 대학의 쓰기 활동의 대부분이 성적과 직결되기 때문에 더욱 쓰기에 어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설명문, 보고서, 공식적인 문서 등에 대한 격식 있는 쓰기를 배우는 고급(5급, 6급) 단계를 이수한 학습자는 그렇지 않은 학습자에 비해 더욱 정확하고 유창한 학술적인 글쓰기 능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표 4] 한국어능력시험(TOPIK)이 제시한 급별 쓰기 교육 목표

급	목 표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적인 친숙한 소재의 글을 유창하고 정확하게 쓸 수 있다. ● 자신에게 친숙한 사회적 소재에 대해 글을 쓸 수 있다. ● 간단한 글의 구조를 이해하여 설명문을 쓸 수 있다. ● 문어와 구어의 기본적인 특성을 구분할 수 있으며 문어체 종결 표현을 사용해 글을 쓸 수 있다.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적인 사회적, 추상적 소재에 대해 글을 쓸 수 있다. ● 일반적인 업무와 관련된 간단한 보고서 등을 작성할 수 있다. ● 설명문, 수필, 감상문 등을 쓸 수 있다.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의 생활과 관련이 적은 사회적, 추상적 소재에 대해 어느 정도 글을 쓸 수 있다. ● 업무적, 학문적 영역에서 요구되는 글을 쓸 수 있다. ● 어휘, 문체 등에서 격식에 맞게 글을 쓸 수 있다. ● 다양한 표현법 중 적절한 표현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 ● 설명문, 감상문, 수필, 보고서, 논설문 등을 쓸 수 있다. ● 설명문, 감상문, 수필, 보고서, 논설문 등을 요약해서 쓸 수 있다.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의 업무나 전문 분야와 관련된 글을 정확하고 유창하게 쓸 수 있다. ● 다양한 표현법 중 가장 적절한 표현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 ● 논문, 연설문, 공식적인 문서 등을 쓸 수 있다.
---	--

하지만,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유학생들이 5급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입학 기준인 3, 4급에 해당하는 중급 수준의 교육만 이수한 채 대학(원)에 진학한다. 기준 이상의 5급, 6급 한국어 교육을 이수할 경우 드는 시간과 비용의 투자를 굳이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영어 등 국제 통용어 혹은 일부 학습자의 모국어로 진행되는 강의가 개설되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들의 학습 매개어는 ‘한국어’이다.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학문을 수학하기 위해서도 한국어를 사용해야 한다. 기준이 낮아지는 만큼 한국어 능력이 부족한 채로 입학하는 외국인 유학생의 수는 증가할 것이다. 이는 학습의지를 저하시키고 중도 포기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는 원인이 될 것이다. 학습자가 학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학 차원에서 효과적인 글쓰기 교수-학습을 통한 대안책을 마련해야 한다.

TOPIK 3급, 4급 수준의 이제 막 입학한 유학생들의 한국어 쓰기 능력은 대학 강의를 수강하고 학술적·전문적 결과물을 생산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 특히 학술적인 내용에 적합한 어휘 및 문법을 활용하여 문장을 만들고, 이를 체계적으로 배열하고 논리적으로 구성하는 과정에서 학습자들이 느끼는 부담이 크다. 학습자의 요구 조사 결과를 검토한 결과, 학습자들은 ‘대학 수준의 학술적·전문적 어휘 및 표현을 활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전개하여 글을 자연스럽게 구성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관련 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적인 교육을 필요로 하고 있다. 학습자들이 쓰기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유와 쓰기 교육의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 그들의 요구를 들어볼 필요가 있다.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들의 요구를 분석한 홍정현(2005), 김현진(2011), 정다운(2014), 신영지(2015) 등에 의하면 학습자들이 대학(원)에서 강의를 수강할 때 가장 중요하지만 어렵다고 인식하는 영역은 ‘쓰기’ 영역이며, 이는 일반 목적의 한국어 교육기관에서 배운 ‘쓰기’와 대학 입학 후의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쓰기’ 사이에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 유학생들이 어학과정의 한국어 교육을 수료하고 대

학에 입학하여 원활한 강의수강과 과제수행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이들을 위한 전문적인 학술적 글쓰기 교육이 필요하다.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의 학술적 쓰기 수업에 관한 요구 조사를 아래와 같이 검토하였다.

홍정현(2005)에서는 쓰기 교육의 현황에 대해 분석한 후 학위 과정(학부 과정, 대학원 과정)에 따른 쓰기 교육 방법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 과정에서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요구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학문 목적 한국어 쓰기의 교육 방향을 제시하였다. 학습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은 ‘보고서 쓰기’, ‘발표문 작성하기’이며, 학습자들이 학문적 글쓰기를 어려워하는 가장 큰 이유로 ‘전공 지식의 부족’과 ‘다양한 표현 사용의 어려움’이라고 밝혔다. 또한, 학습자들이 ‘연구가치가 있는 연구문제를 도출하는 것’과 그것을 ‘논리적으로 구성’하는 방법에 대한 요구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요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위 과정에 따라 학문 목적 쓰기의 수업 과제와 주제를 달리하고, 어휘 교육과 쓰기 전략 교육이 필요하며, 협력 학습, 쓰기와 읽기의 통합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김현진(2011)에서는 학위논문 작성 교과목의 교수요목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로서 서울 소재 대학원에 재학 중인 44명의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관련 요구 조사를 실시하였다. 한국어로 학위논문을 작성할 때 자신에게 부족한 능력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논문 내용의 체계적인 구성방법’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서 ‘본론 작성 방법’이 거의 비슷한 응답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논문 작성에 필요한 자료들을 선정한 후 그 자료의 내용을 파악하는 방법’과 ‘학위논문 심사 때 발표하는 방법’, ‘자신의 논문 주제에 적합한 자료를 찾는 방법’ 순으로 응답하였다. 학위 논문 작성 관련 강의 개설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한 사람 중 학습하기를 희망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논문 주제 선정 방법’, ‘논문 주제에 맞는 자료 선별 방법’, ‘선행 연구 자료 요약 및 정리’, ‘일관성 있는 논문 개요 구성’ 등의 순서로 답하였다. 결과적으로, 김현진(2011)의 요구조사를 통해 외국인 유학생에게 ‘내용 구성’에 대한 교수-학습의 필요성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정다운(2014)은 외국인 대학원생과 교수진을 대상으로 학술적 글쓰기 교육에 대한 요구 조사를 실시하였다. 대학원에 재학 중인 36명의 외국인 유학

생을 대상으로 관련된 요구조사를 실시한 결과, ‘논문이나 보고서를 쓸 때 어려운 부분은 무엇이나’는 질문에 가장 많이 응답한 문항은 ‘논리적으로 내 생각을 펼쳐 나가기’였다. 다음으로는 ‘정확한 표현으로 글쓰기’, ‘선행 연구 비판적 고찰’, ‘연구의 주제 선정하기’, ‘서론, 본론, 결론에 들어갈 내용 정리하기’, ‘내용을 일관성 있게 구성하기’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학습자들이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것에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대학원에서 학술적 글쓰기와 관련된 수업 개설에 대한 요구가 있었는데, ‘정확한 표현으로 글쓰기’, ‘논리적으로 내 생각을 펼쳐 나가기’, ‘내용을 일관성 있게 구성하기’, ‘논문이나 보고서에 사용되는 표현’ 등의 순으로 수업 내용에 대한 요구까지 확인할 수 있었다. 순위의 차이는 있었지만, 외국인 유학생은 학술적 글쓰기에 대하여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것’과 ‘글 전체 내용의 일관성 있는 구성’에서 가장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신영지(2015)는 보고서나 논문과 같은 학술적 작문뿐만 아니라 시험의 답형 및 서술식 답안 쓰기, 감상문, 발표 토론 용지, 기말 과제로 부과되는 보고서 쓰기 등의 학업 활동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한국어 ‘쓰기’를 어려워한다고 하였다. 이에 서울 소재 대학의 유학생 전용 한국어 교양 수업을 수강한 57명을 대상으로 학문목적 한국어 쓰기에 관해 다음과 같은 요구 조사를 실시하였다.

[표 5] 학문목적 한국어 쓰기에서 어려운 것은 무엇입니까?(복수응답)

	문어체 쓰기	논리적으로 쓰기	글의 형식 맞추기	학술용어와 전공 어휘 적절하게 선택하기	기타
총 57명	4명(7%)	43명(75.4%)	27명(47.3%)	36명(63.1%)	0명(0%)

응답자들은 ‘논리적으로 쓰기’를 학문목적 한국어 쓰기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라고 답하였다. 글을 논리적으로 전개하는 방법에 대한 어려움이 큰 것으로 해석된다. 그 다음으로는 ‘학술용어와 전공 어휘 적절하게 선택하기’, ‘글

의 형식 맞추기'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대학의 쓰기 활동이 대부분 중간 점검이나 피드백 없이 스스로의 구성하여 진행된다는 점과 학습자간의 표현 능력의 편차가 심하고 전공 관련 학문 수학에 필요한 쓰기 모형의 전형이 판이한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학습자 개별적인 능력과 성향에 맞는 수업방안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운영이 불가능한 점을 들어, 차선책으로 학습자가 스스로 쓰기 활동을 능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선행 연구에서 진행된 학술적 쓰기 관련 요구조사를 검토한 결과 외국인 유학생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어려움으로, '논리적인 주장 전개', '내용 구성 및 내용 전개 방법'이 가장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응답자 중에는 한국에서 대학을 거쳐 대학원에 진학한 학습자도 적지 않았다. 즉, 현재의 작문 교육으로는 학습자가 느끼는 쓰기에 대한 어려움이 원활하게 해결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 학습자가 스스로 쓰기 활동을 능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본 연구자는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쓰기 교육과 관련한 기초적인 요구 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다. 대상 응답자는 한성대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며, 교양 교과를 수강 중인 외국인 유학생 17명이며, 한국어로 주장하는 글을 쓰는 것과 관련하여 기초 설문 조사를 실시²⁾하였다. 전체 응답자 17명 중에 TOPIK 3급 자격증이 있거나 한국어 교육 기관의 3급 수업을 이수한 학습자는 11명(64.7%), TOPIK 4급 자격증이 있거나 한국어 교육 기관의 4급 수업을 이수한 학습자는 4명(23.5%), TOPIK 5급 이상의 자격증이 있거나 한국어 교육 기관의 5급 이상의 수업을 이수한 학습자는 2명(11.8%)이다.

[표 6] 가장 어려운 한국어 기능 영역에 대한 응답

기 능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총 응답자 수
응답자 수	6	·	·	11 명	17 명

2) 2016년 5월 25일에 한성대학교 교양 교과 '유학생을 위한 한국어 읽기와 쓰기 I'를 수강하는 외국인 유학생 17명을 대상으로 실시.

한국어 기능 영역 중 가장 어려운 영역을 묻는 질문에 11명의 학습자가 ‘쓰기’를 선택했다. 17명의 학습자가 ‘말하기’, ‘쓰기’, 즉 표현 기능에 가장 큰 어려움을 느끼는 한편, ‘듣기’와 ‘읽기’, 즉 이해 영역에 대한 응답자가 전혀 없다는 설문 결과는 주목할 만하다.

다음으로,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쓰기 교육에 대한 외국인 유학생의 생각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학 쓰기 수업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리포트 작성하기’에 대한 응답이 12회, ‘시험 답안 작성하기’에 대한 응답이 9회로 응답횟수가 월등히 높았다. 다른 선택지로 ‘노트 필기하기(2회)’와 학습자 스스로 기입할 수 있도록 유도한 ‘기타(0회)’가 있었는데, ‘리포트 작성하기’와 ‘시험 답안 작성하기’가 평가 및 성적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높은 응답률을 보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성적과 높은 관련이 있을수록 학습자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또한, ‘본인이 수행한 다양한 쓰기 과제 중에서 어려운 것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발표문 작성하기’와 ‘논술 및 논증하기’에 대한 응답이 6회로 가장 높았고, ‘주어진 글 요약하기(5회)’, ‘개요 작성하기(3회)’ 순으로 응답하였다. 사실상, ‘개요 작성하기’, ‘요약하기’, ‘논술 및 논증하기’는 모두 발표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쓰기 활동으로 선택지의 층위가 적절하지 않았다. ‘발표문 작성하기’를 제외한 나머지 선택지로 판단하였을 때, ‘논술 및 논증하기’를 가장 어려운 수행 과제로 응답했다고 볼 수 있겠다.

이 조사는 외국인 유학생들 개개인의 주관적인 생각을 얻고자 하는 의도로 주관식 문항을 포함하였다. 몇 가지 문항 중, ‘주장하는 글쓰기’의 어려운 점을 묻는 주관식 문항에 유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답변했다.

[표 7] 한국어 ‘주장하는 글쓰기’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3)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술적·전문적인 새로운 어휘·문법 표현의 이해와 사용. • 청자(독자)들을 쉽게 설득할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 • 한국식(담화공동체에 받아들여질 수 있는)의 자연스러운 글을 쓰는 것. • 자신의 주장을 수립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것. |
|--|

3) 답변의 내용은 연구자의 편의대로 수정한 문장으로, 응답이 많은 유형 순으로 제시하였다.

위의 응답 유형 중, ‘청자(독자)들을 쉽게 설득할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과 ‘자신의 주장을 수립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것’은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어로 ‘주장하는 글쓰기’를 위해 어려워하는 부분은 ‘논리적인 내용 전개’에 관련한 응답이 가장 많았다.

한국어 쓰기 수업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에 대하여 객관식과 주관식 문항으로 각각 질문을 구성하였다. ‘한국어를 잘 쓰기 위해 배우길 원하는 쓰기 유형이 무엇입니까?’라는 객관식 질문에 대하여, ‘발표문 작성하기’에 대한 응답이 10회로 가장 많았고, 나머지 응답은 ‘개요 작성하기(7회)’, ‘논술 및 논증하기(6회)’, ‘주어진 글 요약하기(5회)’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선택지의 층위가 적절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개요 작성하기’, ‘논술 및 논증하기’, ‘주어진 글 요약하기’를 포괄하는 ‘발표문 작성하기’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볼 수 있겠다. 다만, ‘발표문 작성하기’는 발표의 목적에 맞도록 형식을 수정하는 것으로 모든 유형의 글에 대하여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학습자들이 쓰기 수업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글의 유형 및 쓰기 과제 등 세부적인 요소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같은 질문의 주관식 문항의 답변을 살펴보았다.

[표 8] 한국어 쓰기 수업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에 대한 학습자 답변⁴⁾

- 전공 수업과 관련하여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글쓰기
 - 발표문 작성 방법 또는 개요 작성하는 방법 등
- 한국인(모국인)의 쓰기와 유사한 자연스러운 글쓰기
- 동료 학습자와의 협동
 - 논의(어휘·문법·내용에 대한 도움)하여 쓰기, 토론하기 등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유학생의 주관식 답변은 ‘전공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 글쓰기’와 유사한 답변이었다. 설명문 쓰기, 논설문 쓰기 등의 텍스트 유형에 대한 답변을 예상한 연구자의 생각과는 다르게 대학 생활

4) 설문지의 정확한 문항은 ‘한국어 쓰기 수업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이 있으면 자유롭게 써 주십시오.’로, 특별히 구체적으로 답변하도록 유도하였다. 답변의 내용은 연구자의 편의대로 수정한 문장으로, 응답이 많은 유형 순으로 제시하였다.

에 실용적으로 활용 가능한 전략적인 쓰기 활동에 대한 답변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동료 학습자와의 협동을 필요로 한다는 부분에서 피드백과 관련한 요구사항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설문 조사의 결과, 학습자들이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기능은 ‘쓰기’이며, ‘논리적인 내용 전개’에 대한 어려움을 글쓰기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다. 학습자들은 ‘대학 수준의 학술적·전문적 어휘와 표현을 활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정확하고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것’과 ‘한국인처럼 쓰는 것’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학문 목적 한국어 쓰기에 있어서 담화공동체의 형식과 맥락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학습자는 전문적인 작문 교육을 통해 학습자 자신의 언어로 완성한 글이 이들 담화공동체에 받아들여질 수 있을 만한 쓰기 능력을 배양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인과 함께 진행하는 전공 강의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전략적인 쓰기 교육을 필요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같은 강의를 수강하는 학습자 사이에서도 한국어 수준의 격차가 다소 존재했다. 학문 목적 학습자의 학술적 쓰기에 대하여 구체적인 어려움과 요구를 파악하고자 한 위 설문 목적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결과를 얻지 못한 한계가 있다. 학습자의 한국어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문항을 설정하여 몇몇 학습자가 설문 조사의 문항을 이해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러한 이유로 설문조사로부터 학술적인 글쓰기 과정에서 나타나는 주장 전개 및 내용 구성의 어려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해결의 역할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하지만 이 조사를 통해 학습자들의 학문 목적 쓰기 교육에 대한 요구를 파악할 수 있었다. 학습자의 답변을 살펴본 결과, 한국어 능력에 대한 보충을 요구하기 보다는 글을 더 잘 쓰기 위한 방법론적인 전략의 학습을 필요로 했다. 학습자들은 전공 강의에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쓰기 교육을 필요로 했다. 글쓰기 과정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다양한 글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은 연습 활동이 필요하다. 또, 한국인의 글과 유사한 자연스러운 글쓰기를 할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하다고 답변하였다. 외국인인 학습자들이 한국인만큼 자연스러운 글을 쓰기 위해서는 쓰기의 방법론적인 원리를 교수-학습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쓰기 과정에서 학습자간의 교류를 활성화시켜 서로 협력을 통하여

아이디어를 얻고, 피드백을 주고받아 만족도 높은 글을 완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습자가 쓰기를 어려워하는 데에는 심리적인 요인도 작용한다. 학습자 개인의 기초적인 작문 능력을 감안하더라도 한국인 학습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강의에 참여하고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 것에서 오는 부담감이 학업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스스로 한국어 실력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자신감을 잃으면 쓰기를 시작하는 것조차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요구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학문 목적 학습자의 학술적 글쓰기, 즉 에세이 쓰기 교수-학습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글의 형식과 체계와 더불어 글의 내용을 구성하고 전개하는 것에 도움이 되는 방법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학습자가 쓰기 전 과정에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참여적인 교수-학습 방법이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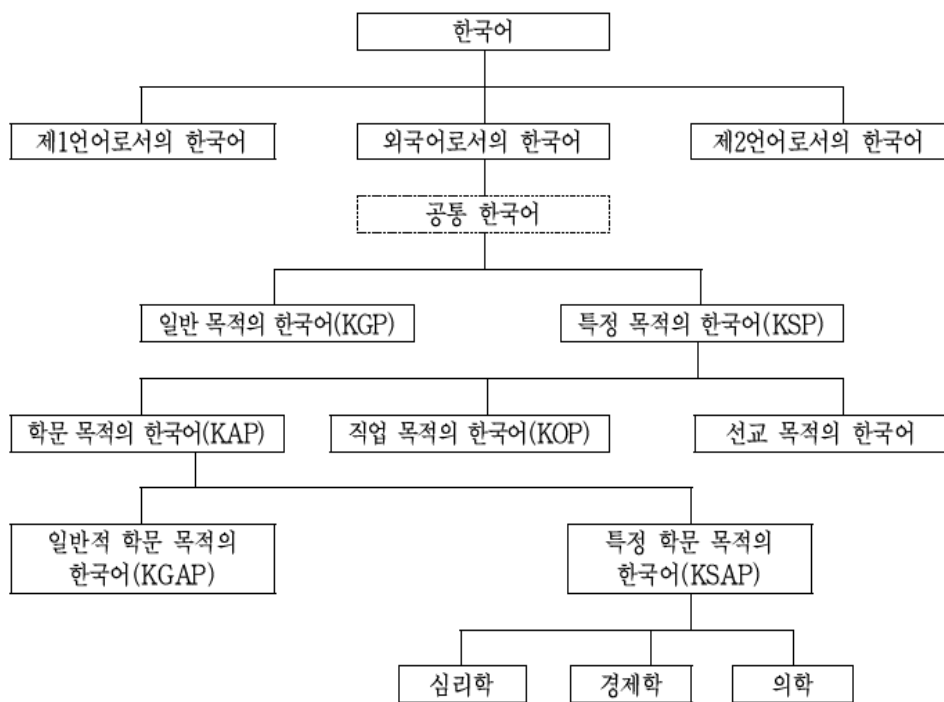
1.2 선행 연구 검토

학습자가 언어를 학습하는 이유와 목적, 그 언어를 사용하는 상황에 따라 학습자에게 요구되는 바가 달라진다. 언어 교육은 목적별로 크게 ‘일반 목적 언어 교육’과 ‘특수 목적 언어 교육’으로 구분한다. ‘특수 목적 언어 교육’에 대한 논의는 영어 교육 분야에서 시작되었다. 1960년대 중반, Dudley & John(1998:4)은 영어 교육을 일반 목적을 위한 영어(English for General Purpose : EGP)와 특수 목적을 위한 영어(English for Special Purpose : ESP)로 구분하고 특수 목적 영어(ESP)를 학문 목적의 영어(English for Academic Purpose : EAP)와 직업 목적의 영어(English for Occupational Purpose : EOP)로 구분⁵⁾하였으며, 학문 목적의 영어(EAP)는 다시 특수 학문 목적의 영어(English for Specific Academic Purpose : ESAP)와 일반 학문 목적의 영어(English for General Academic Purpose : EGAP)로 분류하였다.

한국어 교육에서의 목적에 따른 분류 체계 역시 크게 ‘일반 목적의 한국어(KGP)’와 ‘특수 목적의 한국어(KSP)’ 두 가지로 구분하며, 영어 교육의 목적별 분류 체계와 크게 다르지 않다. ‘특수 목적의 한국어(KSP)’는 하위분류

5) 류수영(2009)에서 재인용.

로 ‘학문 목적의 한국어(KAP)’와 ‘직업 목적의 한국어(KOP)’ 등으로 구분하며, ‘학문 목적의 한국어(KAP)’는 다시 ‘일반 학문 목적의 한국어(KGAP)’와 ‘특수 학문 목적의 한국어(KSAP)’로 구분한다. ‘학문 목적의 한국어(KAP)’는 한국어로 학업을 수행하는 것이 목적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이다. 학자에 따라 ‘학문 목적의 한국어’의 세부적 분류가 조금씩 다르다. 이에 대한 분류는 최정순(2006), 박석준(2008), 김지학(2009), 형재연(2015) 등에서 살펴볼 수 있다. 최정순(2006)은 ‘공통 한국어’ 개념을 세운 것이 특징적이다. 다음은 최정순(2006)의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하위분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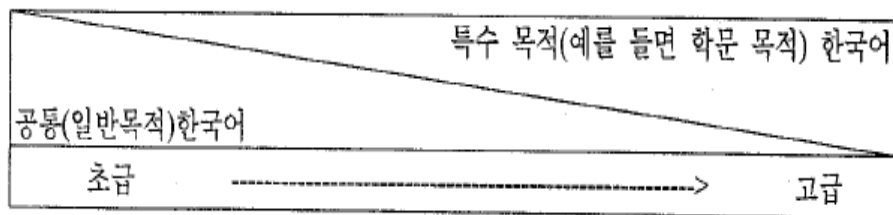


[그림 1] 최정순(2006)의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하위분류

‘외국어로서의 한국어’와 학습 목적에 따른 구분 사이에 ‘공통 한국어’를 설정하였다. ‘일반 목적의 한국어’와 ‘특정 목적의 한국어’를 학습에 공통적으로 전제되는 초기 학습 단계, 어느 정도의 숙련도에 이르기 전에 이루어지는 기본 문장의 구조나 기초 어휘 등의 학습을 ‘공통 한국어’로 정의하였다. ‘외

국어로서의 한국어'의 이분법적 분류가 아닌, '공통 한국어'를 아우르는 새로운 분류 체계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체계 안에 점선으로 표시한 이유를 설명하였다. 그러나 특정 학문 목적의 한국어의 하위로 심리학 경제학 의학만을 제시하여 한정시켰다. 대학에 진학 후 전문적으로 수학하게 되는 전공 분야 전반이 특정 학문 목적의 한국어 하위 분야가 될 것이다.

최정순(2006)은 또 '일반 목적의 한국어'와 '특정 목적의 한국어'는 완전히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공통으로 학습되다가 숙련도가 높아지면서 특수 목적 한국어가 우세해지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림 2] 외국어로서의 한국어에 대한 하위분류6)

하지만 이러한 '일반 목적의 한국어'와 '특정 목적의 한국어'의 숙달도 관계는 적절치 않아 보인다. 위의 숙달도 관계가 성립하기 위해 '학문 목적의 한국어' 이외의 '특정 목적의 한국어'는 적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파악된다. 다시 말해, 다양한 '특정 목적의 한국어'가 '일반 목적의 한국어'에 비해 반드시 더 높은 수준, 즉 고급 수준의 한국어라는 점에는 동의할 수 없다.

박석준(2008)은 일반 목적 한국어 교육과 특수 목적 한국어 교육을 대립하는 개념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학문 목적 한국어 교육의 개념과 대상, 범위 등을 일반 목적 한국어 교육과 이분법적인 대립 관계로 파악할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학문 목적의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하위 유형을 제시하였다.

6) 최정순(2006:283)의 <그림 3> 인용.

[표 9] 박석준(2008)의 학문 목적 한국어의 하위 한국어 유형과 그 개념

학문 목적 한국어	공통 한국어	기초에서부터 중·고급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한국어 사용에서 공통되고 일반적인 한국어
	교양 한국어	대학 등에서 교양 교과목의 이수를 위해 필요한 한국어
	전공 한국어	대학 등에서 전공 교과목의 이수를 위해 필요한 한국어

다만, ‘학문 목적 한국어’의 하위로 ‘공통 한국어’가 포함되어 있는 점이 의문으로 남는다. 박석준(2008)은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를 모국어 화자인 대학생들과 동등하게 여기고 기본적인 한국어 능력을 키워줘야 한다고 말한다. 이는 최정순(2006)에서 제안한 ‘공통 한국어’의 개념과 달리, ‘학문 목적 학습자를 위한 대학 입학 전 한국어 학습’을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대한 최정순(2006)의 ‘공통 한국어’와 구별되는 용어로 수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위의 논의들을 종합해보면, 학문 목적 한국어는 ‘대학에서의 학문 수학에 필요한 학업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모든 내용을 포함하는 한국어’이다. ‘공통 한국어’의 내용을 시작으로, 대학 진학 후 이수하는 교양 한국어, 전공 강의 수강을 위한 한국어를 모두 아우르는 범위를 학문 목적 한국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학문 목적 한국어 교육이 어떠한 논의를 중심으로 연구되어 왔는지에 대해 선행된 관련 연구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학문 목적의 한국어 쓰기 교육에서 에세이 쓰기가 어떻게 다루어졌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1.2.1 한국어 쓰기 교수 이론

쓰기 교육은 교육 철학의 변화에 따라 달라져 왔다. 관점의 변화에 따라 쓰기 수업의 구성과 절차 등도 함께 변화했다. 1960년대 중반까지는 형식주의 이론이 지배적이었다. 형식주의 이론은 지식을 객관적으로 인식하였다. 텍스트를 의미를 온전히 담고 있는 자율적인 실체로 규정하였다.(박영목1994:2

017)) 필자는 능동적인 전달자, 독자는 수동적인 수용자로 보았다. 쓰기 능력은 모방과 연습을 통해 신장되며, 어법상의 정확성을 강조하고 쓰기 결과물을 중요시하였다. 교사가 학습자에게 모범 텍스트를 제시하고 지식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교사 중심의 수업이 이루어졌다. 학습자 개개인의 경험이나 차이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후의 쓰기 교수 이론은 구성주의에 입각하여 쓰기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중시하게 되었다. 구성주의 이론은 쓰기 의미 구성의 주체에 따라 인지적 구성주의 이론과 사회적 구성주의 이론으로 나뉘었다. 인지적 구성주의 관점은 쓰기 의미 구성의 주체를 개인으로 파악하였으며 일련의 쓰기 과정이 순환적으로 이루어지며 텍스트를 생성한다고 보았다. 쓰기 결과로서의 텍스트가 아닌 쓰기 과정 자체를 쓰기 교육의 대상으로 삼았다. 하지만 내용 지식을 필자가 기존에 알고 있던 배경지식만으로 한정하였다는 점이 한계이다.

이런 인지적 구성주의 이론과 달리 사회적 구성주의 이론은 쓰기의 의미 구성의 주체를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로 파악하였다. 필자는 특정 사회적인 맥락을 공유하는 담화공동체로서 쓰기를 하는 것이다. 즉 쓰기를 담화공동체의 구성원과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보고 있다.

전미화(2015)는 쓰기 철학과 패러다임의 변화를 다음의 표와 같이 정리하였다.

[표 10]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쓰기 이론⁸⁾

패러다임	객관주의 인식론	인지 구성주의 인식론	사회 구성주의 인식론	
초점	텍스트 중심 (바른 텍스트 완성 / 형식적 정확성)	필자 중심 (의미 구성의 주체)	필자-독자 (담화공동체의 관습 / 규범)	장르 중심 (형식의 사회적 맥락 / 쓰기의 목적)
의미 구성	규범문법 / 수사학적 규칙	인지적 표상을 텍스트로	언어 사용의 사회 문화적 맥락	

7) 전미화(2015)에서 재인용.

8) 전미화(2015)에서 인용.

원리		번역하는 과정		
한계	필자 의미 구성 과정에 대한 고려 없음	의미 구성 과정이 필자 개인의 인지 활동에 머뭇 / 지식의 전수	구성원 간의 합의 / 창의적 의미 구성 행위로서 쓰기 활동 반영의 결여	현실 불가능한 '이상적 유형' / '무엇'을 쓸 것인가에 대한 활동 결여
교육원리	1950~1960년대 초반	1960년대 중반~ 1980년대 초반	1980년대 중반~1990년대	
	결과 중심 쓰기 이론	과정 중심 쓰기 이론		

쓰기 이론은 위의 표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형식주의 이론에서 인지 구성주의, 사회 구성주의 이론으로 변화하였다. 관련 이론에 따라 쓰기 교수 이론은 크게 결과 중심 쓰기 이론과 과정 중심 쓰기 이론으로 이루어졌다. 2000년대 이후의 쓰기 교육은 텍스트 유형별 쓰기 교육에 대해 집중하기 시작하였다. 장르 중심 쓰기 이론은 텍스트의 실체성과 유연성을 강조하였고, 텍스트의 사회적인 맥락을 중요시하였다. 김정숙(2004)은 장르 중심 접근법의 비교적 초기 단계의 논의를 보여준다. 읽기·쓰기 기술 개발에 중점을 둔 교재를 분석하고 교재에 나타난 글의 종류와 각각의 읽기 유형·쓰기 유형을 분류하였다. 한국어 읽기·쓰기 교수요목을 설계하기 위한 방법으로 주제 중심, 기능 중심, 장르 중심의 세 방법을 제시하였다. 김정숙(2004)은 장르 중심을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실용문, 설명문, 논설문과 같이 장르를 중심으로 교수요목을 설계하고 단원을 구성하는 경우다. 각 장르별 글의 특성을 이해하고 전형적으로 사용되는 글의 내용 구조나 표현 형식 등을 익혀 이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보다 효율적인 읽기 이해에 도달하게 하거나, 글을 쓰게 하는 데 도움

을 줄 수 있다.(김정숙, 2004:93)

하지만 장르 중심의 방법은 담화 구조에 맞춰 글을 쓰는 능력을 길러주는 반면 주제별 어휘 및 표현을 익히는 데에 한계가 있으며, 초급단계에서 다루기엔 무리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장르 구분에 대한 초기 논의임에 따른 층위 설정에 혼란이 엿보인다.

이미혜(2010)는 장르 중심 쓰기 교육에 대한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장르 중심 쓰기 활동이 포함된 학문 목적 교재에 드러난 장르 구분과 텍스트 구조 층위별 교육 내용을 분석하였다. 장르 중심 쓰기 교육에서는 맥락을 고려한 글쓰기가 진행되어야 하며, 텍스트 구조를 미시 구조, 거시 구조, 최상위 구조의 세 층위로 구분하여 지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미혜(2013)에서 숙달도에 따른 장르 분류 방안을 제안하였다. 한국어 쓰기 교육을 위한 장르를 거시 장르와 미시 장르로 구분하여 분류하였다. ‘비판적 분석, 주장의 글’은 의견제시, 의견주장, 설득의 목적을 갖는 글들이다. 글쓴이의 비판적인 생각이 나 분석, 관점, 평가 등이 포함된다. 이 장르는 논리적인 전개, 주장과 근거의 타당성, 호소력 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포함된다. 광고문, 논설문, 사설 등이 해당되며 논문, 보고서 등 학술적인 글도 포함된다.

[표 11] 한국어 쓰기 교육을 위한 장르 분류⁹⁾

거시 장르	미시 장르(구체적 텍스트 유형)
정보 전달의 글	설명문, 신문기사(사건/사고, 보도기사), 공문서, 소개글, 안내문, 게시문, 신분증, 요약문, 설명서 등
정서·감정 표현의 글	경험담, 기행문, 수필, 일기, 창작 이야기, 동화, 감상문, 자서전, 기도문 등
사교·친교의 글	편지, 엽서, 축하글, 사과문, 식사문, 메시지, 이메일, 연하장, 메모, 초청장 등
비판적 분석, 주장의 글	건의문, 논설문, 사설, 평론, 연설문, 광고, 요청문, 신문

9) 이미혜(2013).

	기사(해설기사, 논설기사), 보고서, 학업/학술문 등
--	-------------------------------

거시 장르의 ‘정서·감정 표현의 글’과 ‘사교·친교의 글’은 의미적으로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있다. 각각에 해당하는 미시 장르 또한 유형을 구분하는 기준이 뚜렷하지 않다. 신분증, 경험담, 광고 등 하위 유형으로 적절치 않은 부분도 다소 존재하는 등의 한계가 있다.

이어진 연구에서 자기소개서, 학업계획서, 설명문, 시험 답안, 학술 보고서 논설문 등 특정 장르 분석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하지만, 특정 장르에만 치우친 연구 경향으로 개별 장르 텍스트 유형에 대한 연구의 다양화는 부족한 실정이다.

2000년대 이후로 각광받던 장르 중심 교수 이론은 장르 구분에 대한 끊임 없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장르의 세부 유형에 대한 연구가 이어졌지만, 특정 장르에만 몰리는 연구 경향으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또한 쓰기 과정과 전략에는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았으며, '무엇'을 쓸 것인지, 즉 내용에 대한 고려가 결여되었다는 한계에 부딪혔다.

결과 중심 교수법에서는 쓰기 활동의 결과로 얻어지는 텍스트에 관심을 두었으며, 과정 중심 교수법에서는 텍스트 자체보다는 텍스트를 생산하는 과정을 중요시했다. 장르 중심 교수법은 텍스트에 내재된 사회적 맥락에만 관심을 가지고 텍스트의 생산 과정이나 전략에는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지금까지의 쓰기 교수 이론들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장점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상호보완적인 통합 교수 이론에 대한 연구가 늘고 있다. 쓰기 활동의 결과로 얻어지는 텍스트와 텍스트가 생산되기 위한 쓰기의 전 과정, 이러한 쓰기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인지적, 사회적 맥락이 통합적으로 작용하여 마침내 좋은 글이 생성될 수 있다. 관련 연구의 예로, 정다운(2009)은 과정과 장르 통합 교수법이 가장 효과적인 쓰기 교수법이라 여기고 한국어 쓰기 교육에 적용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쓰기 교재를 분석하여 현재의 쓰기 교육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를 통해 장르와 과정을 통합한 한국어 쓰기 교수 학습모형을 설계, 설명문 중심의 교수 학습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한국어 쓰기 교육의 연구 경향에 따라 쓰기 과정에 따라 방법적인

쓰기의 내용 구성 원리를 익히고 다양한 주제의 쓰기를 다룸으로써 학습한 원리를 학습자가 내재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통합적 쓰기 교수법을 적용하여 학문 목적 학습자의 에세이 쓰기 교수-학습 방안을 제안하도록 하겠다. 이 통합 교수 이론의 적용함으로써 다양한 주제의 텍스트를 통해 장르적인 특징을 학습할 수 있도록 내용적인 측면을 구성하고, 쓰기 과정에 대한 지식과 전략을 학습할 수 있도록 방법적인 측면을 구성할 수 있다. 학습자가 스스로 어떤 내용을 어떠한 방법을 통해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대해 관련 지식을 습득하고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1.2.2 에세이 쓰기 교육

‘에세이’는 주로 영어 텍스트를 다룰 때 사용하는 용어로, 설명, 설득, 논증 등을 포함하는 대학의 학술적 글 전반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한국에서 ‘에세이’는 문학 텍스트를 다룰 때 사용할 뿐, 학술 텍스트 등 비문학 텍스트를 다루는 유형 분류로 ‘에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장르 중심 교수요목이 주목을 받으면서 외국인 유학생들은 다양한 한국의 텍스트 유형에 대해 학습하게 되었다. 이미 알고 있는 유형의 글을 한국의 장르 구분을 통해 새로이 학습하여 해당 지식을 정립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학습자는 큰 혼란을 겪을 수 있다. 한국 장르 유형 혹은 텍스트 유형 분류 체계를 새롭게 이해시키고 글의 종류를 처음부터 다시 교수-학습하는 것보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에세이’ 개념을 통해 글을 교수-학습하는 것이 경제적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다음 장에서 나누기로 하고, ‘에세이’ 즉, 학술적인 글쓰기 교육에 대하여 논문, 보고서 등 학습자들이 에세이를 잘 쓰기 위한 방법으로 어떤 교육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련된 기존 연구를 살펴봄으로써 알아보고자 한다.

학문 목적의 쓰기는 에세이 쓰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학술적인 쓰기는 대체적으로 에세이의 형식을 따르기 때문에 에세이 쓰기 능력의 향상은 학술적 쓰기 능력의 향상과 직결되는 것이다. 한국어 교육에서 에세이 쓰기 관련 연구는 설명, 설득, 주장 등의 세부적인 유형 분류로 이루어져 왔다. 한국어 교육의 설명과 관련한 기존 논의는 많지 않다. 크게 학문 목적 한국어 설명문

쓰기 교육 관련 연구와 텍스트 구조와 관련하여 설명 방법에 대해 논의한 연구로 나눌 수 있다.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의 설명문 쓰기 교육에 관한 연구로는 신필여(2008), 목계연(2008) 박주영(2012) 등이 있다.

신필여(2008)는 대학에서 수학하는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시험 문항의 유형을 ‘정의하시오, 설명하시오, 서술하시오, 비교·대조하시오, 논하시오’의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학습자들이 답안으로 제출한 텍스트의 각 구조를 분석하였다. 학습자의 실제 시험답안을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설명문 쓰기 교수-학습 방안을 구안하였다. 목계연(2008)은 대학 수학 목적 한국어 학습자의 설명적 텍스트의 구조와 텍스트 구조 표지 분석을 통한 설명적 텍스트 쓰기의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또한 설명적 텍스트 구조를 기술 집합, 비교 대조, 인과 구조로 구분하고 텍스트 구조 표지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박주영(2012)에서는 외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설명문의 장르 특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학습자가 작성한 모국어 텍스트와 한국어 텍스트를 비교하였다. 학습자의 모국어 텍스트와 한국어 텍스트에 드러나는 정보 구현 양상을 비교하여 한국어 설명문 쓰기 교수-학습 방안을 제시하였다. 기존 연구에서 다룬 텍스트 구조와 관련한 논의는 다음 절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한다.

설득, 주장에 대한 기존 논의는 ‘주장하는 글’, ‘설득적 텍스트’, ‘논증적 텍스트’, ‘논설문’ 등의 용어로 논의되어 왔다. 에세이는 ‘주장하는 글’, ‘설득적 텍스트’, ‘논증적 텍스트’, ‘논설문’ 등을 포함하므로 관련 연구를 포함하도록 하겠다.

‘주장하는 글’로써의 관련 연구로는 조효정(2005), 정은진(2009), 이미혜(2010), 이혜정(2013), LI YAN·김정남(2014) 등이 있다. 조효정(2005)은 초등학교 쓰기 교육에서 논증구조를 활용한 주장하는 글쓰기 교수-학습 모형을 연구하였다. ‘주장하는 글쓰기’란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강하게 내세우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생각하는 것을 이치에 맞게 말해서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지게 하거나 나와 같이 행동해 주기를 바라는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라고 주장하였다.

정은진(2009)은 주장하는 글에 대한 오류 해결 방법 및 쓰기 전략의 하나로서 과제기반형태중심기법을 활용한 담화표지 교육 방안을 제안하였다. ‘주장하는 글’은 ‘문제가 되는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해 자신의 견해와 주장을 강하게 내세우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이치에 맞게 말해서 같은 생각을 가지게 하거나 상대방의 태도나 감정을 변화시켜 같이 행동해 주기를 바라는 글’이라고 하였다.

이미혜(2010)는 장르 중심 쓰기 교육의 내용을 다루며,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쓰기 교재의 구성을 분석했다. 주장하는 글은 곧 논설문으로 대상과 목적에 따라 글의 성격이 달라지므로 맥락 이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혜정(2013) 역시 장르 기반 쓰기 교육의 중요성을 주창하고, 주장하는 글을 중심으로 교육 실태를 조사하고 한국인 모어 화자와 외국인 학습자가 각각 작성한 주장하는 글을 비교하여 외국인 학습자들의 작문에 나타나는 오류 양상을 분석하고 교수-학습 방안을 구안하였다. 이 연구에서 ‘주장하는 글’은 설득적 텍스트, 논증적 텍스트라고도 할 수 있으며, ‘필자의 의견을 근거를 통해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독자를 설득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하였다.

LI YAN·김정남(2014)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국어능력시험 고급 시험 답안지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장르 중심 쓰기 접근법을 활용한 주장하는 글쓰기 교수 방안을 연구하였다. ‘주장하는 글’이란 ‘어떤 문제에 대한 자신의 견해나 주장을 내세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설득하는 글’이라고 하였다.

기존 연구의 용어 상정의 혼란에 따른 용어 변별과 위계화 방향에 대한 연구로, 김현미(2013)는 설득하는 글과 주장하는 글을 동일한 개념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문제 상황, 주장, 근거를 포함하는 글을 ‘주장하는 글’로, 논증의 요소까지 포함하는 글을 ‘설득하는 글’로 변별하여 사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주장하는 글’을 ‘설득하는 글’의 하위로서 위계화 하였다.

‘설득하는 글’로써의 관련 연구는 이은혜(2011), 이정연(2016) 등이 있다. 이은혜(2011)는 중급 수준의 학습자의 설명문과 논설문의 장르 인식 양상을

살펴보고, ‘의사소통 목적에 관한 지식’, ‘필자와 독자의 관계에 관한 지식’, ‘구조·형식적 지식’, ‘주제·내용적 지식’, ‘수사적 지식’의 장르 지식의 다섯 가지 요소를 제시했다. 또, 한국어 쓰기 장르 유형을 ‘정보를 전달하는 글’, ‘설득하는 글’, ‘정서 표현의 글’, ‘친교 표현의 글’, ‘이야기 글’, 다섯 가지로 분류하였는데 ‘설득하는 글’은 ‘어떤 문제에 대한 자신의 견해와 주장을 내세워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설득하는 글’이라고 정의하였다.

이정연(2016)은 설득적 말하기 능력 향상을 위한 논증을 활용한 설득적 쓰기 연계 수업이 학습자 숙달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실험을 시도하였다. 실험 결과를 분석하여 학문 목적 학습자를 위한 실제적인 교수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에서 중심이 되는 ‘설득적인 글’에 대하여 ‘설득적 글인 논설문은 어떤 주제에 대해 설득력 있는 논거를 바탕으로 자기의 생각이나 주장을 논리적으로 전개한 글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텍스트 유형 분류로 설명한 연구로는 이원구(2005), 유미정(2011), 이주민(2012), 안정호(2012), 박혜리(2015) 등이 있다. 논설문 등 주장을 전제하는 글을 논증 텍스트 또는 설득 텍스트의 분류로 설명하고 있다. 이원구(2005)는 학문 목적 학습자를 대상으로 텍스트 구조를 통한 학문적 쓰기 교수 방안을 구안하였다. 서사, 설명, 논증, 기술의 네 가지 텍스트 유형의 하나로, ‘논증적 텍스트’란 ‘사실이나 사물에 대해 자신의 견해나 주장을 내세우고 이를 뒷받침하는 전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사용한다.’고 설명한다.

유미정(2011)은 텍스트 유형을 정보적 텍스트, 설득적 텍스트, 친교적 텍스트로 나누었다. 주장은 화행의 하나로, 정보적 텍스트의 지배적인 화행으로 분류하였다. 설득적 텍스트의 텍스트 종류로 자신의 주장을 논증하는 글, 자신의 주장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서평, 적절한 문체를 활용하여 조언하거나 충고하는 글, 생각 제시 글, 요청문, 의견 제시 글, 찬성(반대)하는 글, 연설문, 건의문, 논증문, 시사서평, 논설문을 들고 있다.

이주민(2012)은 한국어 교육의 장르 유형을 분류하고 장르 중심 교수법에

근거하여 설득 텍스트가 나타난 쓰기 교재를 분석하고 부족한 점을 보완하여 쓰기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한국어 교육의 장르 분류로 정보를 전달하는 글, 설득하는 글, 정서·감정표현의 글, 친교 표현의 글, 이야기 글이 있다. 이 논문은 ‘설득적 텍스트’를 ‘텍스트 생산자가 자기의 주장을 독자에게 이해시키고, 그 주장대로 믿고 따르게 설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의한다. 설득 텍스트는 진술 태도에 따라 다시 논증 텍스트와 호소 텍스트로 나누고 있는데, 논설문, 논문, 비평문, 토론문은 논증 텍스트, 연설문, 사설, 평론은 호소 텍스트로 분류한다.

박혜리(2015)는 현행 논증 교육에 대해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논증 구조를 통한 설득적 텍스트의 교육을 설계하였다. 앞선 연구에서 혼용되고 있는 주장, 설득, 논증, 논리, 논술 등의 개념을 정리하였다. ‘설득적 텍스트’를 ‘필자(또는 화자)가 (보이는 독자이든 보이지 않는 독자(또는 청자)이든) 독자(또는 청자)를 대상으로 자신의 주장이 담겨 있는 주장과 의견을 받아들이도록 타당한 논거를 가지고 이성적·합리적으로 설득시키는 논증적·논리적·논술적인 글 모두를 포함한 텍스트’로 정의하였다. 기존 연구에서 혼용하고 있는 설득하는 글, 주장하는 글, 논증하는 글, 논술문 등의 개념을 포괄하는 용어로서 사용한다.

결론적으로 위 연구들에서 ‘주장하는 글’, ‘설득하는 글’, ‘논증적인 글’ 등은 학술적인 상황에서 모두 ‘에세이’로 설명할 수 있다. 외국인 유학생에게 이미 익숙한 ‘에세이’라는 개념을 두고 한국의 사회문화적 맥락을 포함하는 글쓰기를 교수-학습하기 위해 각각의 텍스트 유형 분류를 새로이 교수-학습하는 것은 비경제적이다. 따라서, 설명, 설득, 논증을 포함하는 대학의 학술적 텍스트를 ‘에세이’로서 교수-학습할 것을 제안한다. 글쓰기 과정 및 논지 전개 방법에 대한 교수-학습이 학문 목적 글쓰기 강의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설명하는 글’, ‘주장하는 글’, ‘설득하는 글’, ‘논증적인 글’ 등의 학술적인 맥락에서 사용하는 모든 텍스트를 ‘에세이’로 지칭하고, 학습자 요구를 반영한 학문 목적의 한국어 쓰기 교육의 효과적인 에세이 교수-학습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1.2.3 내용 구성 원리 및 전략

김미영(2016)에 따르면,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의 글쓰기 교육은 글 전체의 구조나 맥락, 내용을 중심으로 하기보다는 어휘와 문법의 정확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쓰기 교육에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수업 내에서 이루어지기 보다는 과제로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또한 쓰기 과제를 수행하더라도 교사의 형태적 오류 중심의 일방적인 피드백을 받는 것이 대부분이다. 외국인 유학생은 모국어로 쓰기 교육을 받은 바 있는 성인 학습자들이다. 대학 글쓰기에서 사고력, 창의력을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한국어로 수준 높은 결과물을 내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 더구나 한국의 담화 텍스트의 유형 및 특징, 구성 방법 등에 대하여 새롭게 학습해야 하는 유학생으로서 글쓰기에 대한 두려움이 상당할 것이다.

대학에서의 쓰기 기능은 학업 수행 능력을 확인하는 도구적 기능을 한다. 학문 목적의 한국어 연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학술적 텍스트가 가지는 특정 형식에 대한 교육 연구가 많이 진행된 것에 비하여 내용 구성에 대해 학습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연구는 현저히 드물다. 텍스트 유형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학습자가 앞으로의 전공 학문 수학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텍스트 내용 구성의 방법적 원리에 대한 학습이 필요하다. 따라서 학문 목적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학술적 글쓰기의 내용 측면과 글의 맥락과 구성 측면의 교육에 대한 연구가 더욱 심층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본고에서는 ‘패턴’이라는 이름으로 텍스트의 내용 구성 원리 및 전략을 제안하고자 한다. 그에 앞서, 기존에 이루어진 관련 선행 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기존 연구에서는 텍스트 구조와 관련하여 텍스트의 내용 구성 원리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van Dijk(1980)는 텍스트의 구조를 크게 미시구조, 거시구조, 초구조의 세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미시구조는 문장 내(또는 명제 내), 문장 연속(문장의 연결)의 연결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고, 텍스트의 보다 큰 단위에서 성립하는 연관성을 보여주는 것이 거시구조¹⁰⁾이다. 초구조는 거시구조 분석을 통해서 드러나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텍스트 구조에 대한 도식이다. 이원구

10) 임태운(2015).

(2005), 김미경(2007), 임태운(2015) 등은 텍스트 구조를 크게 미시 구조, 거시 구조, 최상위 구조로 나누고 있다. 미시 구조에서는 문장 이하의 단위를 다룬다.

거시 구조에서는 문장 이상의 단위, 즉 문단 정도의 수준에서 포착되는 생각의 흐름을 다룬다. 구조는 글의 내용 구조이다. 글의 구조는 글의 내용이 무엇인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다. 거시 구조를 세분화하는데 있어 Mayer(1975)는 원인-결과, 반응, 비교, 수집, 기술 관계의 다섯 가지 논리적 관계를 제시하고 있다. Van & Kintsch(1976)은 문장의 활용 방식에 따라 반응, 특수성, 설명, 증거, 연속, 목표, 집합 등 8가지 유형¹¹⁾으로 내용 구조를 나누었다. 김미경(2007)은 텍스트의 거시구조에 초점을 맞추어 원인-결과, 문제-해결, 비교-대조의 텍스트 구조를 학습하는 것이 한국어 학습자의 쓰기 능력의 외적인 형식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김선영(2008)에서는 한국어 교육기관의 교재를 분석하여 텍스트 구조 유형의 다양성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특히 열거형, 원인과 결과형, 비교와 대조형, 문제와 해결형 등의 설명문 구조의 이해와 구조 지식의 활용에 초점을 맞추어 대학 수학 목적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설명문 쓰기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최상위 구조는 거시 구조를 일반화한 것으로, 서론-본론-결론의 3단 구성, 기-승-전-결의 4단 구성, 화제제시-문제도출-문제제기-문제발전-결론의 5단 구성 방법 등이 있다. 어떤 글에만 자주 등장하는 특징적이고 유형적인 구조가 있다면 이로 인해 글의 종류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텍스트 구조에 대한 지식은 학습자의 쓰기 활동에 도구적인 지식으로 작용한다. 텍스트의 구조는 학습자가 텍스트를 이해 및 생산하는 활동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학습자는 텍스트 구조에 대한 학습을 통해 좋은 텍스트를 생산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학습자들의 전반적인 쓰기 능력의 향상에 있어 거시 구조가 중요하며 실제적인 텍스트 내용 구성 능력의 향상을 위해서는 거시 구조의 내용을 충분한 연습을 통해 학습해야 한다.

선행연구에 대한 고찰을 바탕으로 다음의 문제의식을 갖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연구를 진행하도록 한다. 먼저, 일반 목적 한국어 고급 단계 교육 과

11) 이원구(2005).

정을 이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쓰기 공백을 해결할 수 있는 제안을 하고자 한다. 텍스트의 내용을 구성하기 위한 전략적인 방법에 대해 학습함으로써 교양 강의와 전공 강의 등 어떠한 작문 과정에도 실용적으로 활용 가능한 전략적 쓰기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다음으로, 학습자의 쓰기 수업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수업을 구성하고자 한다. 학습자의 쓰기에 대한 부담을 줄여줄 참여적 학습을 통해 쓰기 과정에서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요구 조사 분석에서 알 수 있었던, 쓰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어휘 및 문법 표현의 이해와 사용, 아이디어 생성과 조직, 배열 등 수행 과제를 ‘혼자’ 해결하는 것에 대해 학습자는 많은 피드백을 필요로 했다. 쓰기 과정 내에서 교수자, 동료 학습자와의 활발한 피드백이 오가는 협동 학습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글의 구조뿐만 아니라 논지 전개 방법에 대한 교수-학습이 필요하다. 글쓰기의 절차와 과정을 이해하고 다양한 주제의 글을 접한다고 해서 좋은 글을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학습자들은 한 단락의 짧은 글로 표현하는 것이라도, 자신의 생각으로 논리적으로 전달하는 것 자체에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한다. 따라서 쓰기 전략에 맞는 적절한 표지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각 전략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글쓰기 교육 과정을 통해 외국인 유학생이 쓰기 전략에 맞는 적절한 표지를 활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정확한 문장으로 표현하는 방법과 문장과 문장의 관계를 고려하여 논리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문단 구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1.3 연구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대학 진학을 목적으로 하는 학문 목적 학습자, 즉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 학습자로 설정하였다. 외국인 유학생이 학문 수학과 과제 수행에 있어서 한국어의 쓰기 영역에서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것에 대한 원인을 분석해 보았다. 현재 시행 중인 외국인 유학생 관련 정책과 서울 소재 몇몇 대학의 외국인 신·입학 조건을 살펴봄으로써 대상 학습자의 한국어 숙달도가 대

체적으로 3, 4급 수준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선행된 연구의 외국인 유학생의 쓰기 교육에 관련된 요구 조사를 분석하여 쓰기 영역에서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과 전문 작문 수업에 대한 요구를 도출해냈다.

II장에서는 선행 연구에서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학문 목적 한국어 쓰기 교육의 이론적 배경을 기술하고자 한다. 에세이의 정의와 에세이 쓰기 교육에 대하여 ‘에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해외 이론서를 참고하여 탐구할 것이다. 또한, ‘패턴’이라는 용어가 기존에 사용된 양상을 살펴보고, 이 연구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패턴’에 대해 정의하였다. II장의 핵심은 논지 전개 원리 및 전략으로서 ‘패턴’이라는 개념의 이론적 배경의 탐구가 될 것이다.

III장에서는 현재의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학술적 에세이 쓰기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검토가 중심이 될 것이다. 어학과정의 학문 목적 교육과정과 교재, 학위과정의 신입생이 필수적으로 수강하는 교양 국어 교재를 분석하여 에세이 쓰기 교육의 패턴 교육 양상과 쓰기 과제에 대해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학술적 에세이 쓰기 교육에서 패턴을 활용하여 교수-학습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효용성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IV장에서는 이를 토대로 글쓰기에 활용 가능한 패턴 항목을 제시하고, 내용 구성의 원리로서 패턴을 활용한 학술적 에세이 쓰기 교수-학습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에세이의 본문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학습자로 하여금 주제에 맞게 적절한 패턴을 적용하여 내용을 전개하는 방법적 원리를 익힐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쓰기 단계별 활동에서 학습자가 쓰기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을 제안하고 패턴을 활용하여 전체 글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개하도록 교수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V장에서는 본 연구의 내용을 요약하고 본고의 의의와 한계점에 대해 살펴본 후, 향후 논의에 대해 제안하게 될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일반 목적 한국어에서는 일상생활에서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구어 위주의 교수-학습이 이루어진다. 학문 목적 한국어는 대학 혹은 대학원에서 학문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일반 목적 한국어에 비해 문어 위주의 전문적·학술적 성격의 텍스트를 통한 교수-학습이 이루어진다. 대학 입학 후 접하게 되는 학술적 성격의 텍스트, ‘에세이’에 대한 정의와 에세이 쓰기 교육의 이론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또한 효과적인 ‘에세이’ 쓰기를 위한 논지 전개 원리 및 전략으로서 ‘패턴’에 대한 이론적 배경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2.1 에세이 쓰기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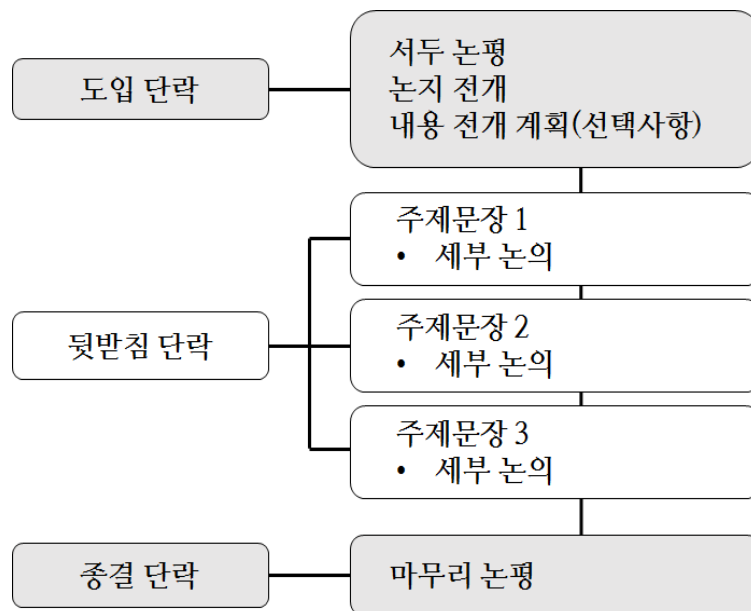
외국인 유학생은 모국어로 이미 쓰기 교육을 받은 바 있는 성인 학습자로 쓰기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과 인지 구성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한국의 담화공동체가 수용할만한 쓰기 능력을 갖추기 위하여 이미 ‘에세이 쓰기’로 학습한 쓰기 지식을 한국 장르 유형 구분에 따라 새롭게 재구성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은 이미 ‘에세이 쓰기’로 관련 지식을 학습한 바 있는 외국인 유학생에게 매우 비경제적이다. 다시 말해, 한국 장르 유형 혹은 텍스트 유형 분류 체계를 새롭게 이해시키고 글의 종류를 처음부터 다시 교수-학습하는 것보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에세이’ 개념을 통해 쓰기를 교수-학습하는 것이 학습자의 혼란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훨씬 경제적이다.

한국에서 역시 ‘에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문학 장르에 한정하고 있다. ‘에세이’는 영어 텍스트를 다룰 때 주로 쓰이는 용어로, 설명, 설득, 논증 등을 포함하는 대학의 학술적 글 전반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된다. 한국의 학술적 텍스트에 대해 ‘에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위하여 영어 교육의 이론서 및 교재에서 제시하는 에세이 교수-학습 내용을 참고하였다.

외국인 유학생에게 논리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개하는 방법을 교육하기

위해서 단락의 구성에 대한 내용을 우선 다루어야 한다. 단락의 구성뿐만 아니라 문장을 조직하고 배열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을 선행적으로 교수하여야 한다. 에세이는 한 두 단락이 아닌 몇 단락의 긴 글을 쓰는 것이다. 단락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주제에 대해 논하는 것이나 한 단락으로 논하기에는 복잡한 주제를 다루는 것이 에세이가 된다. 따라서 각 요점마다 주제를 여러 단락으로 나누어 본문을 구성한다. 그 후, 도입과 종결을 추가하여 별도의 단락들을 하나로 묶어 하나의 에세이를 완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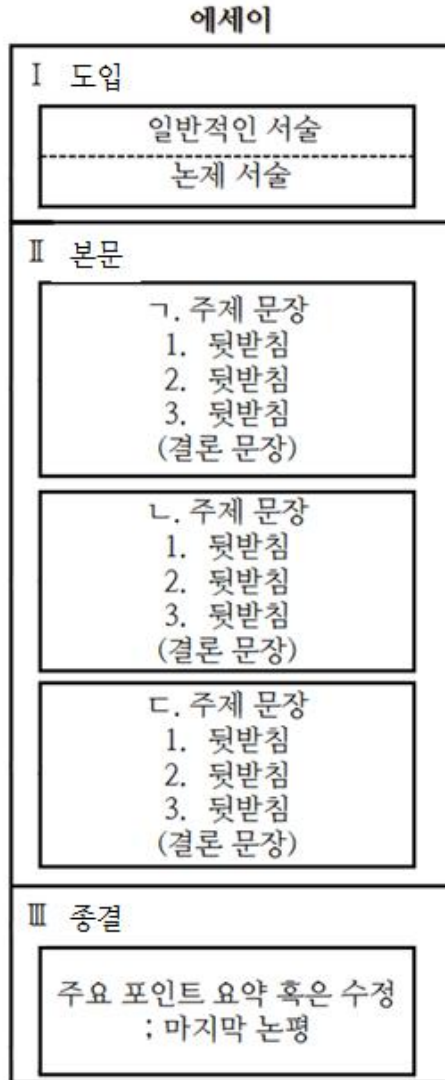
에세이의 일반적인 구조에 대하여 Folse 외(2002)에서는 세 단계의 구조를 가진다고 하였다. ‘도입 문단 + 논지 서술’, ‘주제 문장과 뒷받침 문단 + 중심 문장 / 세부 내용’, ‘종결 문단’으로 각 단계의 내용을 구성할 수 있다고 하였다. Judith Nadell 외(2009)에서는 다음과 같은 에세이의 구조 모형을 제시하였다.



[그림 3] 에세이의 구조 모형¹²⁾

12) Judith Nadell 외(2009:57).

초안 작성에 있어서 위의 모형을 참고하면 각각의 다른 부분이 전체 글에서 어떻게 서로 연결성을 가지는지 알 수 있다. 에세이를 쓰는 목적, 독자, 그리고 어조가 변함에 따라 에세이의 구조도 바뀔 것이다. 에세이의 도입과 종결은 하나 이상의 단락으로 전개한다. 주요 논지의 진술은 에세이의 중간 또는 끝까지 암시적이거나 지연될 수 있다. 모든 단락에 주제 문장이 있을 수는 없으며 단 하나의 주제 문장을 위해 여러 뒷받침 단락이 필요할 수 있다. 이러한 에세이의 일반적인 구조는 학위 논문에서 실험 보고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작문 과제를 체계화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한다. 에세이의 일반적 구조에 익숙해지면 이를 바탕으로 변형을 통해 응용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할 수 있다. 일반적인 형식이 아닌 특정 형식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학습자는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충분히 생성하고 활용할 수 있다. 사용하는 언어, 선택한 세부 정보, 취하는 관점은 글을 쓰는 필자만의 고유한 것이다. 이는 필자의 에세이를 다른 사람들의 글과 다르게 만드는 요소들이다.



[그림 4] 에세이의 구성¹³⁾

Ann Hogue(1991)에서 제시하는 에세이의 일반적인 구조는 ‘도입-본문-종결’로 구성한다. 도입에서는 에세이의 주제를 소개하고 주제에 대한 전반적인 배경을 제공한다. 에세이의 전반적인 계획을 설명하며, 주제에 대한 독자의 흥미를 자극해야 한다. 필자의 논지를 몇 가지 아이디어를 통해 서술함으

13) Ann Hogue(1991:102)의 chart 재구성.

로써 독자로 하여금 글의 내용과 구성을 알 수 있도록 한다. 본문에서는 자신의 주장을 밝히고 논리적인 근거나 이유를 들어 주장의 합리성과 타당성을 밝힌다. 종결에서는 글 전체 내용을 요약하거나 자신의 핵심 주장을 강조하고, 문제에 대한 해결책 혹은 대안을 제시하는 등의 내용으로 마무리한다.

도입부는 주제에 대한 독자의 관심을 끌기 위한 몇 가지 일반적인 진술과 주제의 구체적인 세분화를 서술하기 위한 혹은 전체 글의 계획을 서술하는 논지 서술문의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할 수 있다. 일반적 진술의 내용은 에세이의 주제를 소개하고, 주제의 배경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도입 단락의 첫 번째 문장에서는 주제에 대한 일반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 목적은 독자의 관심을 끌고 주제의 배경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각각의 후속 문장은 이전의 문장보다 더 구체적이어야 하고, 결국 논지 서술문을 이끌어 내야 한다. 논지 서술의 내용은 주요 주제에 대한 서술, 주제 또는 하위 항목의 세분화를 나열, 전체 글의 조직 방법 나타내기 등이며, 일반적으로 도입 단락의 마지막 문장이다. 논지 서술문은 서론의 가장 중요한 문장이다. 특정 주제를 명시하고 있으며 종종 에세이 본문에서 논의할 주된 하위 주제를 나열한다. 또한 시간순 또는 중요도 순과 같은 조직의 방법을 나타낼 수 있다.

에세이는 단락보다 길고 복잡하기 때문에 생각, 견해를 조직하는 것과 쓰기 시작하기 전에 에세이의 본문을 계획하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가장 좋은 방법은 개요를 작성하는 것이다. 단락의 개요 작성을 위해 이미 학습한 원칙과 기법들을 에세이에 적용할 수 있다. 본문은 하나 이상의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단락은 주제를 세분화하여 전개한다. 본문의 단락 개수는 세부 항목 혹은 하위 주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본문은 에세이에서 가장 긴 부분으로 도입의 논제 서술문의 주요 아이디어를 뒷받침하는 단락들로 구성할 수 있다. 에세이 본문의 단락들은 한 단락의 주요 뒷받침 근거와 같다. 나아가, 문장의 배열, 아이디어의 논리적 분배, 비교 및 대조 등을 통해 단락 내에서 아이디어를 구성하는 것과 같이 에세이의 단락들을 구성할 수 있다. 단락이 바뀔 때마다 다음 단락과의 자연스러운 연결을 돕는 문장으로 시작하거나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다면 글이 더 매끄러울 것이다.

에세이의 마지막 단락은 종결로, 종결 단락을 시작할 때, 종결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신호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종결의 내용은 에세이 본문에서 논의된 주요 요점을 요약하거나 다른 단어를 사용하여 논지 서술문의 내용을 다시 쓴다. 그리고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주제에 대한 최종 논평을 덧붙인다. 이를 통하여 독자가 에세이의 내용을 기억할 수 있는 강력하고 효과적인 메시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

추가적으로 본문의 단락들 간의 연결성을 고려해야 한다. 단락 내의 문장들 간의 연결과 단락과 단락의 연결의 긴밀성을 고려하여 에세이를 작성한다. 단락 내외의 연결을 위해 전환 신호를 사용한다. 단락이 바뀌거나 또 다른 아이디어에 대해 설명할 때, 전환 신호를 사용하여 자연스럽게 매끄럽게 연결이 되도록 한다. 이 전환 신호는 단어, 구, 혹은 첫 번째 단락에서 주요 아이디어를 반복하거나 요약하는 종속절일 수 있다.

에세이의 본문의 논지 전개 방식에 따라 에세이의 세부 유형이 결정된다. 그만큼 논지 전개 방식은 전체 에세이의 유형을 결정지을 만큼 중요하다. 이론서 및 쓰기 교재에서 제시하는 에세이의 유형 분류를 정리하여 다음의 표로 제시하였다. 대체로 다섯 가지 정도로 에세이 유형을 분류하고 있다.

[표 12] 이론서 및 교재에 따른 에세이의 유형 분류

Regina L. Smalley 외 (20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교·대조 에세이(THE COMPARISON AND CONTRAST ESSAY) • 분류 에세이(THE CLASSIFICATION ESSAY) • 과정 분석 에세이(THE PROCESS ANALYSIS ESSAY) • 인과 에세이(THE CAUSE-AND -EFFECT ESSAY) • 논쟁적인 에세이(THE ARGUMENTATIVE ESSAY)
Jason Davis, Rhonda Liss (20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정 분석 에세이(PROCESS ANALYSIS ESSAY) • 인과 에세이(CAUSE AND EFFECT ESSAY) • 논쟁적인 에세이(ARGUMENTATIVE ESSAY) • 분류 에세이(CLASSIFICATION ESSAY) • 보고·관찰 에세이(REACTION ESSAY)

Ann Hogue (2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정 에세이(PROCESS ESSAY) • 인과 에세이(CAUSE/EFFECT ESSAY) • 비교·대조 에세이(COMPARISON/CONTRAST ESSAY) • 논쟁적인 에세이(ARGUMENTATIVE ESSAY)
Long (20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묘사적 에세이(Narrative Essay) • 서술적 에세이(Descriptive Essay) • 분류와 구분 에세이(Classification and Division Essay) • 과정적 에세이(Process Essay) • 비교·대조 에세이(Comparison or Contrast Essay) • 인과 에세이(Cause–Effect Essay) • 정의적 에세이(Definition Essay) • 논쟁적 에세이(Argument Essay)
WALSH, Laura (199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득적 에세이(Persuasive Essay) • 비교·대조 에세이(Compare–Contrast Essay) • 인과 에세이(Cause–Effect Essay) • 문제 해결 에세이(Problem–Solution Essay)

이론서 및 쓰기 교재에서 에세이 쓰기 교육은 위의 표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몇 가지의 유형 분류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었다. 선행 연구에서 살펴본 텍스트의 거시 구조에 대한 논의와 에세이 유형 분류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 텍스트의 거시 구조에서 다루는 내용과 에세이 유형 분류 항목은 모두 단락 단위 이상의 내용 구성 원리와 관련 있다. 즉, 비교·대조, 원인과 영향 등의 항목은 효과적인 논지 전개를 위한 텍스트 내용 구성의 방법적인 원리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 개념을 ‘패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설명하고, 학술적 텍스트, 즉 에세이 쓰기 교육에 활용하여 학습자 텍스트의 내용 생성 과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한다. ‘패턴’이라는 개념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다음 절에서 계속하도록 한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한국의 텍스트 유형 및 장르 구분에 대해 새롭게 학습해야하는 과정에서 외국인 유학생이 겪게 될 비경제적인 혼란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학술적인 텍스트를 일컫는 '에세이'라는 용어의 사용을 제안한다. 학술적 텍스트를 '에세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교수-학습함으로서 외국인 유학생의 혼란을 줄이고 모국어 쓰기 교육에서 이어지는 학술적 텍스트의 쓰기 선형지식을 상기시켜 한국어 쓰기 교수-학습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한다.

각 이론서 및 쓰기 교재마다 에세이의 유형을 분류하여 유형에 따른 모형 제시 및 쓰기 과제를 구성하였다. 에세이 내용의 의미 관계에 따른 분류로 텍스트 거시 구조 세부 유형의 분류 기준과 같다고 보았다. 따라서 논지 전개 방법으로서 '패턴' 개념을 활용하여 다음 절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도록 한다.

2.2 전략으로서의 패턴 활용 글쓰기

장르 중심 쓰기 교육의 핵심은 장르 분석에 있다. 하나의 텍스트에 대한 장르 분석을 통해 다른 텍스트와 구분되는 장르 특징을 알아내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학습자는 수업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글의 체계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논지 전개 방법에 대한 상세한 기술을 학습하는 것을 필요로 했다. 앞서 이야기한 학문 목적 한국어 쓰기 교육의 해결 과제에 대하여, '패턴'이라는 개념을 가져오게 되었다. 이 '패턴'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하여, 논리적 내용 전개에 대한 방법론적 원리를 제공하여 전공 강의에 실용적으로 활용 가능한 전략적 쓰기 활동을 가능하게 하고, 쓰기 과정 안에서 교수자, 동료 학습자와의 활발한 피드백이 이루어지는 수업을 제안하고자 한다.

교수-학습 방안을 제안하기에 앞서, '패턴(Pattern)'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최근 한국어교육의 쓰기 영역에서 점차 그 중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하면서 교재에서 점차적으로 '패턴'이라는 용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개념을 교수-학습에 적용하기 시작하였다. 구체적인 교수-학습 방안을 제안하기 전에 작문 교육 이론서와 교재에서 에세이 쓰기를 교수-학습할 때, '패턴'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Judith Nadell 외(2009)에서는 필자가 자신의 아이디어를 조직하고 발전

시키기 위해 단일의 혹은 복합적인 다양한 패턴들을 사용한다고 하였다. 각 패턴에는 고유 한 논리가 있기 때문에 패턴들을 사용하여 다른 방식으로 주제에 대해 통찰할 수 있다. 이러한 패턴에 대하여 ‘서술(Description)’, ‘묘사(Narration)’, ‘예시(Exemplification)’, ‘구분-유형화(Division-classification)’, ‘과정 분석(Process analysis)’, ‘비교-대조(Comparison-contrast)’, ‘원인-영향(Cause-effect)’, ‘정의(Definition)’, ‘논쟁-설득(Argumentation-persuasion)’로 구분하였다.

논지 전개를 위한 각 패턴은 자체적인 논리를 가지고 있어 일부 작성 목적에는 적합하지만 다른 목적에는 적합하지 않다. 일단 어떤 패턴이 필자의 목적에 적합한지 파악한다면 에세이의 일반적인 구조를 막을 수 있다. 첫 학기에 일부 학생들이 대학을 그만 둔 ‘이유를 설명’하는 에세이를 작성할 때, 학생들이 대학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주요 ‘원인’에 대한 세 가지를 토론을 통하여 에세이를 구성할 수 있다. 이렇듯, 어떠한 패턴을 선택하는 것은 에세이의 내용과 조직에 큰 영향을 미친다.

어떤 에세이는 하나의 패턴을 따르지만, 조직의 구조를 제공하는 여러 패턴들을 복합적으로 사용한다. 여러 가지 패턴을 활용하여 주요 논지를 뒷받침하는 단락들을 위한 구조적인 틀을 제공할 수 있다. 패턴은 작문 과정 전반에 걸쳐 작용한다. 패턴에 대한 인식은 주제에 대해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한다. 자녀가 학교에서 징계 받는 방식에 관한 에세이를 작성하도록 요청 받았다고 가정했을 때, 막연하게 글쓰기를 진행하려하면 막상 벽에 부딪히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 이상의 논지 전개 패턴을 주제에 적용하도록 한다. ‘비교·대조’를 사용하여 학부모와 학교 규율에 대한 자신의 감정 사이의 차이점을 조사하는 에세이를 작성할 수 있다. ‘구분-유형화’를 사용하여 학교에서 사용되는 훈육의 종류를 분류하는 내용을 전개할 수 있다. ‘원인-영향’은 정학 처분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에 대하여 탐구하는 또 다른 에세이가 될 수도 있다.

에세이를 쓰기 위해 주제와 논지를 확인한 후에 논지 전개 패턴을 활용하여 필자의 견해에 대한 증거를 생성할 수 있다. “교사는 본보기를 위해 학생을 공개적으로 훈육해서는 안 된다.”에 대한 논지를 전개한다고 할 때, 몇 가

지 패턴을 활용하여 논지에 따른 전체 에세이의 내용 전개에 대한 이미지를 그려볼 수 있다. ‘서술’은 전체 학습의 악행에 대해 처벌받은 비참한 시간을 회상하여 내용을 전개할 수 있다. ‘정의’를 사용하면 독재적인 징계 스타일이 의미하는 바를 설명할 수 있다. ‘논증-설득’을 사용하여 학생을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규율하는 새로운 계획을 옹호하도록 촉구할 수 있습니다.

전개 패턴은 또한 글에 대한 적절한 틀을 적용하는 방법으로써 아이디어를 조직하는 데 도움을 준다. 대학생들 사이에 도둑질이 많이 발생한다는 교내 신문에 대한 에세이를 작성하려고 한다고 가정했을 때, 글을 쓰는 목적은 대학생들이 유혹에 빠지거나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설득하는 것이다. 도둑질로 인해 발생하는 과정에 대한 글을 읽은 독자들이 도둑질을 저지할 것이다. 도둑이 영업 사원에 의해 억류되거나 상점 보안 요원에 의해 심문을 받고, 경찰차로 체포되거나, 경찰서에 신고 당하거나,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단계별 설명을 옆두에 두고 에세이의 내용을 구조화 할 수 있다.

Regina L. Smalley 외(2002)에서는 각 에세이 유형에 따라 에세이를 조직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는데, ‘Pattern’이라는 직접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에세이의 구조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에세이를 구성하는 내용의 변화에 따라 번호를 붙여 나열하는 방식으로 에세이 구조를 설명하였다. 즉, 에세이의 단락별 내용 구성을 유형화하여 패턴이라는 용어로서 설명하였다. Jason Davis·Rhonda Liss(2006)에서도 각 에세이 유형별로 구조를 제시하여 글의 체계를 설명하였다. 본문 단락 구성을 위해 ‘사실, 예시, 영향, 효과, 질문 등’을 사용하여 세부적으로 중심 주제를 지지하도록 교수하고 있다. 내용 구성 원리로서의 ‘패턴’을 모형이나 연습활동 없이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다. Ann Hogue(2006)에서도 ‘패턴(Pattern)’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Block Pattern’과 ‘Point-by-Point Pattern’ 등을 제시하여 주제에 따라 효과적인 패턴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필자는 자신의 논지를 효과적으로 펼치기 위해 패턴을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논지 전개의 방법적 원리로서 ‘패턴’에 대한 분류 및 각 패턴별 구체적인 설명, 다양한 연습 활동, 전략적 활용을 위한 패턴 모형 제시 등, 패턴 중심

적인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았다. 다만, 에세이 쓰기 과정에서 ‘패턴’의 개념 혹은 용어를 사용하여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패턴’의 활용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쓰기 교육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국내에서도 패턴과 관련한 논의가 기존에 이루어진 바 있다. 국어과 교육과정(2009, 2015)¹⁴⁾의 읽기, 쓰기에 제시된 내용을 살펴보면 패턴과 유사한

14) 국어과 교육과정(2009, 2015)에서 패턴 개념과 관련한 제시 사항은 다음과 같다.

2015 개정시기 > 국어과 > 성취기준(읽기)

[9국02-04] 이 성취기준은 글에 사용된 설명 방법을 중심으로 글의 논지 전개 방식이나 구조 등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며 읽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설정하였다. 설명 방법은 여러 가지 글에 널리 사용되지만, 주로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글에 사용될 때가 많다. 글에 사용된 개념 정의, 예시, 비교와 대조, 분류와 구분, 인과, 분석 등과 같은 설명 방법을 이해하고, 필자가 사용한 설명 방법이 설명하려는 대상이나 개념에 적합한 것인지 판단한 후, 그 효과와 적절성을 평가하도록 한다. 또한 설명 방법은 단순히 문장이나 문단 차원에서뿐 아니라, 글 전체 수준에서도 사용된다는 점을 이해하도록 한다.

2015 개정시기 > 국어과 > 학습요소(쓰기)

문제 해결 과정으로서의 쓰기, 설명하는 글 쓰기(정의, 예시, 비교와 대조, 분류와 구분, 인과, 분석), 보고서 쓰기(절차와 결과), 주장하는 글 쓰기(근거 구성), 감동이나 즐거움을 주는 글 쓰기, 내용 선정하기, 내용의 통일성 갖추기, 개성적으로 표현하기, 매체 언어의 특성을 살려 표현하기(복합 양식적 특성), 고쳐쓰기, 쓰기 윤리 지키기

2009 개정시기 > 국어과 > 성취기준(읽기)

(4) 설명 방식을 파악하며 설명하는 글을 읽는다.

설명하는 글은 학습 상황과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대하는 글 중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설명하는 글에 사용된 구조를 이해하며 주요 내용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설명하는 글에는 흔히 정의, 예시, 비교, 분류, 열거, 분석, 인과 등과 같은 방식이 사용된다. 먼저 필자가 사용한 설명 방식을 파악하고, 대상에 적합한 설명 방식을 사용하였는지 판단하도록 한다. 그리고 설명하는 글의 구조를 활용하여 설명의 주요 내용을 회상하고 재구성하도록 한다.

2009 개정시기 > 국어과 > 성취기준(쓰기)

(2) 설명하고자 하는 대상이나 개념에 맞게 적절한 설명 방법을 사용하여 독자가 이해하기 쉽게 글을 쓴다. 설명하고자 하는 대상이나 개념에 맞게 적절한 설명 방법을 사용하여 글을 써야 논리가 정연하고 독자가 이해하기 쉬운 글이 될 수 있음에 주목하여 글쓰기를 지도한다. 5-6학년군의 성취 기준 ‘적절한 설명 방법을 사용하여 대상의 특징이 드러나게 글을 쓴다.’와 연계하되, 보다 심화된 수준으로 지도한다. 대상이나 개념에 맞게 다양한 설명 방식들(개념 정의, 부연 상술, 예시, 인용, 비교와 대조, 분석 등)을 사용하여 글을 쓰는 방법을 실제적인 예시 글을 통해 교육하고, 이를 학생들이 자신의 글쓰기에 직접 적용해 보도록 지도한다.

2009 개정시기 > 국어과 > 세부내용(독서)

(16) 글의 기본 구조와 전개 방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고 전개 과정의 특징을 파악하며 읽는다.

글의 형식적 특징인 전개 방식과 구조를 이해하고, 이러한 전개 방식이 필자의 사고 전개의 특징과 표현 전략을 반영하고 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글은 종류와 목적에 따라 구조적인 특징과

개념을 찾아볼 수 있다. ‘설명 방법’에는 ‘정의, 예시, 비교와 대조, 분류와 구분, 인과, 분석 등’이 있으며, ‘글의 전개 구조’에는 ‘원인-결과, 비교-대조, 문제-해결’ 등이 있다고 제시하였다. 이러한 개념은 ‘패턴’과 매우 유사하다. 즉, 국어 교육과정에서는 ‘패턴’에 대해 ‘설명 방법’과 ‘글의 전개 구조’로 설명하고 있다. 다만, 국어 교육과정에서는 주로 읽기 영역에서 ‘설명하기’를 통해서만 언급하고 있다. 설명문에 주로 사용하는 방법적 원리로 한정적인 개념으로 보고 있다. ‘패턴’의 개념은 읽기, 쓰기 등에서 설명문뿐만 아니라 설득, 논증, 문학 텍스트 등 다양한 유형의 글에 모두 통용되는 논지 전개의 방법적 원리로서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명시하고 있는 개념보다 넓은 의미를 가진다. 또, ‘설명 방법’과 ‘글의 전개 구조’의 세부 요소의 구분이 명확하지는 않다. 세부 요소로 모두 존재하는 ‘원인과 결과, 비교와 대조’는 ‘설명 방법’으로서나 ‘글의 전개 구조’로서나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 설명 방법뿐만 아니라 설득하기, 비평하기 등 다양한 목적의 글을 쓰기 위한 기술 전략으로 ‘정의, 예시, 비교와 대조, 분류와 구분, 인과, 분석 등’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설명하는 것이 옳다고 볼 수 있다.

즉, 본고에서 학문 목적 에세이 쓰기 교육에 활용하고자 하는 ‘패턴’은 텍스트의 형식적 측면뿐만 아니라 내용 측면, 맥락 측면에 대학 교수-학습을 고려하여 도입하고자 하는 개념이다. 텍스트의 형식적인 측면에 대한 교수-학습은 텍스트 유형 및 장르적 지식의 학습을 통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 학문 목적 학습자의 요구에 따라 텍스트의 형식적 측면뿐만 아니라 내용 전개에 있어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쓰기 전략이 필요하다. 학습자가 텍스트 생성에 있어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유 중 하나는 체계적·논리적으로 자신의 생각·견해를 전개하는 것이다. 학습자는 주제에 대한 배경지식 및

관습적인 전개 방식을 갖추고 있다. 또한 설명적인 글은 원인과 결과, 비교·대조, 문제·해결 등의 다양한 구조를 사용한다. 이러한 글의 구조적 지식이 독해에 효과적임을 알고 적용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스키마를 활용하여 아이디어를 생성한다. 이때 생성된 아이디어를 체계적·논리적으로 배열하기 위한 방법적인 원리에 대한 교수-학습이 필요하다. 사고와 표현의 전략적 원리로서의 패턴을 활용하여 본론의 내용 구성에 대한 원리를 학습하고 다양한 주제의 글쓰기 과제를 수행할 수 있다.

Ⅲ. 학문 목적 한국어 쓰기 교육에서의 패턴 활용의 효용성

이 장에서는 현재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학술적 에세이 쓰기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어학과정과 학위과정의 학문 목적 한국어 쓰기 교육의 목표와 등급별 쓰기 과제를 분석하고, 현재 학문 목적 한국어 쓰기 교육에서 ‘패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양상을 살펴보았다.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교육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학문 목적 한국어 쓰기 교육이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패턴을 활용하는 에세이 쓰기 교육을 제안하며, 그 효용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3.1 학문 목적 한국어 쓰기 교재 및 교육과정 분석

유학생을 위한 에세이 쓰기 교육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하기에 앞서 기존 교재 구성의 경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외국인 유학생의 증가 추세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학문 목적 한국어 교재의 출간이 시작되었다. 각 대학마다 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수강해야 하는 교양국어 강의 개설 등 문식력 함양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대학에서의 ‘쓰기’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자 내국인뿐만 아니라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술적 글쓰기 교육을 위한 쓰기 전문 교재의 발간이 이어졌다. 학문 목적의 교재는 유학생의 전공 학습을 고려한 특정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기능별 교재와 유학생의 전공 특성과 무관하게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다룬 통합형 교재로 나눌 수 있다. 이들 교재는 대체로 글쓰기를 위한 기초 지식과 글쓰기 과정, 텍스트 생산에 대한 이론 및 연습 등에 대한 내용을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다. 다양한 텍스트의 제공 및 연습을 통해 학습자로 하여금 학업의 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다.

외국인 유학생의 증가, 즉 한국에서 대학(원) 진학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

어 학습자가 증가하면서 대학 생활뿐만 아니라 대학의 강의 수강에 있어서 요구되는 한국어 능력에 대한 교수-학습 과정이 만들어졌다. 일반 목적의 한국어와는 다르게 학문 목적의 한국어는 강의 내용 필기, 과제물 작성, 발표, 토론 등 표현 기능, 특히 ‘쓰기’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된다. 일반 목적의 한국어와 진학 후 전공 과정에서의 간극을 줄이기 위하여 어학 과정에 학문 목적 한국어(Korean for Academic Purpose; KAP) 과정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다. 황인교(2015)는 교육과정에 따른 학문 목적 한국어 교재의 현황을 출판 연도순으로 정리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 교재에 대한 논의를 하기 전에 기존에 논의된 학문 목적 한국어의 교육과정에 대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표로 제시하였다.

[표 13] 학문 목적 한국어교육과정¹⁵⁾

	대학 입학 전	대학 입학 후		
이덕희 (2003)	대학 입학 전 과정/대학한국어	대학 입학 후 과정 전공한국어		
최은규 (2008)	한국어과정	교양과정	전공과정	
박석준 (2008)	공통한국어	교양한국어	전공한국어	
김유미 강현화 (2008)	언어교육기관 언어강좌 KGAP	대학 교양과정 교양강좌 KGAP/KSAP	대학 전공 기초과정 전공 기초강좌 KSAP	
김지형 (2013)	일반적 학문 목적 한국어교육과정 기초한국어 KGAP	도구적 학문 목적 한국어교육과정 도구 교과로서의 한국어 KIAP	특수 학문 목적 한국어교육과정 전공한국어 KSAP	세 부 전 공
	어학 과정	학위과정		
	한국어교육과정			전 공

15) 황인교(2015:319).

위의 논의를 참고하여 황인교(2015)는 학문 목적 한국어교육과정을 세 가지로 나누어, 어학과정의 교재, 학위과정의 교재1(도구교과로서의 한국어), 학위과정의 교재2(전공 한국어)의 양상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논의를 참고하여, 학문 목적 한국어교육과정을 어학 과정, 공통 교양 과정, 전공 과정으로 나누고 학문 목적 학습자들의 대학 진학 전후의 쓰기 교육에 대하여 각 교육과정의 교재를 통해 살펴보려고 한다.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학습자들이 수강하는 어학과정의 학문 목적 한국어 교재와 한국인을 포함한 대학의 신입생이 의무적으로 수강해야 하는 학위 과정의 교양 국어 교재를 선정하였다. 각 교재의 구성과 체계를 살펴봄으로써 학술적 텍스트, 즉 에세이 쓰기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고, 쓰기 과제 활동을 분석해보도록 하겠다.

[표 14] 어학과정의 학문 목적 한국어(기초한국어) 교재¹⁶⁾

		초급	중급	고급	예
일반 목적	통합 교재			학문 목적 관련 내용 포함	대부분의 한국어 교재 고급
				학문 목적 교재	‘한양한국어 6’
학문 목적	통합	기초	생활	전문	‘톡톡 한국어’
	기술별	대학 생활	대학생활 / 강의 수강	강의 수강	연세대 대학한국어시리즈
		없음	대학생활 관련 텍스트	학문 목적 쓰기 텍스트	‘학문 목적 과정 서강한국어 쓰기’

황인교(2015)에서 위와 같이 어학과정의 교재를 정리한 바 있다. 연세대학교와 서강대학교는 대학부설의 어학과정에 일반 목적 한국어 과정뿐만 아니라 학문 목적 한국어 과정도 존재한다. 두 대학의 어학과정과 대학의 신입생이라면 의무적으로 수강해야 하는 교양 국어 과목의 ‘쓰기’ 영역에 집중하여 학술적 에세이 쓰기 교수-학습 현황을 살펴보려고 한다. 다음은 분석 대상 교재 목록이다.

16) 황인교(2015:323).

[표 15] 분석 대상 교재 목록

교 재 명	대 학 교
글쓰기	연세대학교
대학 강의 수강을 위한 한국어 쓰기 중급 I	연세대학교 한국어어학당
대학 강의 수강을 위한 한국어 쓰기 중급 II	연세대학교 한국어어학당
대학 강의 수강을 위한 한국어 쓰기 고급	연세대학교 한국어어학당
읽기와 쓰기	서강대학교
서강 한국어 학문 목적 과정 쓰기 1	서강대학교 한국어교육원
서강 한국어 학문 목적 과정 쓰기 2	서강대학교 한국어교육원
서강 한국어 학문 목적 과정 쓰기 3	서강대학교 한국어교육원
서강 한국어 학문 목적 과정 쓰기 4	서강대학교 한국어교육원

먼저, 각 대학 어학기관의 학문 목적 한국어 과정이 제시하는 학습 목표 및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다. 어학과정의 학문 목적 한국어 쓰기 교재의 내용 구성과 쓰기 과제를 분석하고, 학습자들이 대학 진학 후 학습하게 되는 학위 과정의 학문 목적 한국어 쓰기 교재의 내용 구성과 쓰기 과제를 분석하였다.

3.1.1 어학기관의 학문 목적 한국어 교육과정

일반적으로 어학기관의 학술적 텍스트 및 관련 언어적 기술에 대한 학습은 일반 목적 한국어 교육과정의 고급 단계에서 이루어진다. 고급 수준의 학습 목표에 따라 전문 분야에서의 연구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언어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서론에서 다루었듯이, 진학을 목표로 하는 학습자는 대체적으로 대학의 입학 요건에 맞춰 3·4급 이후의 고급 단계 학습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연세대학교와 서강대학교의 어학기관의 학문 목적 한국어 과정은 순수 어학연수를 목적으로 한국어 교육을 이수하는 학습자와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학습자를 구분하고 각자의 목표에 따른 한국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한다.

연세대학교의 대학 한국어 과정은 한국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한국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학습자는 대학 수학에 필요한 한국어 능력을 초급1, 초급2, 중급1, 중급2, 고급 총 5단계에 의해 습득할 수 있다. 연세대학교의 대학 한국어 과정은 대학 생활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는 교재와 대학 강의 수강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는 교재가 구분되어 있다. 각 교재에 따라 관련된 언어적 기술에 대한 교수-학습이 이루어진다. 등급별 학습 내용과 학습 목표는 아래의 표와 같다.

[표 16] 연세대학교 대학 한국어 과정의 등급별 학습 내용과 학습목표

등급	학습 내용	학습목표
초급 1	대학생활을 위한 한국어 200시간 TOPIK 시험대비반10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상적이고 기본적인 의사표현을 할 수 있다. • 자모, 단어를 변별할 수 있으며 대학생활과 관련된 간단한 대화를 듣고 이해할 수 있다. • 단문이나 간단한 복문으로 이루어진 단락을 읽고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 정확한 문법으로 문장을 완성할 수 있으며 짧은 글짓기를 할 수 있다.
초급 2	대학생활을 위한 한국어 200시간 TOPIK 시험대비반10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생활에서 부딪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새로 알게 된 정보를 발표할 수 있다. • 짧은 글을 읽고 글의 목적을 이해할 수 있다. • 자신의 생각을 산문으로 표현할 수 있다.
중급 1	대학생활을 위한 한국어 150시간 대학강의수강을 위한 한국어 50시간 TOPIK 시험대비반10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 수업에 필요한 질문하기, 설명하기, 의견 제시하기 등 기초적인 말하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 복합문을 적절히 구성할 수 있으며, 청자를 고려하여 반말과 높임말을 사용할 수 있다. • 대학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어휘를 문맥 속에서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다. • 컴퓨터를 이용하여 기초적인 한글 문서를 작성할 수 있다.
중급 2	대학생활을 위한 한국어 120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대방의 생각을 듣고 요지를 파악하여 적절히 반박하는 등 학업에 필요한 의사소통

	대학강의수강을 위한 한국어 80시간 TOPIK 시험대비반10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을 할 수 있다. • 신문이나 잡지 등 시사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다. • 사회적 주제에 관한 글의 요약문을 작성할 수 있으며,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는 글도 쓸 수 있다. • 앞뒤 문맥에 맞게 문단을 구성할 수 있으며 청자를 고려하여 우회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 발표력 훈련, 읽기 전략, 논리적 글쓰기 등 기본적인 학습 기술 및 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
고급	대학생활을 위한 한국어 90시간 대학강의수강을 위한 한국어 110시간 TOPIK 시험대비반10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박하기, 설득하기, 논거 제시하기 등 학업과 관련된 말하기 기능을 익혀서 발표와 토론을 할 수 있다. • 교양 과목 강의를 듣거나 관련 서적을 읽고 요지를 파악 할 수 있다. • 논리적인 글쓰기 방법을 익혀서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 간단한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 심각한 문법적인 오류 없이 문단 단위의 담화를 자연스럽게 생성할 수 있다. • 빈도가 높은 학문적 어휘와 한자어를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다.

전 과정에서 대학 생활과 관련된 한국어 학습이 이루어지며, 중급 단계부터 대학 강의 수강을 위한 한국어 학습이 이루어진다. 전반적으로 학습 목표의 내용에 쓰기의 비중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초급 단계의 학습 목표는 글쓰기의 기초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일상적이고 기본적인 수준의 이해 및 표현 기능의 수행을 목표로 한다. 강의 수강을 위한 한국어 학습이 이루어지는 중급 단계 이후로는 학습 목표 역시 강의 수강에 필요한 언어 기능 및 작문 관련 내용의 비중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서강대학교 어학기관의 KAP(Korean for Academic Purpose)200 과정 역시 한국에서 대학 또는 대학원에 진학하기를 계획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며, 학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어휘, 문법, 쓰기, 한국 문화 등을 학습한다. 등급에 따른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다.

[표 17] 서강대학교 KAP200 과정의 등급별 학습 목표

등 급	학 습 목 표
1급	실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2급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기본적인 의사소통과 더불어 한국 문화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3급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일상적인 의사소통은 거의 다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대학 생활 및 학사 일정과 관련한 어휘를 익히고 어문규범에 맞는 문장을 정확하게 쓸 수 있습니다. 3급 이상을 수료한 학생은 서강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4급	한국 사회에서의 기본적인 사회적 상황을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장르의 단락을 쓸 수 있습니다.
5급	한국 사회에서의 일상적인 사회적 상황을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학부 전공 수업에 필요한 강의노트, 답안지 및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언어학, 심리학 등)
6급	대부분의 사회적인 상황을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학부 전공 수업에 필요한 강의노트, 답안지 및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경영학, 자연과학 등)
7급 (최고급 특별과정)	현대 한국의 사회생활에서 사용하는 한국어를 이해하여 사용할 수 있고, 한국 문화를 보다 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서강대학교의 KAP200과정은 3급부터 학문 목적 쓰기 전문 교재를 사용한 수업이 진행된다. 대학 생활 전반에 대한 내용을 다루며, 5급 이상에 이르러서야 본격적인 강의 수강에 필요한 기능들을 학습하게 된다. KAP200과정의 수업에 대해서 3급부터 6급까지의 대표적인 활동을 제시한 다음의 표를 통해 알 수 있다.

[표 18] KAP200과정의 3급 이후의 대표적인 활동

등급	대표적인 활동
3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인의 집에 방문하기 • 부동산에 가서 집구하기 • 아르바이트 구하기 • 병원에 가서 진찰받기 • 분실물 찾기 • 전자 제품 쇼핑하기 • 공공기관 이용하기 • 추억 말하기
4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명인 인터뷰하기 • 격식체로 발표하기 • 고민 듣고 상담해주기 • 설득하기 • 물건 묘사하기 • 계절에 맞는 대화 이끌어가기 • 추천하기 • 불만 말하고 개선 요청하기 • 사건/사고 관련 정보 전달하기 • 비교하며 설명하기
5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의 인생에서 중요한 전환점 이야기하기 • 서울 여행의 주제를 정해서 조사하고 팀별로 발표하기 • 사자성어를 사용해서 대화 만들고 발표하기 •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문학적인 표현 사용하여 이야기하기 • 효과적인 대화법을 적용하여 역활극하기 • 짧은 연설하기 •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 설명하기 • 과학퀴즈 풀기 • 한국 문화에 대해 설문조사하고 발표하기 • 사회문제에 대해 토론하기 • 문화 차이에 따라 차이는 보이는 몸짓언어 이해하기 • 결혼식 풍습을 비교하여 말하기, 요즘 결혼식 풍습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 연극하기
6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제 제기 및 대안 제시하기 • 배심원 제도에 대한 찬반 토론하기 • 창업 계획 프레젠테이션 • 인구정책에 대한 모의 공청회

3급의 활동은 대학 생활과 관련한 의사소통 목적의 활동들이 주를 이룬다. 하지만, 4급 이후의 활동은 대학 진학 후의 공식적·학술적 환경에서 필요한 활동들로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급에서 격식체를 학습하고, 설득하기, 묘사하기, 정보 전달하기, 비교하기 등의 표현 전략을 학습한다. 5급에서는 발표하기의 활동 비중이 크게 늘었고, 6급에서는 보다 전문적인 주제를 다루는 것으로 파악된다. 자세한 쓰기의 수업 내용과 활동에 대해서는 교

재를 통해 알아보도록 한다.

3.1.2 어학기관의 학문 목적 한국어 쓰기 교재 분석

연세대학교의 대학 입학 전의 학문 목적 한국어교육과정인 ‘대학한국어과정’에서 중급부터 고급까지의 대학 강의 수강 능력 교육하기 위한 교재이다.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교재로 나뉘어 있으나,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쓰기 교재만을 분석하기로 한다. 중급부터 학문적 의사소통 능력과 교수학습 방식 관련 내용이 단계적으로 담겨 있다. 각 등급의 단계별 제목은 다음과 같다.

[표 19] 『대학 강의 수강을 위한 한국어 쓰기』 등급별 제목

등급 목차	중급1	중급2	고급
1	주제문과 단락쓰기	글쓰기의 기초	보고서
2	단락 구성해서 글쓰기	설명문	개요 작성하기
3	분석해서 쓰기	요약문	서론 쓰기
4	분류해서 쓰기	수필	논리 전개하기
5	예시하여 글쓰기	조사 보고서	비교하기
6	의견 제시하는 글쓰기	서평	인용하기
7	요약하여 글쓰기	비판·논쟁형 논설문	조사하기
8	답안 쓰기	문제 해결형 논설문	결론 쓰기
9	입말과 글말	비교·대조형 논설문	각주 및 참고문헌 달기
10	문법에 맞게 글쓰기	시험 답안 쓰기	평가하기

각 등급별 교재는 중급1은 단락 쓰기를 중심으로, 중급2는 다양한 학술적 텍스트 생산, 고급은 보고서 쓰기를 중점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글쓰기에 대한 기초 지식으로 중급1은 입말과 글말, 문법 관련 내용을 다루며, 중급2는 글 쓰는 방법과 시험 답안 쓰기에 대한 지식을 다룬다. 고급 교재는 글쓰기 윤리와 관련하여 각주 및 참고문헌 달기에 대해 다룬다.

중급1은 주제 문장 쓰기에서 주제문을 중심으로 단락 쓰기, 단락 구성을 통해 글 완성하기의 전체 글을 구성하기 위한 단계적 학습으로 시작한다. 전반적으로 짧은 문장 혹은 짧은 단락을 구성하는 쓰기 과제로 이루어져 있으며, 단원의 첫 페이지의 예시글, 연습 문제의 예시글을 모방하여 과제를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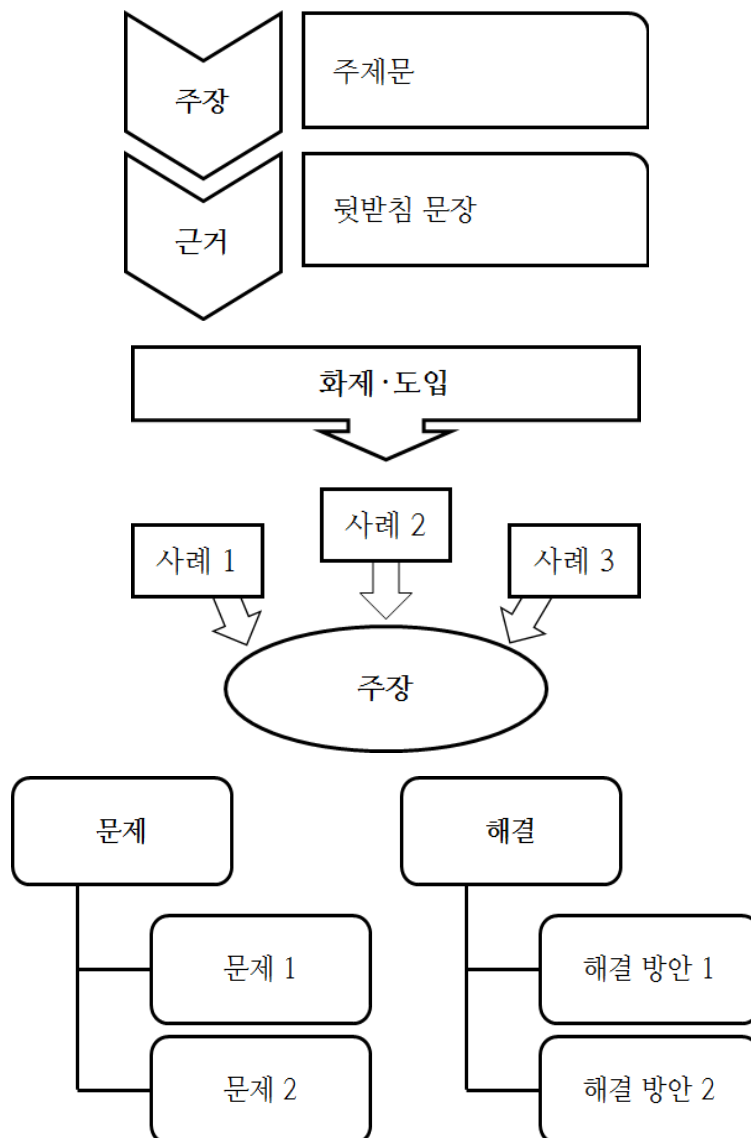
하는 방식으로 쓰기 전략의 학습이 이루어진다. 분석하기, 분류하기, 예시하기, 의견 제시하기, 요약하기의 전략을 예시글과 연습 문제를 통해 학습한다. 대학 학위 과정의 학업 수행을 고려하여 답안 쓰기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적이다. 다른 교재의 구성과 다르게 입말과 글말, 문법과 맞춤법, 띄어쓰기 등 글을 쓰는 규칙에 대한 학습이 교재의 뒷부분에서 이루어진다. 텍스트 미시구조에 해당하는 기초 지식으로서 교재의 앞부분에 위치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인다. 또한, 아직 중급1 단계인 만큼 낮은 어휘와 표현에 대한 정보 단위마다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급2 교재는 글쓰기의 기초 지식으로 벤다이어그램 구성하기, 단락 구성 유형 이해하기, 주제문 찾기에 대한 연습을 바탕으로 문단 쓰기 과제를 수행한다. 이후 텍스트 유형의 이해를 중심으로 설명문, 요약문, 수필, 보고문, 비평문, 논설문에 대하여 구성과 방법에 대해 학습하고 처음, 중간, 끝의 쓰기 절차에 따른 단계별 쓰기 연습으로 구성되어 있다. 단위 말미에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주어진 소재의 하나를 선택하여 개요 작성 및 텍스트 생성하기 과제를 수행한다. 각 유형의 처음-중간-끝 구성과 내용 전개를 위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 텍스트 유형별 쓰기 구성 및 방법으로 제한하지 않고 전략으로서 교수-학습한다면 학습자로 하여금 다양한 주제의 텍스트에 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중급2는 시험 답안 쓰기에 대하여 구체적인 형식과 방법 제공하고, 실제 시험지에 문제를 답안을 작성해보는 실제적인 쓰기 과제를 제시하고 평가 항목을 제시하여 스스로 혹은 동료 학습자의 답안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한 점에서 특징적이다. 다만, 중급2 단계임을 감안하더라도 학술적인 주제에 따른 난이도 있는 어휘 및 표현에 대한 정보 제시가 전혀 없는 점은 아쉽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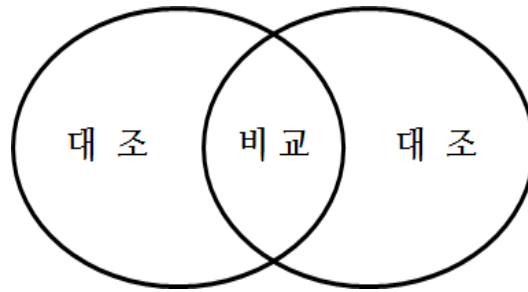
고급 교재는 ‘보고서’ 장르에 대하여 집중적인 쓰기 교육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고서의 구성을 표지, 차례, 본문, 참고문헌으로 구분하고 각 구성에 따른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연구 윤리와 인문, 사회, 예술, 자연의 계열별 주제의 예를 제시하여 보고서 쓰기 전 알아야 할 기초 지식을 제공하고 있다. 개요 작성하기, 서론 쓰기, 논리 전개하기, 비교하기, 인용하기, 조사하기, 결론 쓰기 등에 이르는 과정 중심 교수요목에 따라 구성하고 있다. 각 단위마다 구

체적인 구성에 대하여 도식화를 통해 설명하고 있으며, 각 구성의 단계에 따른 표현의 예를 제공하고 있다. 도식화된 모형을 제공하여 내용 구성에 대한 방법적인 원리를 교수-학습은 학습자로 하여금 보다 체계적으로 글을 구성할 수 있게 한다. 보고서의 본론을 구성하는 방법에 따른 모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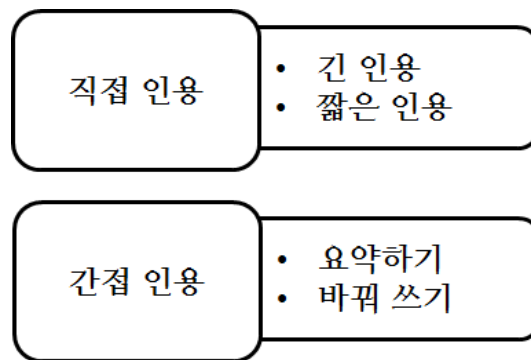
가. 논리 전개하기



나. 비교하기



다. 인용하기



[그림 5] 『대학 강의 수강을 위한 한국어 쓰기 고급』의 본론 구성 예시

대학에서 주로 작성하는 보고서 쓰기의 절차에 따른 쓰기 교육 말고도, 각 주 및 참고문헌 달기, 평가하기에 대한 내용까지 학습 및 연습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평가하기 단원에서는 교사 평가표, 첨삭을 위한 평가표, 자기평가표의 세 가지 평가표를 제시하고 있다. 고급 교재가 보고서 쓰기에 대한 절차적인 지식을 학습할 수 있는 내용인 만큼 교재의 마지막 부분에 학습한 모든 내용과 지식을 활용하여 완결 텍스트를 생성하는 쓰기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 가지 전략에 대하여, 쓰기 절차의 한 단계에 대하여 쓰기 연습을 진행했다면, 모든 쓰기 지식을 동원하여 하나의 텍스트를 생성하는 활동을 통해 대학의 학업 수행을 위한 쓰기 능력을 성공적으로 습득할 수 있다.

서강대학교의 KAP200과정은 3급부터 6급까지 총 네 권의 학문 목적 쓰기 전문 교재를 사용한다. 『서강한국어 학문 목적 과정 쓰기』의 1권과 2권은 대학생들과 관련하여 일상적 주제를 다루고 있다. 1권은 한국 대학의 한 학기 일정을 8가지 주제로 나누어 대학 생활 문화와 관련된 어휘 및 표현에 대해 학습하고 문어체 문장을 정확하게 작성하는 방법을 학습한다. 2권은 대학 생활과 관련된 8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단락 쓰기 방법을 학습한다. 1권은 학습자에게 대학 입학 후의 생활에 대한 실제적이고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어휘와 문법을 학습하고 예문을 통해 문장 구조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을 습득한다. 이에 대한 다양한 연습활동을 통해 정확한 문장 쓰기를 학습한다. 마인드맵 만들기, 문어체 쓰기, 문장 부호 익히기, 개요 짜기, 띄어쓰기, 외래어 표기법 등의 본격적인 글쓰기를 위한 기초 지식을 학습한다. 각 단원별로 일련의 과정을 통해 학습하게 되는데, 먼저 시각자료에 대해 파악하고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 어휘 연습, 문장 쓰기 연습, 관련 주제에 따른 글쓰기의 과정에 따른다.

2권은 학술적 쓰기의 기본 단위인 단락 작성 방법을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 1권과 마찬가지로 단원마다 시각 자료와 질문에 대한 답변 후, 단원 주제의 내용에 대한 지식과 어휘를 학습하고, 단락 작성과 관련한 연습 활동, 쓰기 텍스트 생성에 이르는 과정을 따른다. 읽기 텍스트의 주제문을 찾고 요약하는 연습을 전 단원에 걸쳐 반복적으로 수행한다. 대학의 학업 수행에 있어 중요한 쓰기 전략의 하나인 ‘요약하기’를 중심으로 쓰기 활동을 구성하였다. 2권에서 중요한 것은 단락 구성 방법에 대해 집중적으로 학습한다는 것이다. 주제 문장을 도와주는 문장으로서, 한 단락에 여러 개 있는 ‘도움 문장’ 쓰기의 방법적 원리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주장의 근거 들기[이유]’, ‘정의하기, 특징 설명하기’, ‘비교하기’, ‘조사 결과 설명하기’, ‘주장의 근거들기[인용]’, ‘주장의 근거들기[예시]’를 통해 단락 구성의 방법적 원리를 제공하고 도식화를 통한 연습 활동을 수행하면서 학습자들이 단락 구성의 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단락 구성의 방법적인 원리 교육이 텍스트 차원으로 이어지지 않은 점이 아쉽다. 교재 전반적으로는 주제에 따른 쓰기를 진행하지만 각 단원의 쓰기 과제 수행은 아이디어 이끌어내기, 자료

수집 및 정리하기, 초안 작성하기, 검토하기, 수정 및 최종본 작성하기 절차에 따라 반복된다. 학습자는 각 단원의 과정 중심 쓰기 과제를 통해 글쓰기의 절차를 이해할 수 있다. 1권과 2권에서 다루는 단원별 주제 및 쓰기 과제는 아래와 같다.

[표 20] 『서강한국어 학문 목적 과정 쓰기 1, 2』의 주제 및 쓰기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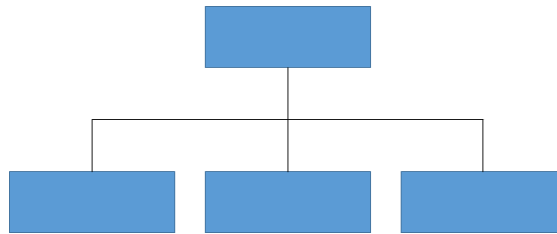
권/단원			주제	쓰기 과제
1권	1	입학	입학식,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자기 소개문 쓰기
	2	수강 신청	수강 신청	발표용 슬라이드 만들기
	3	강의	강의	유학생 인터뷰 기사 쓰기
	4	도서관	도서관의 시설	블로그에 도서관 시설 소개하기
	5	도서 대출	도서 검색 및 대출 방법	독서 감상문 쓰기
	6	캠퍼스	캠퍼스의 시설 및 기관	캠퍼스 시설 안내 책자 만들기
	7	학생 활동	학생 활동의 종류	동아리 신입 회원 모집 포스터
	8	대학 생활의 즐거움	대학의 친목 활동	애틀에 대한 신문 기사 쓰기
2권	1	진로와 전공	나의 진로와 전공에 대하여	
	2	대학 생활	대학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단락 쓰기	
	3	유행	유행을 주제로 주장하는 단락	
	4	온라인 의사소통	인기 있는 블로그나 즐겨하는 블로그를 주제로 설명하는 단락 쓰기	
	5	우리 생활의 변화	우리 생활의 변화를 주제로 비교하는 단락 쓰기	
	6	여가 활용	한국인의 여가 활동 목적 조사의 결과를 설명하는 단락 쓰기	
	7	외국어 공부	외국어 공부의 필요성을 주제로 주장하는 단락 쓰기	
	8	외무 지상주의	외모 지상주의의 원인과 해결책이라는 주제로 주장하는 단락 쓰기	

서강대학교의 KAP200과정의 5급과 6급 수업에서 사용하는 『서강한국어 학문 목적 과정 쓰기』의 3권과 4권은 보다 학술적인 주제의 쓰기 텍스트를 다루고 있다. 3권에서는 기초 지식으로 문형 연습을 제시하고 있으며, 한국어, 심리, 경제, 자연(물리) 등의 전공과목과 연관된 주제를 중심으로 쓰기 교육이 이루어진다. 4권에서는 보고서의 형식과 내용, 작성 절차가 쓰기 전 기초 지식으로 제시되어 있다. 이후, 3권과 마찬가지로 미디어, 윤리, 경영, 생명공학 등의 전공 관련 주제를 중심으로 쓰기 교육이 이루어진다. 3, 4권 모두 단원마다 어휘 학습, 노트 필기, 보고서 쓰기, 시험 답안 쓰기의 과정으로 학습이 진행된다. 어휘 학습은 어휘뿐만 아니라 관련 내용을 다룬 문형 연습까지 이루어져 각 장의 도입 역할을 한다. 실제 대학 강의를 듣고 필기하듯이 동영상 강의를 들으면서 그 내용을 필기하는 단계로 관련 내용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대학 진학 후 강의 수강에 대비하여 필기의 전략적인 지식도 습득할 수 있다. 다음은 보고서 쓰기 단계로 ‘과제 파악하기, 자료 수집하기, 개요 쓰기, 쓰기’의 절차에 따라 쓰기 과제를 수행한다. 3권의 경우, 한 단락 이상의 내용이 주어지고 학습자는 개요에 따라 그 뒷내용을 채워 글을 완성한다. 4권은 개요에 따른 글을 학습자 스스로 완성할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은 시험 답안 쓰기 단계로 두 문제의 논술형 문제를 제공한다. 대학의 실제적인 시험 문제를 쓰기 과제로 제공한 것은 특징적이지만, 학습자가 단원마다 학습한 내용을 ‘평가’하는 항목으로 느낄 수 있다. 마지막 단계인 시험 답안 쓰기를 보다 의미 있는 쓰기 과제로 만들기 위해 학습자가 과제 수행의 과정에 다양한 어휘와 표현, 정보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위 연습 문제를 제공할 수 있다. 제시한 문제에 대하여 보고서 쓰기 단계에서와 마찬가지로 정보를 제공하고 개요를 작성하는 절차를 통해 하나의 텍스트를 완성하는 단계적인 연습 문제를 통해 답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평가가 아닌 연습 목적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 적절하다. 혹은 실제 시험 답안지에 답을 작성할 수 있도록 교재 내에 페이지를 할애했으면 더욱 효과적인 과제가 되었을 것이다.

3권과 4권은 모두 전공과 관련된 주제에 따른 글을 절차에 따라 구성하는 쓰기 교육 방식을 취한다. 쓰기 전략에 대한 설명이 있지만, 내용을 구성하기

위한 방법적 원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제와 관련된 표현 문형의 학습을 통해 글의 완성도를 높이하고자 한다. 다만, 강의 내용을 ‘시각적’으로 나타내는 필기 전략으로 아래와 같은 도식화 구조를 제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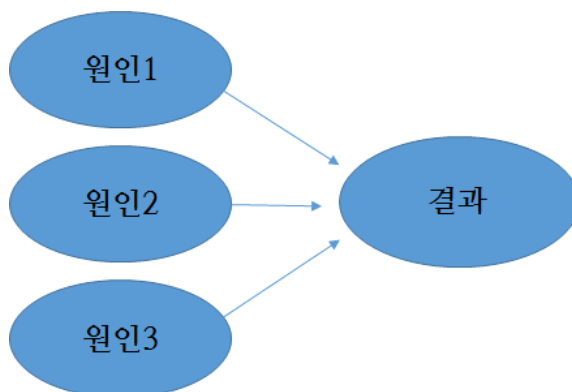
가. 분류하기



나. 문제점과 해결책



다. 원인과 결과



라. 비교·대조

	대상1	대상2
기준 1		
기준 2		

[그림 6] 강의 내용을 시각적으로 나타내는 필기 전략

두 대학 모두 같은 시리즈의 교재임에도 등급에 따라 교수요목을 달리 하여 학습자의 쓰기 학습이 다양한 접근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재를 구성하였다. 연세대학교 고급 단계 교재와 서강대학교 쓰기 3, 4권 교재에서 공통적으로 보고서 장르에 집중하여 교재를 구성한 점이 특징적이다. 두 대학의 교재에서 모두 ‘패턴’과 관련된 내용을 찾을 수 있었다. 연세대학교 고급 단계 교재에서 ‘본론 구성 방법’으로서 ‘논리 전개하기(주장-근거, 예시-주장, 문제-해결), 비교하기, 인용하기, 조사하기’에 따른 구조 모형과 함께 패턴을 제시하고 있었으며, 서강대학교 쓰기 4권에서 강의 내용 ‘필기 전략’으로서 ‘분류하기, 문제점과 해결책, 원인과 결과, 비교·대조’에 대한 구조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본론 구성 방법과 필기 전략 모두 내용 구성의 방법적 원리를 의미하는 패턴과 그 개념이 일치한다. 즉, 두 교재의 고급 단계에 이르러서야 패턴을 활용한 쓰기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3.1.3 학위과정의 학문 목적 한국어 쓰기 교재 분석

학위 과정의 학문 목적 한국어 교재는 각 대학에서 대학의 신입생을 대상으로 학업 수행에 있어 필요한 기능을 교수하기 위한 교양 강의 교재이다. 대부분의 대학에서 대학생에게 필요한 글쓰기에 대한 교육에 중점을 둔 교재를 사용한다. 교양 국어 교재는 일반 목적 한국어 교재에 비해 수록된 텍스트의 양이 많고, 길고 어려운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난이도 있는 텍스트를 분석적으로 읽고 이에 대한 이해도를 측정하기 위해 쓰기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문식력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대학에서의 학문 활동에 있어서 표현의 도구로서 쓰기의 중요성을 짐작할 수 있다. 교양 교과목의 작문 수업 교재를 살펴보

면, 내용 구성은 보통 글쓰기 관련 기초 지식, 글쓰기 과정, 쓰기 활동 및 학술적 텍스트 생산의 내용을 담고 있다. 황인교(2015)는 학위과정의 교양 교과 글쓰기 교재의 내용과 구성에 대한 예를 다음과 같이 표로 제시하였다.

[표 21] 학위과정의 도구교과로서의 한국어 교재 중 글쓰기 교재 예¹⁷⁾

		기초	글쓰기 과정	텍스트 생산		교재 예
내용		구어와 문어 맞춤법 띄어쓰기 원고지, 문장부호	문장 구성, 단락 구성 계획-생성-조 직-초고-퇴고	설명문 보고서 논설문 감상문 자기소개서	요약문 발표문 논문	
구 성	2권	기초적인 내용 및 과정 중심 교재 (‘한국어 글쓰기의 기초’)		주제 및 텍스트 중심 교재 (‘한국어 글쓰기의 실제’)		‘한국어 글쓰기의 기초’, ‘한국어 글쓰기의 실제’(2007)
	1권	글쓰기 관련 기초		주제 중심 교수요목	텍스트 중심 교수요목	‘유학생을 위한 한국어 대학 글쓰기’(2014)

연세대학교의 『글쓰기』는 1부와 2부로 나누어져 있다. 1부는 글쓰기의 이념과 방향 및 그 방법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 글을 효과적으로 구성하기 위한 과정에 대해 학습하고 여러 유형의 글을 다룬다. 2부는 1부에서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 주제에 대하여 한 편의 글을 완성하도록 구성되었다. 즉, 1부는 과정 중심 교수요목, 2부는 주제 중심 교수요목을 따르고 있다. 글쓰기 기초에 해당하는 부분은 글쓰기의 목적과 글쓰기의 주체, 독자 등 주요 요소, 절차와 윤리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글쓰기 과정은 제1장에서 글쓰기의 절차(주제 설정-제재 선택-개요 작성-집필-퇴고, 계획하기-표현하기-검토하기)와 제8장에서 3단 구성(처음-중간-끝, 서론-본론-결론)을 설명하고 있다. 텍스트 생산과 관련하여 1부의 제9장(이력서와 자기 소개서, 감상문, 서

17) 황인교(2015:323).

평, 비평문, 칼럼, 보고서, 기타 여러 유형의 글)과 제10장(보고서, 논문)을 통해 유형에 대한 이해와 글쓰기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2부에서는 제11장에서 제20장까지 ‘대학 문화’, ‘현대 사회와 지식인’, ‘약호의 세계와 문화 읽기’, ‘이야기와 소설의 역사’, ‘은유의 세계’, ‘다시 읽기로서 패러디’, ‘일상 속의 권력’, ‘새로운 매체와 의사소통’, ‘탈민족 시대와 민족어’, ‘공간 분석과 현장 기술’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다. 전공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의 텍스트를 접하고 관련 분야의 다른 주제로 글쓰기 과제를 수행한다.

설명의 중간 중간에 학습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예문과 연습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쓰기 활동을 분석한 결과, 1부에서는 제시된 예시문과 관련한 문제를 푸는 것으로 본문 내용에 대한 이해를 확인하는 활동이 주를 이루었다. 2부에서는 다양한 주제의 텍스트를 다루는 만큼 어떠한 주제에 대한 글을 완성하는 활동이 주를 이루었다. 한 장당 평균적으로 10개 정도의 연습 문제가 제시되어 있으나, ‘패턴’, 즉 논지 전개 방법과 관련한 교육 내용은 명시적으로 설명하지 않는다. 2부의 각 장마다 연습 문제를 통해 비판적인 글쓰기, 동의하거나 반박하는 글쓰기, 약호 읽고 쓰기, 비교하기, 분석하기의 쓰기 전략을 활용한 쓰기 과제를 제시하지만 쓰기 전략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나타나지 않았다. 연습 문제의 많은 예시 텍스트를 모방하여 쓰는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하였다.

서강대학교의 『읽기와 쓰기』는 3부로 나누어져 있다. 제1부는 ‘어휘·문장·문단’, 제2부는 ‘요약·확장’, 제3부는 ‘글의 구성·전개’라는 제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과정 중심의 구성을 따르고 있다. 글쓰기 기초 지식으로 사고력과 이를 글로써 표현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구술언어와 기술언어의 차이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또한 특히 주의해야 할 어휘 및 표현에 대해 연습하고 정확한 사용을 강조하였다. 문장쓰기와 문단쓰기 연습활동까지 제1부에서 다루고 있다. 제2부는 요약하기와 확장하기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쓰기 과제 수행을 통해 세부적인 전략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3부는 ‘서두 쓰기, 사례 들기, 나열식 쓰기, 문제해결형 글쓰기, 반론형 글쓰기, 결론 쓰기’로 구성되어 있다. 서두는 구체적으로 관심 끌기, 맥락 설명하기(문제로 접근하기), 문제제기의 순으로 이루어진다고 제시한다. ‘사례 들기, 나열

식 쓰기, 문제해결형 글쓰기, 반론형 글쓰기’는 본론의 내용을 구성하는 방법으로 각각 구체적인 설명과 예시 및 연습 문제를 포함한다.

글쓰기 과정은 제3부의 ‘서두 쓰기, 사례 들기, 나열식 쓰기, 문제해결형 글쓰기, 반론형 글쓰기, 결론쓰기’의 구성으로 보아, 서론-본론-결론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 텍스트 유형에 따른 글의 완성보다는 글쓰기 과정에 따른 단계별로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의 연습이 주를 이루었다. 제2부의 요약하기에 대하여 주제문을 파악하여 짧은 글로 요약하기, 핵심어를 찾아 항목화하기, 문단의 전개 방식 파악하기, 글의 구조도 그리기 등의 쓰기 활동으로 구성하였다. 확장하기에 대해서는 묘사하기, 서사로 표현하기, 설명(정의, 비교·대조, 분류·분석 등)하기, 논증(주장·전제·근거) 파악하기의 쓰기 활동으로 구성하였다. 연습 문제마다 예시글을 제공하여 본문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응용할 수 있도록 쓰기 과제를 구성하였다. 제3부에서는 쓰기 과정의 단계별로 연습할 수 있도록 쓰기 과제를 구성하였으나, 전략을 중점적으로 연습할 뿐, 서론-본론-결론 구성에 유의하여 전체 텍스트를 생성하는 쓰기 과제는 없었다.

문단을 유형화하는 개념으로서 ‘내용 전개 방식’을 언급하였다. 이러한 유형을 익히는 것은 문단의 구조를 읽는 데 유용하며, 주제문을 확장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하였다. 내용 전개 방식에는 ‘묘사·서사·비교·대조·예시·구분·분류·분석·인과·지정·정의·과정·유추’를 제시하였다. ‘내용 전개 방식’으로서 ‘패턴’의 개념을 제시하고 있으나, 논지 전개 방식으로 제시한 모든 전개 방식을 구체적인 설명이 없고 관련 내용에 대한 연습 문제 풀이가 없는 것으로 보아, 중요하게 다루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제3부에서 본론에 해당하는 과정에 ‘사례 들기, 나열식 쓰기, 문제해결형 글쓰기, 반론형 글쓰기’에 대한 설명과 예시글, 연습문제를 제시하고 있다. 본론의 내용을 구성 및 전개하는 방법적 원리로서의 ‘패턴’과 같다. 교재에서는 이러한 내용 구성 원리를 하나의 상위 개념으로 묶어 설명하고 있지 않다. 예시 텍스트 제시와 연습 문제를 통한 쓰기 과제 수행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짧은 글 위주이며, 학습자가 자신의 의견에 따라 내용을 구성하는 데에 있어서 내용 구성 원리를 선택·적용할 수 없다는 점이 아쉽다.

학위 과정의 교양 교재 분석 결과, 연세대학교 교재에서는 패턴 개념에 대

한 명시적인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서강대학교 교재에서는 제2부와 제3부에서 패턴과 유사한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제2부에서는 ‘확장하기’에서 내용 확장을 위한 방법적 원리로 ‘묘사하기, 서사로 표현하기, 설명(정의, 비교·대조, 분류·분석 등)하기, 논증(주장·전제·근거) 파악하기’를 제시하고 있으며, 제3부에서는 패턴으로서 ‘묘사·서사·비교·대조·예시·구분·분류·분석·인과·지정·정의·과정·유추’의 ‘내용 전개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교재 분석 및 교육과정 분석 결과, 가장 높은 등급 교재의 내용 구성 원리로서 패턴을 활용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본격적인 학술적 텍스트를 다루고 학습하는 단계는 4급 이후로, 학술적 텍스트를 쓰는 과정이나 전략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대학 입학 기준에 맞춰 고급 단계 수업 이수율이 떨어지는 현실적 문제로 4급 이상의 교육과정의 이수율이 낮다는 점 역시 한계이다. 진학 전 KAP 과정으로는 복잡하고 난이도 있는 텍스트를 많이 다룰 수 없다. 또한 패턴의 개념 이해와 구조 모형의 활용이 고난이도의 쓰기 능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연세대학교와 서강대학교의 패턴 제시는 모두 가장 높은 단계의 교재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학위 과정의 교양 강의에서는 교재 말미까지 강의를 통해 패턴을 학습할 수 있지만, 어학 과정에서는 학습자가 고급 단계까지 의지를 가지고 이수하지 않으면 패턴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습할 수 없게 된다.

대체적으로 논리적인 내용 구성을 위하여 문장 쓰기와 단락 쓰기를 강조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내용 구성 원리에 대한 교수-학습이 비중 있게 다루어져야 한다. 중급 단계에서부터 구체적인 설명을 통해 패턴을 교수-학습하고 단락 단위의 짧은 글쓰기 활동을 통해 충분한 연습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구조 모형을 활용하여 다양한 주제에 쉽게 응용할 수 있도록 한다. 앞으로의 쓰기 교육에서 학습자의 텍스트의 내용 생성 및 구성 원리 학습과 관련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다양한 교육 연구가 필요하다.

3.2 한국어 쓰기 교육과 패턴의 활용

내용 생성 원리 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한 기존 연구로 박기영(2008), 장향

실(2010), 신필여(2015), 임태운(2015), 김미영(2016) 등이 있다. 박기영(2008)에서는 외국인 학습자의 단락 쓰기에 나타난 문제점을 통일성과 긴밀성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통일성의 측면에서는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이 일관된 주제를 보여주지 못한다는 점, 중심 문장 앞에 너무 길거나 포괄적인 뒷받침 문장이 나타난다는 점을 외국인 학습자의 글쓰기에 나타나는 문제점으로 들었다. 긴밀성의 측면에서는 접속어의 사용이 부자연스럽다는 점, 문장들의 논리적 연결 관계가 적절하지 못하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들었다. 따라서 단락의 개념을 익히기 위한 연습 활동 외에 ‘단락 구성의 원리/전략’에 대한 연습 활동을 단계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장향실(2010)은 ‘문단 구분, 문장 연결의 논리성, 접속어 등의 담화 표시 사용, 문단 간의 연결’의 평가 항목을 적용하여 학생들의 문단 쓰기 실태를 조사하였는데, 외국인 학습자의 경우 ‘문단 나누기’와 ‘담화 표시의 사용’보다는 문장들 간의 논리적 연결 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

신필여(2015)는 담화 기능을 고려한 논리적 배열 방법, 주제문과 뒷받침 문장과의 관련성 파악, 접속 부사와 지시어 사용 방법 등에 대하여 외국인을 위한 단락 쓰기 교육을 통한 교수-학습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단락의 구성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문장들을 조직하고 배열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을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임태운(2015)은 학부 및 대학원 진학을 목표로 하는 학습자의 논증형 텍스트 쓰기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텍스트 구조 분석을 실시하였다. 거시 구조 분석에서 단락 차원에서 텍스트 분석을 진행하였는데, 문장과 문장의 연결, 단락 단위 전개 과정, 단락 간의 논리성을 기준으로 텍스트를 분석하였다. 텍스트 분석의 결과로 문장 차원보다는 단락, 글의 구성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밝혀내고 관련 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미영(2016)은 중급 한국어 학습자의 텍스트에 나타나는 내용 구조의 양상과 텍스트 구성에서 나타나는 오류를 분석하여 글쓰기 능력 실태를 살펴보았다. 중급 학습자는 서론, 본론, 결론 중 서론을 가장 능숙하게 서술한 반면, 본론과 결론의 내용 구성에 있어서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론은 보다 단락의 길이가 길며 제시된 자료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첨가하여 논리적인 면

을 보완해야 한다. 특히 중급 학습자들은 서론-본론-결론 모두에서 주어진 정보 외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성하고 구성하는 능력은 부족하였다.

외국인 유학생들은 시험 답안, 감상문, 발표문, 보고서, 논문 등의 학업 활동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한국어 ‘쓰기’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한다. 구어 중심의 일반적인 주제를 다루던 단계에서 문어 중심의 낯설고 어려운 전공 지식과 전문 지식을 다루는 쓰기를 수행해야 하는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큰 어려움을 느낀다. 한국어 쓰기 교육은 더 이상 단순히 글을 쓸 줄 아는 정도의 기능적인 작문 교육에 그쳐서는 안 된다. 학습자는 쓰기 교수-학습을 통하여 스스로 의미를 구성하고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학습자는 자신의 생각·견해·주장을 논리적으로 표현하거나 전문적인 내용을 글로 표현하는 기술, 즉, 논지 전개 방법에 대한 교수-학습이 필요하다.

외국인 유학생들은 저마다 다양한 언어 문화권에서 한국의 대학으로 모인다. 이들은 기존의 모국어 쓰기 교육에서 이루어진 선형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한국의 대학에서 한국어로 쓰기의 장르 지식과 과정 지식 등을 새로이 학습하게 되는데, 이는 학습자의 모국어 교육에서 이미 학습한 바 있는 쓰기 지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한국어 쓰기 교육의 내용과 학습자의 모국어 쓰기 교육의 내용을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패턴’이다. 주제에 대한 학습자의 아이디어를 유형화하여 내용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패턴’을 활용하는 훈련을 통해, 언어 표현 측면에서 유창한 학술적 쓰기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다음 장에서 논의할 몇 가지의 논지 전개 원리, 즉 ‘패턴’의 모형을 제시함으로써 학습자는 모국어 쓰기 교육의 학습 경험과 연결할 수 있다. 다양한 언어 문화권에서 통용되는 보편적인 내용 생성 원리로서 패턴 모형을 통해 학습자의 모국어 교육으로부터 이어지는 스키마 형성이 가능하다. 이러한 스키마 형성을 통해 학습자는 한국어 쓰기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 자신의 모국어로서 쓰기 경험을 활용하여 한국어 쓰기 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통합적 교수 이론의 적용으로 장르 지식과 쓰기 과정에 대한 통합적인 학습이 가능하다. 패턴 중심 교육은 특정 텍스트 유형의 논지 전개 방식의 전형을 이해하고 다양한 주제에 대한 글을 쓸 수 있도록 하며, 나아가 텍스트 유

형에 대한 이해를 돕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교수-학습 방법이다. 다양한 주제의 학술적 텍스트를 다룰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자기의 관점을 반영하여 글을 쓸 수 있다. 논지 전개 과정에서 전략적으로 패턴을 활용하여 다양한 맥락의 주제를 다룬다면 보다 단기간 내에 합리적인 교수-학습이 가능할 것이다. 패턴을 적용한 쓰기 연습을 통해 글의 내용을 형성하는 시간이 줄어들면 서론-본론-결론 전체를 구성하는 쓰기의 시간이 줄어든다. 즉, 내용 형성이 수월해지면서 쓰기 능력이 향상될 수 있다. 쓰기 능력 향상으로 쓰기의 속도가 빨라지면 더 다양하고 전문적인 텍스트를 다룰 수 있다. 또한, 학습자의 쓰기에 대한 두려움이 점차적으로 줄어들 것을 기대할 수 있다.

학습자는 글을 구성하는 방식에 대하여 주제문을 어디에 위치시킬 것인지 논증의 방법 중 한 가지 방식을 선택하게 된다. 이어서 패턴 모형을 제시하여 글의 내용을 생성하는 구조를 선택하게 한다. 학습자는 교사가 제시한 패턴 모형에 따른 내용을 자연스럽게 생성 가능하다. 구조를 형성하는 동시에 콘텐츠를 생성하게 되고 패턴의 하나를 선택하여 해당 모형에 맞춰 아이디어를 조직 및 배열한다. 이 구조에 따른 내용 생성은 쉽게 가능해진다. 주제와 관련 정보 패턴 모형의 제시를 통해 학습자는 즉각적으로 아이디어를 형성한다. 그 중 필요한 아이디어를 선택하여 패턴 모형과 유사하게 배열한다. 적절한 난이도의 어휘 및 표현을 사용하여 내용을 형성하고 본론을 구성한다. 단락 간 연결에 유의하여 텍스트를 형성하게 된다. 논지 전개 원리만 이해하고 학습하면 전체 텍스트 구성은 쉽고 자연스럽게 가능해진다.

패턴을 활용한 쓰기 교육은 교수자 주도의 작문 수업이 아닌 학습자 중심 교육을 가능하게 한다. 패턴을 활용하여 내용을 전개하기에 앞서 학습자는 주제와 관련한 몇 가지 아이디어를 생성한다. 이 과정은 학습자의 배경지식이나 사고력, 창의력 등이 중요하게 작용하여 학습자가 스스로의 작문 활동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 이때, 학습자 개인의 지식 활용을 통한 인지적 글 쓰기에 그치지 않고 담화공동체를 이해하기 위한 활동으로 동료와의 협의 과정을 가질 수 있다. 동료와의 상호교류를 통해 의미를 구성하고 아이디어를 유형화한다. 학습자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학습자는 이미 기초적인 작문 원리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동료 학습자와의 협동 학

습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을 수 있다

본문 구성에 익숙해지고 논지 전개 방법에 대한 전략적 기술을 익히면 에세이 전체적인 완성도가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본문의 내용 전개에 따라 에세이의 세부 유형이 정해지는 만큼 본문의 내용을 어떻게 서술하고 배치하는가는 글의 성격을 정의하는 중요한 작업이다. 학습자는 패턴을 익히고 패턴에 따라 아이디어와 견해를 조합하여 한 단락 한 단락 구성하게 된다. 이는 곧 글쓰기의 근본적인 쓰기 기술을 익히는 것으로, 논지 전개 방식에 대한 몇 가지 패턴을 통해 자신의 견해와 아이디어를 보다 효과적이고 합리적으로 글을 전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의 생각 또한 상대방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구조와 패턴을 이해하면 작문에 대한 자신감을 얻고 학습자 작문 텍스트의 유창성이 증진된다. 이는 학습태도의 긍정적인 변화로 이어질 것이다.

IV. 패턴을 활용한 에세이 쓰기 교수-학습 방안

대학에 진학한 후 학술적·전문적·공식적인 긴 글을 다루게 되면서 학습자들에게 텍스트 유형에 대한 이해와 학습이 요구된다. 학습자들은 제시된 텍스트의 특징을 이해하고 쓰기 과정에 맞게 글을 모방하여 구성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부작용으로 주어진 주제에 대한 스스로의 글을 틀에 박힌 구성으로 모방쓰기와 다름없이 작성하는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 학습자들은 자신의 견해를 바탕으로 논리적·체계적으로 내용을 구성하는 것에서 어려움을 느낀다. 학습자들이 이해하고 있는 장르 지식, 텍스트 유형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자신의 아이디어를 다양한 주제와 맥락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텍스트 논지 전개 방법적 원리에 대한 교수-학습이 필요하다.

II장과 III장에서 살펴본 바를 바탕으로 IV장에서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에세이 쓰기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논지 전개 방법으로서의 ‘패턴’을 활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전개하는 쓰기 교수 방안을 새로이 제안하고자 한다.

4.1 에세이 쓰기에 유용한 패턴 학습

거시 구조의 세부 유형, 즉 내용 구성 방법으로 Meyer & Freedle(1984)을 비롯한 Carrell(1984) 등은 기존의 분류를 바탕으로 기술집합 구조, 원인 결과 구조, 문제-해결 구조, 비교/대조 구조의 네 가지로 분류¹⁸⁾하고 있다. 김미경(2007)에서는 거시 구조를 ‘원인-결과 구조’, ‘문제-해결 구조’, ‘비교-대조 구조’로 분류하였다. Meyer & Freedle(1984)의 네 가지 분류에서 집합 구조에 대하여는 단순 나열의 성격이 강해 의미 관계가 긴밀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제외하였다. 도형초(2009)에서는 Meyer & Freedle(1984) 등의 연구와 같은 분류 관점을 취한다고 밝히며, ‘집합’, ‘인과’, ‘비교-대조’, ‘문제-해결’의 네 가지 유형을 설정하여 논설문의 구조적 특성을 설명하였다.

18) 김미경(2007)에서 재인용.

기술집합 구조, 원인결과 구조, 문제-해결 구조, 비교/대조 구조로 구분한 Meyer & Freedle(1984) 등의 연구에서 ‘집합 구조’가 가지는 나열, 병렬, 포함 등의 성격을 분리하여 ‘서술 패턴(정의, 묘사, 열거)’, ‘사례 제시 및 인용’, ‘구분·유형화’ 패턴으로 각각 분류하였다. 또한, ‘논쟁과 설득’ 패턴을 추가하여 주장과 근거의 논리적 관계에 집중하여 내용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Judith Nadell(2009)의 아홉 가지 패턴 분류, ‘서술(Description)’, ‘묘사(Narration)’, ‘예시(Exemplification)’, ‘구분-유형화(Division-classification)’, ‘과정 분석(Process analysis)’, ‘비교-대조(Comparison-contrast)’, ‘원인-영향 Cause-effect)’, ‘정의(Definition)’, ‘논쟁-설득(Argumentation-persuasion)’을 참고하여 일곱 가지 유형의 패턴 분류로 학습자가 논지 전개에 있어서 전략적인 방법을 쉽게 떠올리고 기술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텍스트 내의 의미 관계에 따라 논지 전개의 방법적인 원리로서의 ‘패턴’을 ‘서술 패턴’, ‘사례 제시 및 인용 패턴’, ‘구분·유형화 패턴’, ‘비교·대조 패턴’, ‘원인과 영향 패턴’, ‘문제 분석 및 해결책 제시 패턴’, ‘논쟁과 설득 패턴’의 일곱 가지로 유형화하였다.

‘서술 패턴’은 정의와 묘사, 열거를 이용해 주제 혹은 사건에 대해 서술한다. 중심 문장을 강조하기 위해 시간적 순서로 사건을 배열하거나 필자의 임의대로 배열하여 서술할 수 있다. 정의하기는 어떤 용어나 사물의 뜻을 명확히 밝혀 규정하는 것이다. 묘사하기는 어떤 대상이나 사물, 현상 등에 대해 객관적, 주관적으로 서술하는 방법이다. 특히 주관적인 묘사는 독자에게 필자가 보고 느낀 것을 생생하게 전달하여 정서적인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한다. 즉, 화제에 대한 하나의 특성, 종류, 배경을 제시하여 그 화제에 관하여 더 많은 세부 정보를 제시하는 구조로 대등한 의미를 지니면서 나열된 선행요소와 후행요소를 연결하는 의미 관계 구조로 관계의 정도가 약하고 단순하다.

‘사례 제시 및 인용 패턴’은 제기된 문제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례나 수치

등을 제시하거나 전문가의 견해나 이론을 인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러한 방법을 이용하여 내용을 전개하면 글의 객관적·논리적인 타당성을 높일 수 있다. 다양한 예시를 통해 가설을 세우고 주장의 정당화를 위해 근거를 밝히는 귀납적인 추론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구분·유형화 패턴’에서 분류와 구분은 사실상 유사 의미로 사용한다. 구분은 복잡한 현상이나 사건을 개별적인 요소나 성질 등으로 나눈 후 그것이 갖는 의미를 제시하는 것이다. 유형화는 단순히 기준에 따라 대상을 나누는 것뿐만이 아니다. 분류 대상의 상·하위의 개념을 제시하고 그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한다.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이는 전략이지만 전문적인 내용을 분류하고 체계를 갖추는 것에 대해 사고능력과 언어적 한계를 느낄 수 있다.

‘비교·대조 패턴’은 인과성에 어느 정도 바탕을 두고 있는 다른 패턴들과 달리 특정한 사실과 사실, 혹은 사례와 사례 등을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공통점(비교)과 차이점(대조)을 살펴봄으로써 논지 전개의 설득력을 높이는 방법이다. 비교·대조를 통해 대상의 효율성과 동시에 모순점을 찾아낼 수 있어서 상황에 대한 판단 혹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전략이다. 일상생활에서도 흔히 사용하는 패턴으로 의미 관계가 대응하는 하나의 쌍을 이룬다. 다음의 제시된 예를 통해 비교·대조 패턴의 특징을 파악하여 쓰기를 진행할 때 본문의 내용을 구성할 수 있다.

‘원인과 영향 패턴’은 제기된 문제에 대하여 발생 원인과 그로 인한 영향에 대한 인과 관계 내용을 기술하는 것이다. 원인과 영향은 시간적 전후 관계뿐만 아니라 논리적인 관련성을 가진다. 해당 문제에 대하여 분석적으로 원인에 대해 알아보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를 나열한다. 원인과 결과, 전제와 검증, 조건과 결과 등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을 자신의 주장과 연결하여 타당성을 높일 수 있다. 필자의 주장을 결과로 설정하고 뒷받침 근거를 원인으로 내용을 구성할 수 있다.

‘문제 분석 및 해결책 제시 패턴’은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방법이다. 문제에 대한 분석으로 자신의 견해를 통해 논리적으로 파악하여 독자에게 인식시킨다. 이어서, 이에 대한 실천 가능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한다. 추가적으로 적절한 사례를 예로 들어 근거로 제시하거나, 정책에 근거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설득력 있는 글을 완성할 수 있다. 원인과 결과의 인과 관계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문제점’과 ‘해결책’의 개념에서 인과적 요소를 지니지만 문제와 해결 사이에 반드시 특정 내용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원인결과 구조를 능가하는 다층적 구조이다.

‘논쟁과 설득 패턴’에서 논증이란 필자가 다른 의견을 가진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 자신의 주장을 제시하고 근거를 통해 증명하는 것이다. 설득은 주로 에세이 쓰기의 전반적인 목적이 된다. 필자가 에세이로서 독자에게 원하는 성과를 얻어내기 위한 적극적인 의사소통 행위이다. 효과적인 설득을 위해 독자의 나이, 관심사, 가치관 등에 대해 조사하거나 합리적인 근거를 적절한 논증 방법을 통해 제시할 수 있다.

내용 구성의 방법적인 원리로서의 ‘패턴’에 대하여, ‘서술 패턴’, ‘사례 제시 및 인용 패턴’, ‘구분·유형화 패턴’, ‘비교·대조 패턴’, ‘원인과 영향 패턴’, ‘문제 분석 및 해결책 제시 패턴’, ‘논쟁과 설득 패턴’, 일곱 가지를 설정하였다. 교수-학습의 상황에서 패턴 모형을 활용하여 주제에 따른 학습자의 아이디어를 체계적으로 배열하고 글로 옮겨 쓸 수 있도록 한다. 텍스트 구성뿐만 아니라 논지 전개 방법에 대한 원리를 이해함으로써 외국인 유학생의 쓰기에 대한 두려움을 해결하고 유학생 텍스트의 유창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내용 구성의 방법적인 원리로서 패턴을 활용한 구체적인 에세이 쓰기 교수-학습 방안을 다음에서 제안하고자 한다.

4.2 에세이 쓰기 교수-학습 방안

자신의 생각·의견을 주장하는 행위는 학습자의 학교생활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도 말로써, 글로써 끊임없이 행해지고 있다. 주장은 학술적 상황에서 아주 중요한 기능으로 작용한다. 발표하기, 질문하기, 과제 수행하기 등 학습의 거의 모든 과정에서 주장을 하게 된다. 대학에서의 에세이 쓰기는 필자 자신의 견해를 주장하는 내용을 기본으로 한다. 학습자가 학업을 수행하는 데에 있어 학술적인 주제, 어휘, 표현 등을 활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현실적인 쓰기 방법이 필요하다. 학습자는 에세이를 통하여 자신의 의견·생각(주장)을 논리적·체계적으로 전개하여 독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패턴은 필자의 주장을 전달하기 위해 보다 효과적이고 논리적이며 체계적으로 내용을 전개하기 위한 방법적 원리이다. 패턴은 사고의 틀, 내용 생성의 틀, 구조화의 틀로서, 학습자로 하여금 길고 복잡한 글을 쓰는 데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사고와 표현 능력의 향상을 통해 학술적이고 전문적인 영역의 글쓰기 능력을 갖추 수 있도록 한다. 방법적인 원리로써 내용 구성 및 전개를 돕는 ‘패턴’에 대하여, ‘서술 패턴’, ‘사례 제시 및 인용 패턴’, ‘구분·유형화 패턴’, ‘비교·대조 패턴’, ‘원인과 영향 패턴’, ‘문제 분석 및 해결책 제시 패턴’, ‘논쟁과 설득 패턴’을 제시하였다. 학습자는 각각의 패턴에 대해 이해하고, 이를 활용하여 본문의 논지 전개의 원리로 사용할 수 있다. 한 단락에 하나의 패턴 혹은 하나의 글에 일관된 하나의 패턴을 사용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의 쓰기의 목적, 내용에 따라 하나 혹은 여러 개의 패턴을 전략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일반적으로 쓰기 과정은 쓰기 전 단계, 쓰기 단계, 쓴 후 단계의 3단계로 구성한다. 하지만, 글의 성격이나 학자에 따라 다양한 단계화 설정이 가능하다. 박미숙·방현화(2014)가 제시한 표를 재구성하여 여러 학자들이 정리한 글 쓰기 과정을 다음과 같이 표로 제시하였다.

[표 28] 학자·교재별 글쓰기과정¹⁹⁾

구 분	글쓰기 단계
Flower & Hayes	계획하기, 변환하기, 검토하기, 조정하기
Hillerich(1985)	쓰기 전(구상하기), 쓰기, 기능습득, 편집하기, 출판하기, 평가하기
Calkins(1987)	리허설, 초고쓰기, 교정하기, 편집하기
Huff, Kline(1987)	쓰기 전 단계, 쓰기 단계, 고쳐쓰기 단계
박영목(1994)	계획하기(아이디어생산과정), 작성하기(텍스트의 생산과정), 재고하기(고쳐쓰기 과정)
염창권(1996)	도입, 전개(예비쓰기, 초고쓰기, 재고하기), 정착
박수자(1998)	계획하기, 초고쓰기, 표현하기, 재고하기, 수정평가 작품화하기
원진숙(2005)	도입, 전개(쓰기 전 단계, 아이디어 생성하기, 아이디어 조직하기, 연구 계획 발표하기, 초고쓰기), 정리(공유하기 및 평가하기, 고쳐쓰기)
『Patterns of Exposition』 (2010)	Planning, Drafting, Revising
『College Writing Resources』 (2007)	Prewriting: Preparing to Write, Drafting: Writing Rough Draft, Revision: Making Changes, Editing: Checking for Correctness
『Writing Academic English, Fourth Edition』 (1991)	Prewiting(Choosing and Narrowing a Topic, Brainstorming), Planning(Making Sublists, Writing the Topic Sentences, Outlining), Writing and Revising Drafts(Writing the First Rough Draft, Revising Content and Organization, Proofreading the Second Draft, Writing the Final Copy)
『Strategy and	Prewriting: Generating Ideas, Composing: Developing an

Structure』 (2008)	Effective Draft Essay, Revising:Refining Your Writing
사고와 표현 교육 과정 교재편찬위원회 (2015)	쓰기 전에, 조직하기, 초고쓰기, 고쳐쓰기, 쓰고 나서

패턴을 활용한 에세이 쓰기 역시 쓰기의 과정을 중요시한다. 과정 중심 교수요목과 마찬가지로 쓰기의 전반적인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구성주의 패러다임에 따른 과정 중심 교수요목과는 초점의 차이가 있다. 패턴을 활용한 쓰기 교육은 학습자의 아이디어 생성 및 조직의 과정에서 창의적 의미 구성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패턴 활용의 과정에서 ‘무엇’을 쓸 것인가에 대한 쓰기 활동이 이루어진다. 이는 쓰기 과정 중 ‘조직하기’ 단계를 통해 중점적으로 이루어지며, 패턴을 활용한 쓰기 교육에서 바로 이 ‘조직하기’ 단계를 가장 중요하게 다룸으로써 논지 전개 방법에 대한 이해와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이 연구에서는 위의 표를 참고하여 쓰기 단계를 구성하되, 아이디어를 조직하는 단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여 ‘쓰기 전 단계, 조직하기 단계, 쓰기 단계, 고쳐쓰기 단계’의 4 단계로 구성하였다. 각 단계별로 학습 상황에서 학습자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4.1.1 쓰기 전 단계

글을 쓰기 위해서 미리 자신이 쓰고자 하는 글의 목적과 형식과 내용에 대해 계획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는 글을 쓰기 위한 준비 단계로, 초고를 쓰기 위한 개요 조직하기 전까지의 모든 활동을 포함한다. 이 단계에서는 글 쓰기 과제의 조건을 분석한다든가 글의 목적을 정확히 인지하고, 글의 주제를 선정하고, 스키마를 형성하고, 배경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아이디어를 생성하는 등의 준비 작업이 수행된다. 이 준비 작업이 철저할수록 학습자의 글쓰

19) 박미숙·방현화(2014:71)를 재구성.

기 자체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줄일 수 있으며 수준 높은 글을 완성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쓰기 능력 향상을 위해서 본격적인 글쓰기 단계만큼이나 중요한 단계이다. 최대한 다양한 도구와 매체, 방식을 사용한 포괄적인 수업을 진행하도록 한다. 개인의 사고를 확장시켜 아이디어를 생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다. 먼저, 주제 선정을 위한 자료 찾기 활동으로 책, 신문 등을 읽거나 교사가 제공하는 읽기 자료,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다. 적당한 시간을 가진 후, 학습자는 자신이 찾은 몇 가지 화제에 대해 동료 학습자와 대화를 통해 교류하거나 발표할 수 있다. 토론, 토의 등 학습자의 참여를 유발하는 활동을 통해 자신이 읽기 자료로부터 얻은 내용을 동료 학습자와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동료 학습자와 의견을 나누는 과정을 통해 학습자들은 유용한 정보를 교환하고 다양한 관점을 공유할 수 있다. 자신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아이디어를 얻고, 자신의 아이디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창의적인 사고 능력의 확장과 통합 학습의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모범 텍스트를 분석하여 글의 목적 유추하기, 필자의 주장과 이유, 근거 찾기, 독자 파악하기, 논지 전개 패턴 찾기 등의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모범 텍스트 선정에 있어서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하되 너무 쉬운 텍스트는 피하도록 한다. 학습자들은 모두 학문 수학을 목적으로 대학에 재학 중이며, 전공 학문을 수학하기 위한 작문 교육을 수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전공 강의의 환경과 같이 공식적·전문적 용어가 드러나는 글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먼저, 한 단락의 짧은 모범 텍스트를 분석한다. 다음으로, 여러 단락으로 구성된 모범 텍스트를 분석한다. 학습자는 각 단락별로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을 찾고, 필자가 자신의 견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취한 논지 전개 방법을 분석한다. 찾은 내용을 동료 학습자와 공유하고 모범 텍스트의 논리적인 내용 구성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분석 및 토의해 보는 시간을 가진다.

모범 텍스트 분석 활동의 예시로 다음의 모범 텍스트에 대하여 필자의 주장과 근거를 찾고, 글의 목적과 논리적인 내용 전개를 위해 사용한 전략을 찾아보았다.

우리가 한글을 받들고 존중해야 할 곳은 바로 교육 현장이나 공익을 앞세우는 곳에서다. 역사적 문화재 앞에서 문자 ‘한글’에 매몰되어 역사적 한자를 외래어로 취급하여 지나칠 정도로 시비를 거는 건 너무도 배타적이다. 서구의 학문적, 문화적 전통이 라틴어와 무관하지 않듯이 우리의 문화적 전통 역시 한자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그 한자는 의사소통의 도구로만 이해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 우리 문화와 함께 숨 쉬었던 문화적 상징체계이다. 그것은 문화를 담고 문화를 전달하고, 문화 그 자체였던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광화문의 현판 ‘光化門’을 문자로만 봐 서는 안 된다. 따라서 광화문 현판은 한글 ‘광화문’에서 한자 ‘光化門’으로 교체되는 것이 마땅하다.

- 이상혁, ‘광화문’ 연가와 ‘光化門’ 연가²⁰⁾

먼저, 한 단락으로 이루어진 짧은 텍스트에 대해 분석한다. 위 모범 텍스트의 중심 문장, 즉 필자의 주된 주장은 “광화문 현판은 한글 ‘광화문’에서 한자 ‘光化門’으로 교체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문장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뒷받침 문장, 즉 이와 같은 주장을 하는 이유는 “그 한자는 의사소통의 도구로만 이해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 우리 문화와 함께 숨 쉬었던 문화적 상징체계이다.”라는 문장으로 파악할 수 있다. 필자는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하여 텍스트를 구성하였으며, 논리적으로 내용을 구성하기 위해 자신의 주장에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책은 일단 글로 되어있기 때문에 더 자세하고 생동감 있는 표현이 가능하다. 현실에 존재하지 않아도 오로지 작가의 상상력만으로 글에 담아내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섬세하고 자세한 묘사를 통해 독자는 상상력을 키울 수 있고 생각의 범위를 더 넓힐 수 있다. 그리고 책은 휴대가 쉽기 때문에 언제든지 휴식 시간이나 이동 시간을 이용해 읽을 수 있으므로 자투리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다. 또한 독해 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고 책의 종류에 따라 조금씩은 다르지만 지식도 쌓을 수 있다.

하지만 책을 읽으면서 상상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다. 경험해보지 않았거나 현실감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으면 책의 묘사만으로는 상상이 잘 안 되는 부분도 많다. 예를 들면 트와일라잇 시리즈 중 ‘에드워드가 벨벳 같은 목소리로 물었다.’라는 구절이 있는데 벨벳 같은 목소리라는 것은 짐작은 하지만 정확히 어떤 목소린지 알 수 없다. 또한 책을 읽다보면 특정 부분을 길게 늘어놓은 부분도 많이 있다. 이런 부분은 지루하기 때문에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고 책에 대한 흥미를 떨어뜨릴 수도 있다. 그리고 책에 심하게 빠져서 읽

20) 사고와 표현 교육과정 교재편찬위원회. (2015:99).

다보면 안 좋은 고정관념이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영화는 책에 비해 시각적으로나 청각적으로 즐거움을 준다. 일단 책으로 읽었거나 대략적인 내용은 알 수 있기 때문에 작은 부분의 묘사까지도 자세히 보게 되고 감동을 느낀다. 그리고 책을 보면서 이해가 잘 안가거나 상상이 안되었던 부분도 새롭게 이해하고 내용의 전개를 더 자연스럽게 재밌게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책을 읽었을 때는 지루한 부분도 읽고 오랜 시간이 걸렸다면 영화는 정해진 시간이 있고 지루한 부분을 제외한 재밌는 부분으로만 만든 것이기 때문에 더 집중력 있고 흥미롭게 볼 수 있다.

하지만 책을 보지 않고 영화를 먼저 볼 경우 상상력은 거의 키울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사람은 보이는 것을 믿기 때문에 영상에서 보이는 그대로를 받아들일 것이다. 그러므로 영화로 본 이미지들은 머릿속에 굳어질 것이고 사람마다 각기 다른 색다른 상상력은 발휘 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경험상 책을 보고 영화를 봤을 때 사람들이 집중하고 재밌게 볼 수 있는 시간은 대략 2시간에서 3시간 사이로 제한되어있기 때문에 전개가 너무 빨랐고 책의 섬세한 묘사 같은 것들이 영상으로는 자세히 표현 되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 아쉬웠다.

- 학생글, 「책을 읽는 것 VS 영화를 보는 것」 21)

다음으로, 여러 단락으로 이루어진 비교적 긴 텍스트에 대한 분석을 진행한다. 모범 텍스트의 용이한 분석을 위해 임의대로 단락 순서대로 번호를 매겨 분석하도록 한다. 전체 내용을 훑어 읽기를 통해 빠르게 알아보고 텍스트의 도입-본문-종결을 구분하도록 한다. 위 글의 처음은 단락 1이고, 끝은 마지막 단락인 단락 6이다. 본문을 구성하는 단락 2 ~ 단락 5의 중심 문장을 찾는다. 단락 2의 중심 문장은 “책은 일단 글로 되어있기 때문에 더 자세하고 생동감 있는 표현이 가능하다.”이며, 책 읽는 것의 장점을 열거를 통해 제시하였다. 단락 3의 중심 문장은 “하지만 책을 읽으면서 상상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다.”로 책을 읽는 것의 한계에 대해 예를 들어 서술하고 있다. 단락 4의 중심 문장은 “영화는 책에 비해 시각적으로나 청각적으로 즐거움을 준다.”이며, 영화를 보는 것의 장점을 열거를 통해 제시하고 있다. 단락 5의 중심 문장은 “하지만 책을 보지 않고 영화를 먼저 볼 경우 상상력은 거의 키울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로, 자신의 경험에 빗대어 서술하고 있다. 책을 읽는 것과 영화를 보는 것의 장점과 단점을 설명하기 위한 글이다. 필자는 논리적으로

21) 상계서. (2015:85-86).

로 내용을 전개하기 위해 책을 읽는 것과 영화를 보는 것의 장점과 단점을 비교·대조하고, 각각 적절한 예를 들어 설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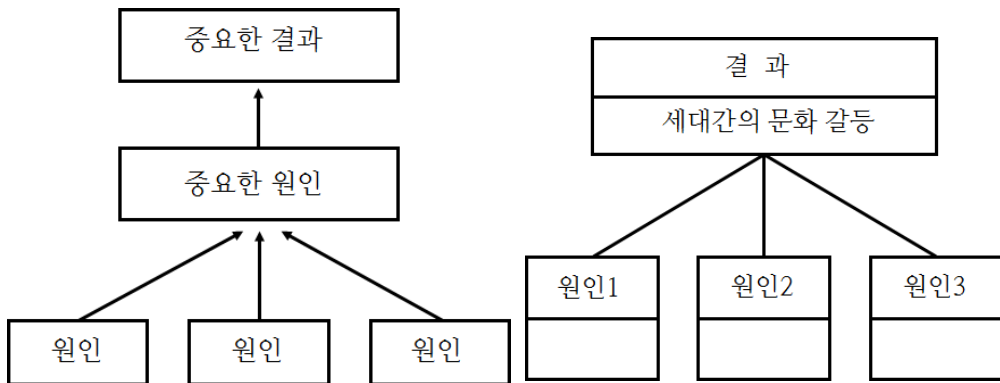
모범 텍스트 분석을 통하여 필자의 논지 전개 방법을 찾는 활동을 통해 다음 단계에서 학습할 패턴의 개념적인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한다. 교사는 글쓰기에 영향을 미치는 경험과 배경지식, 어휘·문법적 지식과 관련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 학습자가 아이디어 생성과 더불어 글쓰기 전체 과정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4.1.2 조직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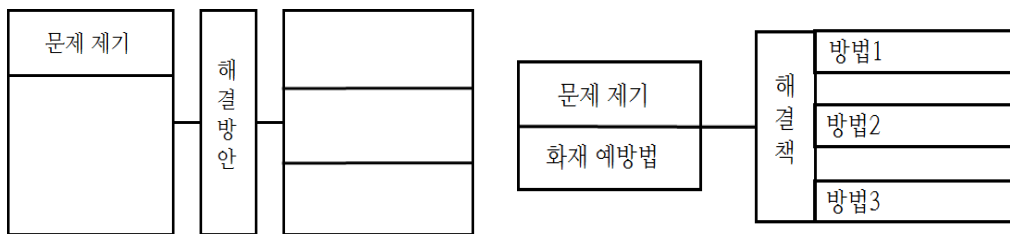
다음으로 이렇게 생성된 아이디어를 조직하여 구조화하는 단계가 필요하다. 글의 주제에 맞게 정보를 수집하여 아이디어를 생성한 뒤 이를 정리하여 내용을 어떻게 전개할지에 대해 구상하는 단계에 해당한다. 학습자가 주제에 대하여 충분한 브레인스토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주제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정리하고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메모하고 이를 적절히 유형화하기 위하여 패턴 모형을 활용하도록 한다.

김미경(2007)은 텍스트의 거시 구조를 ‘원인-결과 구조’, ‘문제-해결 구조’, ‘비교-대조 구조’, 세 가지로 구분하였는데, 그에 따른 김현연(2005)와 전지영(2001)의 연구에서 제시한 모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수업 주제에 따라 세 가지 구조를 수업자료로 제시하여 전반적인 글의 구조를 쉽게 떠올릴 수 있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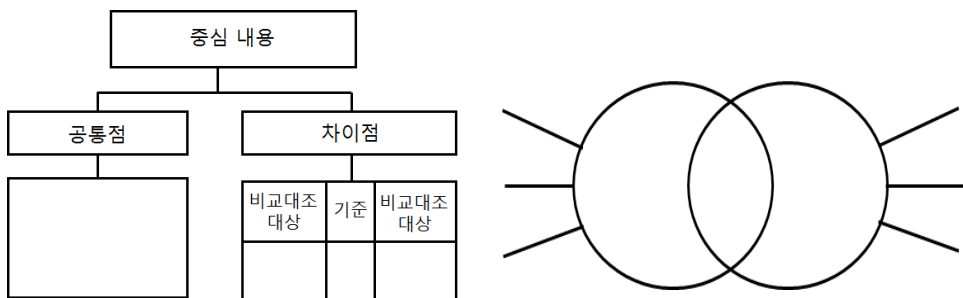
원인-결과 구조 모형1(김현연, 2005) 원인-결과 구조 모형2(전지영, 2001)



문제-해결 구조 모형1(김현연, 2005) 문제-해결 구조 모형2(전지영, 2001)



비교-대조 구조 모형1(김현연, 2005) 비교-대조 구조 모형2(전지영, 2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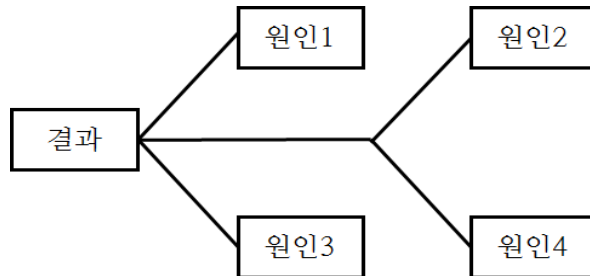


[그림 7] 텍스트 구조 모형²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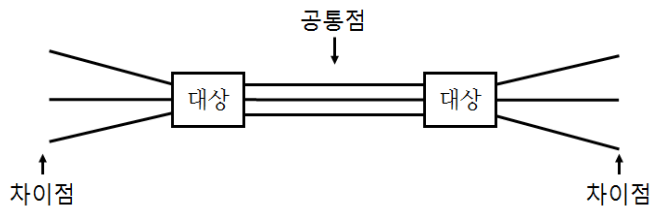
22) 김미경(2007).

이원구(2005)는 학습자 텍스트 분석을 통해 미시 구조와 거시 구조, 최상위 구조의 텍스트 구조 개념을 이해하여 실제적인 학문적 쓰기 교육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텍스트의 거시 구조를 ‘원인-결과 구조’, ‘비교-대조 구조’, ‘열거 구조’, ‘핵심-부가 구조’, ‘문제 해결 구조’, ‘복합 구조’로 구분하여 학습자 텍스트를 분석하였다. 학습자의 거시 구조 능력 향상을 위한 쓰기 교육 방안의 하나로 다발짓기를 통한 단락 쓰기를 제안하였다. 완벽하고 정확한 글을 쓰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다발짓기 모형을 제시하여 내용과 구조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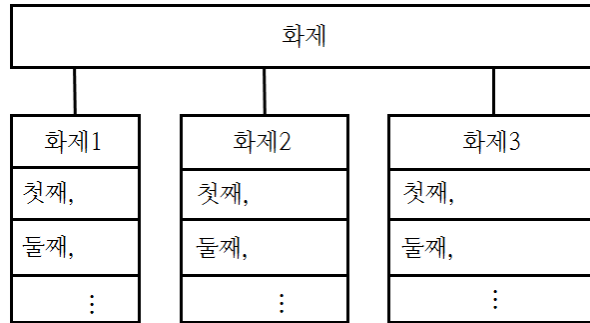
가. 원인-결과 구조의 다발짓기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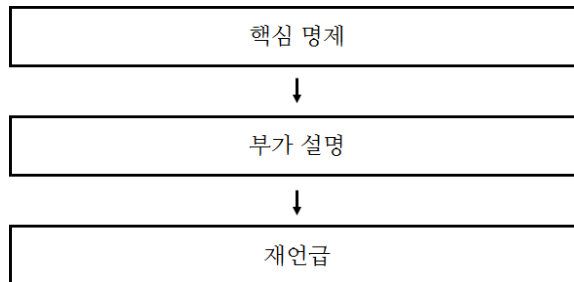
나. 비교-대조 구조의 다발짓기 모형



다. 열거 구조의 다발짓기 모형



라. 핵심-부가 구조의 다발짓기 모형



마. 문제 해결 구조의 다발짓기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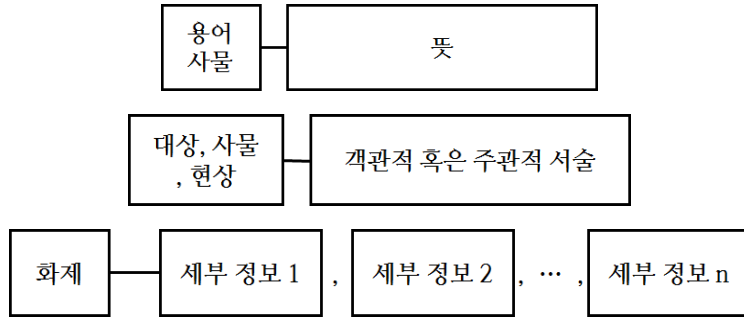


[그림 8] 내용 구조에 해당하는 다발짓기 모형²³⁾

이러한 패턴 모형 활용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서술 패턴’, ‘사례 제시 및 인용 패턴’, ‘구분·유형화 패턴’, ‘비교·대조 패턴’, ‘원인과 영향 패턴’, ‘문제 분석 및 해결책 제시 패턴’, ‘논쟁 및 설득 패턴’의 일곱 가지의 패턴 모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겠다.

23) 이원구(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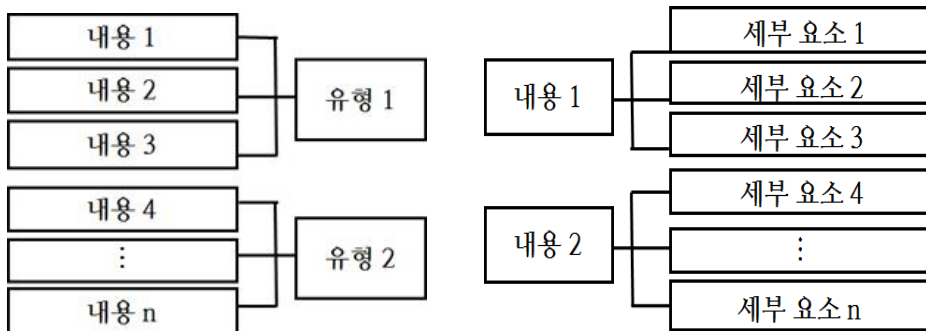
가. 서술 패턴 모형(정의, 묘사, 열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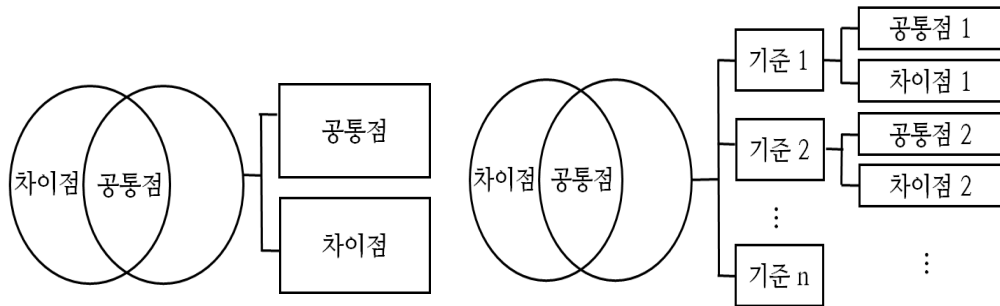
나. 사례 제시 및 인용 패턴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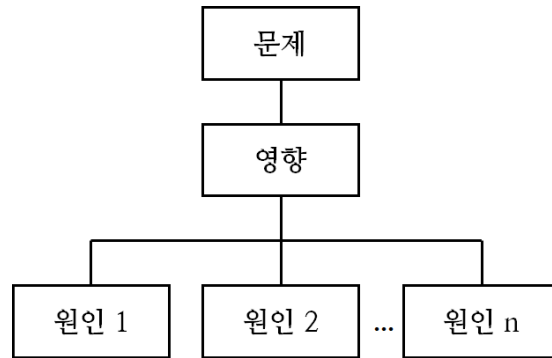
다. 구분·유형화 패턴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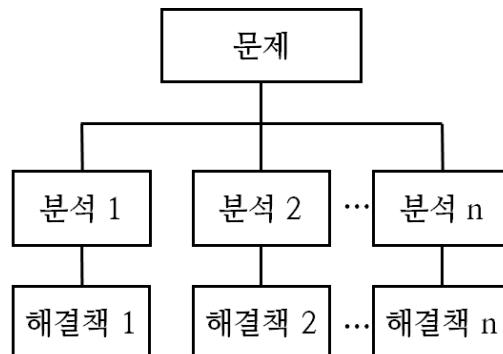
라. 비교·대조 패턴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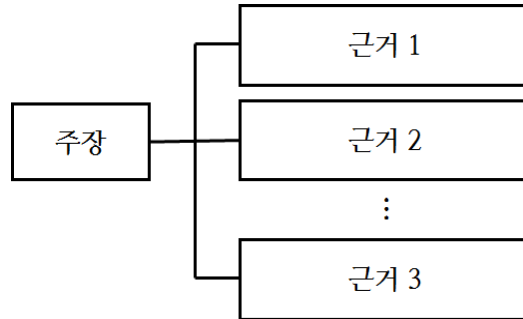
마. 원인과 영향 패턴 모형



바. 문제 분석 및 해결책 제시 패턴 모형



사. 논쟁과 설득 패턴



[그림 8] 에세이의 일곱 가지 패턴 모형

유형화의 과정에서 위의 일곱 가지 패턴의 모형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일곱 가지 패턴 모형에 대한 이해를 통해 학습자가 텍스트의 구조뿐만 아니라 내용 전개の方法적인 원리를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 학습자는 브레인스토밍에 의해 생성된 아이디어를 패턴 모형을 토대로 스스로 글을 구성하기 위한 일정한 기준과 원리에 따라 아이디어를 구분하고 상관성이 있는 것들을 묶어 분류한다. 이를 간략한 메모의 형식으로 패턴 모형에 맞게 구성하도록 한다. 패턴 모형의 활용을 통해 쉽고 빠르게 논리적인 내용 구성 및 전개가 이루어질 수 있다. 패턴 모형에 따른 아이디어의 조직·유형화 과정에 대한 충분한 연습을 통해 다양한 에세이의 논지 전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개요 작성을 통해 패턴 모형에 따라 유형화한 구상을 문장 단위로 구체화할 수 있도록 한다. 학습자의 의견에 맞게 유형화한 아이디어를 배치하면서 몇 개의 뒷받침 문단으로 본문을 구성할 것인지 결정한다. 만일 학습자들이 개요 작성에 익숙하지 않다면 협의 활동으로 진행할 수 있다. 글을 쓰는 목적을 뚜렷하게 설정하고 서로 의논을 통해 구성 방식을 조율할 수 있다. 각 아이디어에 적합한 중심 문장을 작성해보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어떠한 전략을 사용해야 타당성을 높일 수 있는지, 짜임새 있는 글을 완성하기 위해 고민해야 한다.

이 단계에서 수행 가능한 쓰기 활동의 예로 특정한 주제를 제시하고 이와

관련된 키워드를 제시하여 패턴 모형을 완성하고 개요를 작성해보는 활동이 있다. 정해진 주제에 따른 어느 정도의 뼈대가 구축된 상태에 살을 붙여 나가는 연습 활동을 진행해 보는 것도 전체적인 글의 내용 전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제시된 키워드를 선택하여 전체적인 연결성에 주의해 유형화한다. 완성한 패턴 모형을 바탕으로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을 써보고 간략한 개요를 작성해본다. 이 활동을 통해 ‘패턴’을 활용한 논리적인 단락 구성 방식을 익힐 수 있으며, 중심 주제를 뒷받침하는 본문의 구성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세부적인 개요 작성법을 익히고 다음에 진행할 글쓰기 단계의 틀을 마련하여 글쓰기에 대한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 패턴 활용에 대한 충분한 연습을 마치면 학습자 스스로 주제에 적합한 패턴을 선택하고 아이디어를 생성하여 조직할 수 있도록 한다. 패턴 모형에 따라 아이디어를 유형화하고 개요를 작성하도록 한다.

교사 및 동료 학습자와의 질문, 대화, 의논을 통해 주제와 관련한 주변적인 입력을 꾸준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학습자의 아이디어 생성을 돕는다. 교사 및 동료 학습자로부터 얻은 참신한 아이디어를 즉각적으로 글쓰기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발표, 토론, 토의, 대화, 의논 등의 협동 활동을 다소 활용하여 발화 행위를 통해 학습자의 참여도를 높이고 작문에 대한 자신감을 얻고 부담감을 줄일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동료 학습자와의 글에 대한 내용 정보의 공유를 통해 학습자 텍스트가 풍부한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한다.

4.1.3 쓰기 단계

쓰기 단계는 이전의 준비 단계에서 생성·조직한 내용을 글로써 표현하는 직접적 작문 단계이다. 학습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법적, 화용적 지식을 활용하여, 어휘를 조합하여 문장을 생성하고, 하나의 주제를 다루는 문장들의 집합으로 단락을 형성한다. 도입과 본문, 종결의 기능에 맞게 단락을 배치하여 마침내 하나의 텍스트를 완성하게 된다. 학습자는 자신의 언어 능력을 고려하여 처음부터 완벽한 텍스트를 완성하려고 하지 않아야 한다. 초고 쓰기 후, 수정 단계를 거치면서 점진적으로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 효율적인 작문의

방법이다.

따라서 초고 작성 시에 이미 작성한 패턴 모형 및 개요에 따른 내용을 문어체적 글쓰기로 빠르게 옮기는 전략적인 쓰기를 진행한다. 될 수 있으면 문장 규칙이나 맞춤법 등에 연연하지 말고 원고를 작성하도록 한다. 학습자로 하여금 충분한 수정의 기회가 있다는 것을 주지시키고 완벽한 글쓰기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한다. 주의할 점은 하나의 주제에 대한 일관된 내용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학습자의 생각을 빠르게 옮겨 적되, 아이디어의 조직 및 배열은 전체적인 주제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

4.1.4 고쳐쓰기

학습자들이 자신의 글을 스스로 평가하고 오류를 수정해 보도록 한다. 학습자는 완성된 초고에 대한 스스로의 수정 작업을 거친다. 내용과 형식, 어휘, 맞춤법 등 잘못된 부분을 간략하게 수정하고 다시 쓰도록 한다. 학습자 개인적으로 진행하는 1차 수정 작업을 거치고, 3-5명 정도의 학습자끼리 한 조를 구성한다. 구성원들 간에 돌려 읽기를 통해 공동체 내의 동료의 글을 감상하고 피드백을 주고받는다. 몇 번의 질의와 설명이 오고가면서 동료 피드백을 통한 2차 수정 작업을 거친다. 서로의 글을 검토하여 글의 목적과 의도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적절하게 구성하였는지, 효과적인 패턴 적용을 통해 논지 전개가 논리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내용의 의미적인 연결이 자연스러운지,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이 적절한지, 문장의 구조와 문법적 오류 등 텍스트 전체에서 세부적인 요소까지 살피며 피드백을 주고받고 수정을 진행한다.

다른 학습자의 글을 먼저 점검해 보고 피드백을 주고받은 뒤 자신의 글을 평가하면 스스로의 글에 대하여 보다 객관적인 시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학습자는 객관적인 평가와 더불어 스스로의 글을 점검하면서 자신의 작문 능력의 부족한 점에 대해 알 수 있다. 논리적·체계적인 논지 전개를 위해 선택한 패턴이 적절한지, 내용의 의미관계가 적절한지, 텍스트의 전반적인 연결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스스로 검토하고 수정한다. 내용의 통일성과 논리적인 긴밀성을 갖추었는지 전반적으로 점검한다. 충실히 수정 작업을 수행하여 깔끔한

글을 완성한다.

본문의 내용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전체 에세이의 목적과 성격이 달라질 수 있다. 학습자들이 이러한 본문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본문의 내용 구성 원리로서 패턴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내용 구성의 방법적 원리로서의 패턴은 글쓰기의 절차 중 조직하기 단계에서 교수-학습이 이루어진다. 본격적인 글쓰기에 앞서 단락 단위로 패턴에 대해 학습한다. 교사는 다양한 패턴 모형을 제시하고 몇 가지 주제를 제시하여 어떤 패턴 모형을 활용하였을 때 가장 효과적인 내용을 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학습자는 각자의 판단에 따라 주제에 따른 가장 효과적인 내용을 전개할 수 있는 패턴 모형을 선택한다. 패턴 모형에 따라 학습자가 생성한 아이디어를 채워 넣고 동료 학습자와 서로 공유하여 완성도를 높인다. 패턴 모형에 따라 구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짧은 글쓰기 활동을 하는 것으로 패턴에 대한 기초 학습을 마친다. 패턴 활용을 연습하기 위해 특정 주제에 대하여 학습자 스스로 효과적인 내용 구성을 위한 적절한 패턴을 선택하고 모형에 맞게 아이디어를 생성 및 조직한 뒤 서론-본론-결론의 3단 구성에 맞게 개요를 작성한다. 하나의 텍스트를 생성하는 이 활동으로 학습자는 패턴을 활용하여 보다 다양한 글을 쓸 수 있게 된다.

단락 단위의 연습 활동을 통해 다양한 패턴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학습자의 모국어 쓰기 교육의 영향으로 패턴 모형을 바탕으로 아이디어를 조직하는 것은 어렵지 않게 학습할 수 있을 것이다. 패턴에 따라 아이디어를 생성하고 효과적인 내용 구성을 위한 배열을 마치면 이 내용을 글로 옮기는 작업은 크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 인문·사회·과학·예술 등 전공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 걸친 텍스트를 다룰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패턴 활용 연습을 통해 학습자는 에세이의 내용 구성, 즉 자신의 생각·견해를 논리적으로 구성하는 방법에 대한 학습 요구를 해결할 수 있다.

V. 결 론

학습자는 글을 쓰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비단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다. 특히 글로써 자신의 주장을 표현하는 것은 독자를 고려해 내용 전개를 보다 논리적으로 구성해야하기 때문에 한국인과 외국인 학습자 모두 어려움을 느낀다. 하지만 ‘주장하기’는 삶의 전반에 걸쳐 빈번하게 나타나는 중요한 전략이다. 일생생활에서부터 학습상황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기 위해서는 ‘주장하기’ 전략은 필수적이다.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이러한 ‘주장하기’ 전략을 학술적인 상황에서 새로이 접하게 된다. 진학 후 여러 학술적·전문적·공식적인 긴 글을 다루게 되면서 텍스트의 전반적인 장르적·유형적 이해가 필요하다. 모든 글에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먼저 글의 구조에 대한 지식을 알고 내용을 채워나간다면 해당 글에 대한 학습자의 쓰기 능력은 보다 빠르게 향상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논지 전개에 있어서 다양한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면 학습자 텍스트의 높은 완성도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글의 전반적인 구성을 익히는 것만으로 글을 잘 쓸 수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목표어인 한국어로 생각하고 자유자재로 글을 구성 및 전개하는 한국인만큼이나 외국인인 학습자가 자연스럽게 유창한 글을 쓰기 위해서는 논지 전개 방법에 대한 교수-학습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는 외국인 유학생의 글쓰기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였다. 해마다 꾸준히 한국어 능력이 향상되는 것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작문에 어려움을 느끼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의 필요성에서 시작되었다. 외국인 유학생의 요구 조사 분석을 통해 학습자 텍스트의 논리성, 체계성을 더할 새로운 교육 방안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전달하여 상대방을 설득하고자 하는 성격이 강한 학술적인 텍스트를 ‘에세이’라는 용어로서 설명하였다. 우선 한국어 쓰기 교수 이론에 대해 살펴보고 에세이 쓰기 교육과 내용 구성 전략에 대한 선행 연구를 정리하였다. 이어서 본 연구의 바탕이 되는 이론적 배경으로 에세이 쓰기 교육과 전략으로서의 패턴을 활용한 글쓰기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텍스

트의 형식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필자의 견해를 논리적으로 펼칠 수 있도록 텍스트를 구성하는 내용 전개 방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논지 전개 방법’의 원리로 ‘패턴’의 용어를 사용하기 위해 유사한 개념이 사용된 예를 국어과 교육과정 및 해외 작문 교육 연구에서 찾아보았다.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어 에세이 쓰기 교육이 이루어지는 현황에 대해 분석하였다. 어학과정에 학문 목적의 한국어 과정이 개설되어 있는 연세대학교와 서강대학교를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어학과정과 학위과정의 교육과정 및 교재 분석을 통하여 에세이 교육이 이루어지는 현황을 분석하고, 패턴 즉, 논지 전개 방법에 대한 교수-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다. 또한 쓰기 교육에 패턴을 활용하였을 때의 효용성에 대해 알아보았다.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패턴을 활용하여 에세이 쓰기를 진행하였을 때, 아이디어를 생성·분류·조직하는 과정에서 학습자 사고력, 창의력의 활성화, 다양한 맥락의 주제 중심 학습, 학습자의 긍정적 태도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학술적 텍스트, 즉 에세이에 대하여 패턴을 활용한 쓰기 능력 향상 방안을 모색하였다. 텍스트의 형식적 특징뿐만 아니라 내용 구조에 대한 이해·학습을 통해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쓰기에 참여하여 체계적으로 본문을 구성할 수 있는 교수-학습 방안이다. ‘서술 패턴’, ‘사례 제시 및 인용 패턴’, ‘구분·유형화 패턴’, ‘비교·대조 패턴’, ‘원인과 영향 패턴’, ‘문제 분석 및 해결책 제시 패턴’, ‘논쟁과 설득 패턴’을 학습하여 전체 에세이의 유형을 결정짓는 본문의 내용 조직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학습자로 하여금 체계적인 쓰기 단계에 맞추어 본문 내용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 단락별로 적절한 아이디어와 세부 요소를 패턴이라는 방법적 원리를 적용하여 전개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상으로, 외국인 유학생들이 대학 진학 후에도 여전히 쓰기에 대한 어려움을 겪는 점에 대하여, 학문 목적 한국어 쓰기 교육에 대한 이론적 고찰 및 선행된 연구를 검토하였다. ‘주장’이 핵심 전략인 에세이 쓰기를 중심으로 한국어 쓰기 교육에 대한 연구들을 검토하여 외국인 유학생들이 쓰기에서 꾸준한 어려움을 느끼는 원인을 탐구하고자 하였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패턴

(Pattern)’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한국어 쓰기 교육에 도입하여 학습자들이 자신의 주장을 보다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교수-학습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패턴(Pattern)’ 개념을 쓰기 교육에 접목하기 전에 기존에 ‘패턴’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예를 찾아 정리하고 쓰기 및 작문 교육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의하였다. ‘패턴’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글쓰기 수업에 도입하려는 시도를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제와 맥락에 따라 자신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최선의 패턴을 찾아 보다 수준 높은 글을 완성할 수 있다. 또한 학습자들은 피드백 없이 수행해야 하는 과제물 작성이나 보고서 쓰기 등에서 패턴을 활용하여 자기 주도적으로 글쓰기를 완성하고, 자기 점검과 자기 통제를 통해 결과물을 스스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패턴’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사용해 논지 전개 방법을 교수-학습하여 얻을 수 있는 실제적 데이터를 얻지 못한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후속 연구에서는 패턴을 활용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여 데이터 분석을 통한 숙달도간 전략 사용 양상을 비교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또한 동일 숙달도 내에서 상위권 학습자와 하위권 학습자의 패턴 활용 양상을 면밀히 검토하여 그 차이를 알아보고, 각각의 학습자에게서 발생하는 교육 효과에 대해 알아보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향후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쓰기 교육 연구 및 현장에 유용한 교수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향후 본 연구의 확장으로서 교재 보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 대학에 진학하는 일반적인 학습자의 숙달도가 3~4급 수준이기 때문에 해당 수준의 쓰기에 대한 보강이 필요하다. 대학 기관이 출판한 통합 교재의 경우 해당 기관의 일반 목적의 학습자는 물론, 다양한 목적으로 한국어를 학습하는 특수 목적의 학습자들까지 교재로 사용하며 신뢰한다. 이 통합 교재의 3~4급의 쓰기에 대하여 난이도 어휘·표현이 다양하게 등장하는 텍스트를 다루고 보다 긴 글쓰기 연습 활동이 추가되는 등의 보강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혹은 쓰기 전문 교재에 대한 보강이 이루어질 수 있다. 특히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쓰기 전문 교재의 경우, 학습자가 막 입학했을 때의 한국어 능력을 고려

하여 초반부터 제시하는 어휘·문법과 텍스트 수준에서 갑작스러운 차이를 겪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텍스트 유형에 따라 구조와 패턴을 익혀 스스로 글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긴 글쓰기 연습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외국인 전용 교양 교재를 개발하여 대학 차원에서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어 능력을 보강하는 제도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대학 교양 교재는 신입생을 대상으로 하는 필수 교양 수업에서 한국인, 즉 모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개발되어 있다. 대학에 진학한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인 학생들과 함께 수강하기에는 수준이 높거나 생소한 텍스트의 길이, 사용된 어휘·문법 등이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인 전용 교양 교재를 개발하여 외국인 유학생에게 전문 교육을 제공하는 것 또한 향후 논의되어야 할 문제이다.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쓰기 교재는 대학 공동체 안에서의 학문적 성격의 의사소통 방식을 다룬다는 점에서 일반 목적의 한국어의 쓰기 교재와 차별화되어야 한다.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쓰기 전용 교재에서는 학습자들의 특성을 반영하여 구체적인 교육 항목이나 정보의 제시 방식 등을 달리 구성해야 할 것이다.

학부 교양을 흡수하여 학부 유학생 전용 쓰기 과목을 개설하는 방법이 있다. 대학 진학 이후 유학생들이 가장 어려움을 느끼고 전문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는 기능이 쓰기임을 확인한 바 있다. 학부 교양으로 유학생 전용 쓰기 과목을 개설하여 학술적 쓰기 활동에 대해 학습하여 이후의 대학 생활에 필요한 한국어 쓰기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국내문헌

- 구효정. (2015). 장르 중심의 한국어 논설문 쓰기 수업 연구. 『대학작문』, 14, 77-102쪽.
- 김동환. (2012). 모국어 지배 환경에서의 한국어 교수-학습 방법의 사례 연구. 『국어교육학연구』, 제43집.
- 김미영. (2016). 한국어 학습자 글쓰기 교육을 위한 텍스트 내용 구조 분석 연구. 『語文研究』, 89, 37-62쪽.
- 김영미. (2010). 학문 목적 한국어 쓰기 교육. 『한국어교육』, 제21권 1호, 87-123쪽.
- 김은정. (2012). 학문목적 글쓰기를 위한 대학글쓰기 교육 방안. 『교양교육연구』, 6(3), 541-568쪽.
- _____. (2013).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글쓰기 교육. 『교양교육연구』, 7(1), 365-398쪽.
- 김인규. (2003). 학문 목적을 위한 한국어 요구 분석 및 교수요목 개발. 『한국어교육』, 14(3), 81-118쪽.
- 김정숙. (2004). 한국어 읽기·쓰기 교재 개발 방안 연구 -교수요목의 유형과 과제 구성을 중심으로. 『한국어 교육』, 제15권 3호, 1-21쪽.
- _____. (2007). 읽기·쓰기 활동을 통합한 학술 보고서 쓰기 지도 방안. 『이중언어학』, 제33호, 35-54쪽.
- 김현미. (2013). ‘설득’하는 글과 ‘주장’하는 글의 용어 변별 및 위계화 방향. 『새국어교육』, 제96호, 75-101쪽.
- 김현진. (2011). 학위논문 작성 교과목의 교수요목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한국어교육』, 제22권 1호, 47-73쪽.
- 도애경. (2006). 대학 작문 교육의 전략적 접근. 『한국언어문학』, 57권, 329-355쪽.

- 민현식. (2003). 국어학의 학제간 연구 현황과 과제. 『한국어문학회』, 제79호, 1-54쪽.
- 박나리. (2013). 학문목적 한국어 쓰기 학습자를 위한 학술논문 각주 분석. 『작문연구』, 제17집, 227-269쪽.
- 박미숙·방현희. (2014). 외국인 대학원생의 학술적 글쓰기 해결과정. 『문화교류연구』, 3(1), 67-84쪽.
- 박석준. (2008). 국내 대학의 학문 목적 한국어 교육 현황 분석. 『한국어교육』, 19(3), 169-200쪽.
- 성아영·이경. (2016). 학문 목적 한국어 교육의 연구 동향 분석 및 연구 방안 제언. 『새국어교육』, 106, 267-299쪽.
- 손달임. (2016).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학술적 글쓰기 교재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6권 11호, 985-1015쪽.
- 신영지. (2016). 학문 목적 한국어 쓰기 교육의 학습전략 연구. 『반교어문연구』, 43, 383-415쪽.
- 안정호. (2012). 학문 목적 한국어 작문 교육을 위한 학습자 텍스트 구조 분석 연구. 『작문연구』, 15, 102-126쪽.
- 이미혜. (2010). 장르 중심 한국어 쓰기 교육의 내용 체계. 『외국어교육』 Vol.17 No.3, 463-485쪽.
- _____. (2011). 한국어 쓰기 교육을 위한 장르 분류 연구. 『외국어교육』, 제18권 제3호, 391-412쪽.
- _____. (2013). 숙달도에 따른 한국어 쓰기 교육의 주요 장르 선정. 『국어국문학』, 163, 225-247쪽.
- 이승연. (2012). 유학생을 위한 시험 답안 작성법 교육 연구. 『이중언어학』, 제48호, 343-368쪽.
- 이은희·박새암. (2008). 학문목적 한국어 쓰기 교육을 위한 교재 분석 연구. 『소통과 인문학』, 6, 77-107쪽.
- 임태운. (2015). 텍스트 구조 분석을 통한 한국어 장르 쓰기 교육 방안 연구. 『한국어의미학』, 49, 189-219쪽.
- 장미영. (2013). 대학 실용글쓰기 지도 방법 연구. 『한성어문학회』, 32권,

469-489.

- 장미정. (2016). 학문 목적 한국어 쓰기 기술에 대한 중국인 학습자 요구 분석 연구. 『한국어교육』, 27(2), 251-273.
- 정다운. (2014). 외국인 대학원생을 위한 논문 쓰기 수업 사례 연구, 『어문론집』, 58, 487-516쪽.
- 정미현. (2003). 협의 중심의 과정 중심 글쓰기의 효율성. 『국어교육』, 112, 95-130쪽.
- 정영예. (2011). 협력학습을 통한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의 보고서 쓰기 교육 방안 : 공학계열의 제안서를 중심으로. 『국어교과교육연구』, 19, 313-342쪽.
- 채윤미. (2016). 한국어 학습자의 논증 텍스트에 나타난 논증 도식 양상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6(2), 807-828쪽.
- 최정순·윤지원. (2012). 연구 동향 분석을 통해 본 학문 목적 한국어교육 연구의 실태와 제언. 『어문학회』, 74, 131-156쪽.
- 하승현. (2012). 한국어 자기소개서의 장르 분석적 연구. 『국제한국어교육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12, 170-183쪽.
- 형재연. (2015). 대학 내 학문 목적 한국어 교육과정 현황 분석 연구. 『한성어문학』, 34, 387-428쪽.
- 황인교. (2015). 학문 목적 한국어교육을 위한 교재 연구.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43, 315-346쪽.
- 황재범. (2003). 한국에서의 논술문 쓰기 교육의 문제 및 논술문 작성법 시론. 『철학논총』, 32, 559-577쪽.
- LI YAN·김정남. (2014). 장르 중심 쓰기 교육을 위한 제안. 『텍스트언어학』, 36, 287-321쪽.
- 김미경. (2007). 「텍스트 구조 학습이 한국어 쓰기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지학. (2009). 「고급 단계 학습자의 학술적 쓰기 능력 향상을 위한 교수-학습 방안」. 상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현철. (2015).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교재에 나타난 쓰기 과제

- 의 타당성 분석」. 경인교육대학교 교육전문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혜미. (2013). 「논증 표지를 활용한 한국어 논설문 쓰기 교육 방안 연구」.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남주혜. (2011). 「학문 목적 한국어 논설문 쓰기 교재 개발 방안 연구」.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도형초. (2009). 「논설문 구조에 대한 이해력 발달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동황염. (2012). 「유학생의 학업 능력 향상을 위한 한국어 쓰기 교육 연구 : 시험 답안 텍스트 유형을 중심으로」. 세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목계연. (2008). 「대학 수학 목적 한국어 쓰기 교육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새암. (2009). 「학문 목적 한국어 쓰기 교육 방향 연구」. 한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은선. (2014). 「장르 중심 학문 목적 한국어 쓰기 교수의 실행연구 : 대학원 보고서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박주영. (2012). 「장르 중심 한국어 설명문 쓰기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혜리. (2015). 「논증 구조를 활용한 설득적 텍스트의 교육 방안 연구」.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신필여. (2008).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설명적 쓰기 교육 내용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양건승. (2007). 「자기소개서 텍스트의 수사학적 분석과 한국어교육 적용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유미정. (2011). 「읽기 텍스트를 활용한 장르 중심 한국어 쓰기 교육 방안 연구」. 배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원구. (2005). 「텍스트 구조 지도를 통한 학문적 쓰기 교육 방안 연구」.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은혜. (2011). 「한국어 학습자의 작문에 나타난 장르 인식 양상 연구: 설명문과 논설문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정연. (2016).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설득적 말하기 교육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주민. (2012). 「장르 중심 교수법을 활용한 설득 텍스트 쓰기 방안」. 상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지현. (2014). 「한국어 모어 화자와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학업계획서 비교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혜정. (2013). 「한국어 주장하는 글쓰기 교수·학습 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임수진. (2014). 「고급 한국어 쓰기 교육의 해석학적 내용지식 구성 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장미정. (2016). 「학문 목적 한국어 쓰기 지식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전미화. (2015). 「한국어 쓰기에서의 내용 지식 구성에 관한 연구」. 배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전주찬. (2016). 「논증 구조 학습이 논설문 쓰기 능력 및 쓰기 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정영애. (2013). 「공학계열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한국어 학술보고서 쓰기 교재 개발 방안」.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정유정. (2015). 「학문 목적 학습자를 위한 <학업계획서> 텍스트의 장르 분석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정유진. (2015). 「장르 중심 한국어 자기소개서 쓰기 교육 방안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정은진. (2009). 「과제기반형태집중 활동을 통한 담화표지 교육 효과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정진경. (2012).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장르 중심 쓰기 교육 연구 : 시험 답안 담화 표지 분석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조효정. (2005). 「논증 구조 익히기를 통한 주장하는 글쓰기 지도 연구」. 부산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최선미. (2008).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한국어 학술 보고서 쓰기 교재의 개

- 발 연구」. 韓國外國語大學校 教育大學院 석사학위 논문.
- 홍정현. (2005). 「학문 목적 한국어 쓰기 요구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LI YAN. (2015). 「중국인 대상 장르 중심 쓰기 교육」.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고려대학교 한국어문화교육센터. (2010). 『재미있는 한국어 3』. (주)교보문고.
- 고려대학교 한국어문화교육센터. (2010). 『재미있는 한국어 4』. (주)교보문고.
- 고려대학교 한국어문화교육센터. (2010). 『재미있는 한국어 5』. (주)교보문고.
- 고려대학교 한국어문화교육센터. (2010). 『재미있는 한국어 6』. (주)교보문고.
- 교육부. (2005). Study Korea Project.
- 교육부. (2013). Study Korea 2020 Project.
- 교육부. (2015). 2015년 국내 외국인 유학생 통계.
- 교육부. (2016). 2016년 국내 외국인 유학생 통계.
- 국제한국어교육학회(2010), 『한국어 표현교육론』, 형설출판사.
- 김성희 외. (2012). 『서강한국어 학문 목적 과정 쓰기1』. 서강대학교 국제문화교육원 출판부.
- 김성희 외. (2012). 『서강한국어 학문 목적 과정 쓰기3』. 서강대학교 국제문화교육원 출판부.
- 김현정 외. (2015). 『서강한국어 학문 목적 과정 쓰기3』. 서강대학교 국제문화교육원 출판부.
- 김현정 외. (2013). 『서강한국어 학문 목적 과정 쓰기4』. 서강대학교 국제문화교육원 출판부.
- 사고와 표현 교육과정 교재편찬위원회. (2015). 『패턴 중심 글쓰기와 말하기의 전략 | 인문대학』. 한성대학교 출판부.
- 사고와 표현 교육과정 교재편찬위원회. (2015). 『패턴 중심 글쓰기와 말하기의 전략 | 사회과학대학』. 한성대학교 출판부.
- 사고와 표현 교육과정 교재편찬위원회. (2015). 『패턴 중심 글쓰기와 말하기의 전략 | 예술대학』. 한성대학교 출판부.

사고와 표현 교육과정 교재편찬위원회. (2015). 『패턴 중심 글쓰기와 말하기의 전략 | 공과대학』 . 한성대학교 출판부.

서강대학교 교양국어 교재편찬위원회. (2011). 『읽기와 쓰기』 . 서강대학교출판부.

신형기. (2003). 『글쓰기』 .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교재편찬위원회. (2012). 『대학 강의 수강을 위한 한국어 쓰기 중급 I』 .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교재편찬위원회. (2012). 『대학 강의 수강을 위한 한국어 쓰기 중급 II』 .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교재편찬위원회. (2012). 『대학 강의 수강을 위한 한국어 쓰기 고급』 .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2. 국외문헌

Ann Hogue. (2000). 『Writing Academic English, Fourth Edition』 . Pears on Education.

Folse 외. (2002). 『Blueprints 1: Composition Skills for Academic Writing』 . Houghton Mifflin.

Folse 외. (2002). 『Blueprints 2: Composition Skills for Academic Writing』 . Houghton Mifflin.

H. H. Stern. (2015). 『언어 교수의 기본 개념 Fundamental Concepts of Language Teaching』 . 하우.

Jason Davis·Rhonda Liss. (2006). 『Effective Academic Writing 3』 . Oxford.

Joy M. Reid. (2000). 『Process of Composition, Third Edition』 . Pearson Education.

Judith Nadel 외. (2009). 『The Longman Reader』 . Pearson Education.

Long. (2007). 『college writing resources』 .Longman.

Macmillan/McGraw-Hill. (2005). 『Language Arts』 . Macmillan/McGraw-Hill.

- Regina L. Smalley 외. (2002). 『Refining Composition Skills Rhetoric and Grammar』 . Heinle&Heinle.
- Robert A. Schwegler. (2010). 『Patterns of Exposition』 . Pearson Education.
- WALSH, Laura. (1999). 『focus on writing 5: student book』 Pearson College Div.
- William Grabe & Robert B. Kaplan. (2008). 『쓰기 이론과 실천사례 Theory and Practice of Writing』 . 박이정.
- Willian J. Kelly. (2008). 『Strategy and Structure』 . Pearson Education.

[부록 1] 설 문 지

안녕하세요.

설문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본 설문지는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의 주장하는 글쓰기 교육 연구에 관한 기초 조사로서, 여러분의 소중한 답변이 한국어교육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래의 질문을 읽고 솔직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본 설문지의 결과는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입니다.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한국어문학부 한국어교육전공 이흥미

소속 : _____학과 _____학년

1. 한국어 교육 기관(국제어학원, 한국어학당 등)에서 한국어를 배운 적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1-1. 대학에 입학하기 전 한국어를 공부한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① 공부한 적이 없다 ② 1개월~6개월 ③ 6개월~1년, ④ 1년~2년 ⑤ 2년 이상

1-2. 본인의 한국어 능력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① 1급 ② 2급 ③ 3급 ④ 4급 ⑤ 5급 ⑥ 6급

1-3. 아래의 한국어 영역을 어려운 순서대로 쓰세요.

① 말하기 ② 듣기 ③ 읽기 ④ 쓰기

가장 어려움.

(→)

가장 어렵지 않음.

(→)

1-4. 한국어 교육 기관에서 배운 쓰기 공부가 대학 수업의 쓰기 공부에 도움이 됩니까?

① 많이 도움이 된다 ② 조금 도움이 된다 ③ 보통이다
④ 조금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2. 현재 당신의 쓰기 능력이 학부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쓰기 과제를 수행하는 데 무리가 없습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불가능하다

3. 대학 수업에서 본인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① 전공 과목 ② 교양 과목 ③ 영어 강의 ④ 실험/실습/실기 과목

4. 글쓰기 경험이 다양합니까? 다음 중에서 가장 많이 써 본 유형은 무엇입니까?

① 개요 작성하기 ② 주어진 글 요약하기 ③ 발표문 작성하기
④ 논술 및 논증하기 ⑤ 기타()

5. 대학 쓰기 수업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가능.)

① 노트 필기하기 ② 시험 답안지 작성하기
③ 리포트 작성하기 ④ 기타 ()

6. 본인이 수행한 다양한 쓰기 과제 중에서 어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가능.)

① 개요 작성하기 ② 주어진 글 요약하기 ③ 발표문 작성하기
④ 논술 및 논증하기 ⑤ 기타()

7. 실제 대학 생활에서 글쓰기가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합니까?

① 아주 중요하다. ② 중요하다. ③ 보통이다. ④ 중요하지 않다. ⑤ 전혀 중요하지 않다.

8. 한국어를 잘 쓰기 위해 배우길 원하는 쓰기 유형이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가능.)

① 개요 작성하기 ② 주어진 글 요약하기 ③ 발표문 작성하기
④ 논술 및 논증하기 ⑤ 기타()

9. ‘주장하는 글쓰기’라고 하면 어떤 것이 생각납니까?

10. 한국어 ‘주장하는 글쓰기’를 배운 적이 있습니까? ‘주장하는 글쓰기’의 어떤 주제를 다루었습니까? 기억나는 것을 써 주십시오.

11. 한국어 ‘주장하는 글쓰기’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자유롭게 써 주십시오.

12. 한국어 쓰기 수업에서 다루어야 할 가장 중요한 쓰기 유형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복수응답 가능.)

- ① 개요 작성하기 ② 주어진 글 요약하기 ③ 발표문 작성하기
④ 논술 및 논증하기 ⑤ 기타()

13. 한국어 쓰기 수업에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이 있으면 자유롭게 써 주십시오.

--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ABSTRACT

A study on korean essay writing teaching method
for foreign student

Lee, Hong-Mi

Major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Dept. of Korean Language & Literature

The Graduate School

Hansu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essay writing teaching-learning methods using pattern as a point development strategy for foreign students who are studying in Korean university(graduate school).

Foreign students are experiencing the biggest difficulty with academic text production activities in college studies. It is because academic text requires to logically develop one's opinion but learning the point development method is not easy. According to the result of analyzing precedent studies on writing education for foreign students, foreign Korean language learners who are studying in university(graduate school) were recognizing the necessity of professional writing education related to academic texts. Based on the requirement analysis, this study

considered that new educational methods are necessary which can add logicity and organization of texts that learners produced.

Based on the judgement, this study named the range of academic text which is essential to the college studies as essay and intended to suggest methods of using pattern as an essay writing strategy. This study considered that understanding and application of patterns applicable to the production process of various essays can work as a practical writing strategy.

This study established the concept of essay and pattern by reviewing precedent studies and related theories, and determined if essay and pattern are being used in the current Korean writing education for foreign students. This study analyzed the language course and writing academic curriculum and teaching materials of Yonsei University and Sogang University that established curriculum for academic purposes in language course to explore possibilities for pattern usage in Korean writing education.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 they were suggesting pattern as a simple content development method but approach of using pattern as a strategy was not taking place. Therefore, this study suggested 7 types of applicable pattern in essay writing as 'Description pattern,' 'Case presentation and Quotation pattern,' 'Division·Classification pattern,' 'Comparison·Contrast pattern,' 'Cause and Effect pattern,' 'Analysis of issue and Presentation of solution pattern,' and 'Argumentation and Persuasion pattern,' and suggested methods of using these patterns as a strategy in essay writing activity. Meaning, this study suggested teaching-learning methods of pattern oriented essay writing.

Learning and training of method of thesis development are essential for foreign students to write natural and fluent essays in Korean.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that it has made an attempt to introduce a new strategic concept called 'pattern' in writing classes. Specially, the

differential significance of this study from existing research is that it intended learners to understand practical principles of developing their point using appropriate pattern. It is a teaching-learning method of composing their writing by actively participating in writing through learning the structure of contents. It is expected that learners can take the lead in completing their writing by using pattern in assignments that need to be carried out without feedback, and to evaluate results on their own through self-monitoring and self-control.

【Keywords】 Korean language education, students with academic purposes, Korean writing education, academic writing, essay writing, writing strategy, pattern, method of thesis development